

11-30-2000

## 선교중심의 지역교회 목회

Sung Eun Kim 김성은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김성은, "선교중심의 지역교회 목회."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0.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MISSION-CENTERED MINISTRY OF A LOCAL CHURCH**

written by

**SUNG EU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Hyo Shick Pai

---

Seyoon Kim

November 30, 2000

**MISSION-CENTERED MINISTRY  
OF A LOCAL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 EUN KIM**

NOVEMBER 2000

# 선교 중심의 지역교회 목회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배효식 교수

김 성 은

2000년 11월

## Abstract

Mission - Centered Church Ministry of A Local Church

Sung Eun Kim

Doctor of Ministry

2000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y Seminary

Here begins 21st century of Korean Churches. During this millennium requires new consideration of missionary work in accordance with its extreme expansion in quality along with the increase in quantity. Along with this positive perception, the existing out-of-dated strategy of missions needs to be reviewed, and new strategy in high quality is in demand, which is designed by the study of problems that missionaries face, and their failures. Therefore I recognized that these problems resulted from the weakness of motives and strategies of missionaries among the Korean Churches, especially the individual churches. Throughout this study I would like to develop my new strategies of mission work.

In my study, first of all, I will reset certain relationships between the churches and missionary work. Particularly, the church is essential core of mission work because it is taking granted as a paradigm of mission in 21st century. It is not appropriate that all of the present churches obsessively take the control of all mission work. It does not mean that the mission work, depending on circumstances, should be performed or not. This incident frequently occurs when the situation is preposterous. Then the churches must be granted as proxies that accomplish the Gods will, and at this time they can find themselves and carry out what they have assigned by the Lord.

Secondly, I will discuss the generality of missions. Martin Luther theoretically thought that the gospel was preached by the apostles. And it was his opinion that the missionary work was achieved only through the individual

churches. But the Bible says, I will be always with you at the end of the world. This phrase implies the generality of mission given to all Christians not only in the age of apostles but also at the end of the world. Not only for the leaders in the church but also for the laymen, not only for deploying churches but for deployed churches, they must have the duties and assurance towards missionary work. All Christians have equal responsibilities for mission.

Thirdly, I will discuss about the mission policies of local churches to achieve a successful mission that keeps pace with the times. In order to achieve the mission-based pastoral activities that of course deviate from its size-based activities, it requires new variety of paradigm. It additionally requires revising existing structures of churches and the budgets that will fit to changed structures.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relationship.

In my study I establish the global mission policies for the mission-centered local churches to achieve successful mission work, which are also applicable to new era. I further set new strategies, based on existing mission patterns, which adopt the rapid social changes in 21st century. I will emphasize my study on developing new policies targeting to the entire world as our mission goal-regions. These policies, departing from individual church-basis, include associated training, missionary management, their children problems, and all matters afterwards.

Theological Mentors: Hyo Shick Pai, Ph. D.  
Seyoon Kim, Ph. D

## 목 차

|                                     |    |
|-------------------------------------|----|
| 서 론 .....                           | 1  |
|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              | 1  |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 4  |
| 제 3 절 연구 용어의 정의 .....               | 5  |
| 제 4 절 연구의 중요성 .....                 | 6  |
| <br>                                |    |
| 제 1 장 교회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문헌적 배경 ..... | 7  |
| 제 1 절 교회에 대한 성경적 배경 .....           | 7  |
| 1. 구약에서의 교회 .....                   | 7  |
| 2. 신약에서의 교회 .....                   | 8  |
| 제 2 절 교회의 사명 .....                  | 12 |
| 1. 예배 .....                         | 12 |
| 2. 전도와 선교 .....                     | 14 |
| 3. 교육 .....                         | 15 |
| 4. 친교 .....                         | 16 |
| 5. 봉사 .....                         | 17 |
| <br>                                |    |
| 제 2 장 선교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문헌적 배경 ..... | 18 |
| 제 1 절 교회에 대한 성경적 배경 .....           | 18 |
| 1. 구약에서의 선교 .....                   | 18 |
| 2. 신약에서의 선교 .....                   | 23 |
| 제 2 절 선교의 신학적 배경 .....              | 38 |
| 1. 복음주의 선교신학 .....                  | 38 |
| 2. 에큐메니칼의 선교신학 .....                | 40 |
| 3. 두 선교신학의 차이 .....                 | 43 |

|                                   |    |
|-----------------------------------|----|
| 제 3 장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 .....           | 46 |
| 제 1 절 언어적인 측면에서 관계성 .....         | 46 |
| 1. 선교의 언어적인 의미와 사용 .....          | 46 |
| 2. 교회의 언어적인 의미와 사용 .....          | 48 |
| 3. 교회와 선교의 언어적인 사용에 있어서 관계성 ..... | 49 |
| 제 2 절 역사적 측면에서의 관계성 .....         | 51 |
| 1. 종교개혁 이전까지 .....                | 51 |
| 2. 종교개혁 당시 .....                  | 55 |
| 3.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 .....           | 57 |
| <br>                              |    |
| 제 4 장 선교 지향적인 목회 .....            | 62 |
| 제 1 절 선교 지향적인 목회 계획 .....         | 62 |
| 1. 목회신학의 정립 .....                 | 62 |
| 2. 선교에 대한 목회 계획 .....             | 64 |
| 제 2 절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특성 .....        | 66 |
| 1. 예루살렘교회 .....                   | 66 |
| 2. 안디옥교회 .....                    | 68 |
| 3. 빌립보교회 .....                    | 70 |
| <br>                              |    |
| 제 5 장 성공적인 선교 지향적인 모델 .....       | 71 |
| 제 1 절 전주 안디옥교회 .....              | 71 |
| 1. 교회 설립 이념 목적 .....              | 71 |
| 2. 선교 사역들 .....                   | 72 |
| 3. 선교 교육 현황 .....                 | 73 |
| 4. 한국 선교를 위한 담임목사의 제언 .....       | 74 |
| 제 2 절 대구 동신교회 .....               | 75 |
| 1. 교회 설립 이념과 선교 역사 .....          | 75 |
| 2. 선교 사역들 .....                   | 76 |



|                            |     |
|----------------------------|-----|
| 3. 선교 교육 현황 .....          | 78  |
| 4. 선교 사역 분석 .....          | 79  |
| 제 3 절 두 교회의 목회의 특징 .....   | 86  |
| 제 6 장 선교에 대한 전략 개발 .....   | 87  |
| 제 1 절 선교 의식 개발 .....       | 87  |
| 1. 교역자의 선교 의식 개발 .....     | 87  |
| 2. 평신도의 선교 의식 개발 .....     | 90  |
| 제 2 절 선교 교육 정책 .....       | 93  |
| 1. 선교 교육 정책의 필요성 .....     | 93  |
| 2. 선교 교육의 방법론 .....        | 94  |
| 제 3 절 선교의 구조화 .....        | 99  |
| 1. 선교 재정의 구조화 .....        | 99  |
| 2. 조직의 구조화 .....           | 102 |
| 3. 관계의 구조화 .....           | 105 |
| 제 4 절 평신도 선교 정책 .....      | 112 |
| 1. 평신도 선교의 필요성 .....       | 112 |
| 2. 평신도 선교의 사역분야 .....      | 113 |
| 3. 평신도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 ..... | 115 |
| 결    론 .....               | 118 |
| 부    록 .....               | 122 |
| 참고 문헌 .....                | 125 |

##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생활화 할 때에야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Thomas F. Torrance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는다.”<sup>1)</sup> 라고 선교를 강조한 것이 바로 한국 교회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선교에 앞장선 교회임에 틀림없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부흥 도상에 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 부흥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는 선교를 받는 처음 단계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하여 선교에 힘썼다는 사실을 들어 “주는 교회”로서의 한국 교회가 오늘의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선교학자들의 평가를 듣기에 이르렀다.<sup>2)</sup> 한국 교회는 “주는 교회”였고 “감사하는 교회”였다.

1907년 독 노회가 조직되었을 때 처음 안수 받은 일곱 목사들 가운데 한 분인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를 위해 주었고, 1909년 일곱 분의 목사들 가운데 또 한 분인 한석진 목사를 동경에 파송하였으며, 같은 해 한국 장로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을 돌보도록 방화청을 캘리포니아에 파송하였는데 그도 역시 장로교회에서 안수 받은 첫 일곱 목사들 가운데 한 분이였다. 그 외에도 다른 한 분이 더 파송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기와 선교지는 알 수 없다.<sup>3)</sup> 1913년 총회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3인을

1) Thomas F. Torrance, “The Mission of the Chur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9 (1966):141.

2) 김의환,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43.

3) 박기호, “한국 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강의교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정식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였다.4)

이처럼 한국 교회는 교회 초창기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하였기에 오늘날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발전하였다는 이론은 틀린 것이 아니다. 불과 100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그토록 심한 일제 박해와 공산 박해를 겪고 6.25동란의 환난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장로 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를 이룩하였음은 실로 경이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5)

최초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한 이후 1945년까지 82명의 선교사들이 북만주, 일본, 하와이 등지로 선교하러 떠났다. 그 이후 한국 교회의 선교는 주춤하다가 1970년을 고비로 선교의 열풍은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참으로 많은 자들이 선교사로 나갔다. 파송되는 선교사의 숫자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1978년 26개국에서 1992년에는 119개 국가를 넘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6) 이것은 선교의 과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미 보편화된 문제이며 교단을 초월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모두가 열심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수많은 교회와 선교단체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국 선교는 이제 시작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속한 아시아 복음화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중동권, 모슬렘권, 힌두권, 불교권 등 복음이 아직도 침투되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7) 이제는 서구 교회의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나 혹은 제3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21세기 세계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교가 한국 교회의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 사역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도 선교의 불이 타오르고 있음은 크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선교사 훈련에 대한 관심 등이 점차 고조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선교현장의 변화와 요구들은 한국 교회로부터 파송되는 선교사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적절한 선교 훈련이 절실하다는

1996 겨울): 2.

4)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vol. 2 (서울: 기독교문사, 1993), 134.

5) 김의환,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43.

6) 한국선교 정보연구센터, 한국선교 핸드북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4), 18.

7)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전도부 편, 선교자료집, vol. 1 (1989), 48.

사실을 말하고 있다.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고 나갔기에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거나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많은 선교사들이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단체들이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양적으로 팽창된 한국 선교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도출되고 있다. 선교에 대한 열심과 성숙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교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이나 경험, 방법이나 전략 등은 서구 교회에 비해 빈약한 상태이다.<sup>8)</sup> 특히 선교의 전략과 정책의 부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바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눈앞에 두고 지난날의 선교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새롭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선교 동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이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을 통해 살펴보면 기독교의 역사에서 선교는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깊이 관여해 왔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와 선교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교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교회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열 수 있게 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을 바로 정립하기 위하여 선교관이 교회에, 또 교회론이 선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교와 교회와의 연관성만을 다루는 것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 주변에서만 맴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호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한국 교회는 21세기에 적합한 선교와 교회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것은 21세기를 주도해 나가는 한국 교회 중심의 선교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 적절하고 충분한 선교신학과 전략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새 시대를 향한 선교 전략을 개발해야 할 위치에 서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위임하시고 명령하신 교회의 본질과

8) 전호진, 한국 교회와 선교, vol. 2 (서울: 엠마오, 1985), 152.

목적에 입각하여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을 새로 정립하고 다변화되어 가는 새 시대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모든 총성된 자들, 곧 교회 교역자들, 선교 훈련생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로, 선교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둘째로, 현재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과의 회견과 설문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셋째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통한 평가와 선교에 대한 성서적, 문헌적 기초 위에 새 시대를 준비할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교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를 연구하여 선교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의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 1 장은 교회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문헌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 장에서 교회의 성경적 배경과 교회의 사명을 논의할 것이다.

제 2 장은 선교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및 문헌적 기초를 중심으로 선교의 성경적인 배경과 현대 선교신학의 흐름을 복음주의의 입장과 에큐메니칼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두 개념의 차이와 조화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제 3 장은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을 중심 하여 교회와 선교에 대한 언어적인 밀접성을 논의한 후 교회 역사를 종교 개혁 이전과 종교 개혁 당시,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나누어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제 4 장은 앞장에서 도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목회의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 목회계획을 위한 목회신학의 정립과 선교를 향한 계획 및 성경속에서의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 5 장은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성공 사례를 찾아볼 것이다.

제 6 장은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위한 선교의 전략 개발을 논의할 것이다. 먼저 21세기를 향한 교회의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교역자 및 모든 평신도의 선교 의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효과적인 교육 정책과 선교의 구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정 정책의 구조화, 조직의 구조화, 관계의 구조화 등을 통하여 목회자와 선교사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며, 선교단체와의 협력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 제 3 절 연구 용어의 정의

선교 전략: 선교 전략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주어진 선교의 대명령을 수행하려는 성서에 근거한 방법론이다. Herbert Kane은 전략이란 말을 성령의 지도 아래서 개발된 운용법, 성령의 지시와 통제에 복종하는 융통성 있는 운용법을 의미한다고 했다.<sup>9)</sup> Peter Wagner 교수는 선교 전략의 가능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전도에서 성령의 중요한 네 가지 차원, 즉 각성, 선포, 중생, 성화 중 중생의 단계만이 성령의 직접적 활동이고, 나머지 셋은 성령의 직접 역사가 아니라 적절히 준비된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10)</sup>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전략이란 단어는 성령이 역사 하는 선교를 위하여 잘 계획되고 준비된 성서에 근거한 방법론을 의미한다.

21세기: 21세기는 다가오는 새 천년의 시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2001년부터 21세기가 시작된다고 말해야 옳지만 세계적 분위기는 2000년을 21세기의 시작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21세기는 우리에게 지나간 세기와 비교할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로 다가올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분야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지나간 시간에 비해 훨씬 폭이 큰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가리켜서 21세기라 명한다.

9) Herbert Kane, 선교신학의 성경적 기초,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72.

10) Peter Wagner, 기독교 선교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8), 21-33.

#### 제 4 절 연구의 중요성

필자는 본 논문에서 첫째로,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을 다시 정립 하고자 한다. 특별히 교회는 선교의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입장에서 논문을 쓰고자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21세기를 향한 선교 패러다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선교는 형편에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을 때 주로 나타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행자임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때 자신의 본분을 알게 되고 겸손히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선교의 보편성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루터는 원리적으로 복음이 사도들에 의하여 이미 전파된 것으로 보고 이제 개교회를 통한 이웃 전도만 남은 과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라고 했다. 이 말씀에는 선교 사명이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 끝 날까지, 그리고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보편성이 암시되어 있다. 지도자뿐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선교국 교회뿐만 아니라 피선교국 교회까지도 선교의 사명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신자가 다 선교사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뿐 아니라 선교사와 모든 선교 훈련생,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선교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개발할 것이다.

셋째로, 성공적인 선교를 위하여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교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선교에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 전도활동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각자의 책임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성령은 세 가지 특수 사역을 한다. 첫째, 성령은 각 지체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고전 12).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 능력을 통해 그가 세운 목적을 수행하기를 요구하신다 (눅 24:49). 마지막으로, 성령은 더 많은 제자를 삼도록 은사와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을 파송하신다 (행 13:2). 시대마다 성령은 이 과정을 반복하여 세상에서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잘 계획된 전략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의 손에 있는 가능한 도구가 되도록 협력한다.<sup>11)</sup>

11) Wagner, 기독교 선교전략, 11.

## 제 1 장

### 교회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문헌적 기초

이 장에서는 교회의 의미와 성격을 알기 위하여 성경과 문헌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배경과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교회의 성경적 배경

##### 1. 구약에서의 교회

구약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 하나는 ‘카할’ (קהל)인데, 이 단어는 사어의 어근 ‘칼’ (קל)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다.<sup>12)</sup>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하여 모인 그 모임이 곧 ‘카할’ (קהל)이다. 구약성경에서는 대체로 ‘회중’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듣고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며, 거기에서 그들은 야웨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계약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다.<sup>13)</sup>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에는 삼자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다. 야웨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12) Paul S. Minear, “קהל,”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1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608.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소집하는데 쓰여졌으며 (창 49:6; 민 22:4; 겔 16:40), 때로는 모인 회중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신 9:10; 10:4).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 모인 회중을 의미하고 있다.

13) Ibid.



율법이다. 이 삼자는 율법은 매개체로 한 계약관계를 갖게 된 것이어서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표현한 말이 곧 언약민, 계약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다.<sup>14)</sup>

‘에다’ (עָדָה)는 처음에는 ‘카할’ (קָהַל)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모인 모임을 의미했다. 이 두 단어는 자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엄격히 말해서 서로 동의어는 아니었다. ‘에다’ (עָדָה)는 언어학적으로는 ‘카할’ (קָהַל)보다 더 오래된 말로서 ‘택하다’라는 뜻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에다’ (עָדָה)는 ‘야다’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에다’ (עָדָה)는 약속에 따라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에 적용될 때에는 소집이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이스라엘의 자녀들, 혹은 그들의 대표자들로 형성된 사회 그 자체를 지칭한다.<sup>15)</sup> 그러나 70인 역에서 이 말은 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그것은 이스라엘인이 예배를 드리기를 위하여 모이는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과정을 거쳐 ‘에다’ (עָדָה)는 ‘쉬나고게’ (συναγωγη)로 번역되었고, 신약성경에 있어서 이 말은 전적으로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카할’ (קָהַל)은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로 번역되어 이스라엘인의 모임 (공동체)을, ‘에다’ (עָדָה)의 ‘쉬나고게’ (συναγωγη)는 모이는 장소를 더 강하게 의미했다.<sup>16)</sup>

## 2. 신약에서의 교회

### 가. 명칭

신약성경의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이나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 유래했다. 하나는 ‘에크’ (ἐκ)와 ‘칼레오’ (καλέω)의 합성어인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인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그리스 시의회를 가리키는 말로서 고대에 군대를 집결시킬 때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다른 하나는 ‘수나고’ (συναγωγη)로서 ‘오다’ 또는 ‘함께 모이다’

14) Lewis, Jack P, “קָהַל,” 성서원어대전: 구약사전 (The Biblical Word Study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2 (서울: 한국성서 연구원 브니엘 출판사, 1988), 1253-1254.

15) Ibid., 2:1254

16) Lewis, Jack P, “עָדָה,” 성서원어대전: 구약사전, 1:670.

라는 뜻을 가진다. ‘수나고게’ (συναγωγή)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합 또는 그들이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을 지칭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는 두서너 곳에서 민회를 지칭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sup>17)</sup>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의 접두어 ‘에크’ (ἐκ)는 동사 ‘에크칼레오’ (ἐκκαλέω)에서 유래했으며, 종종 ‘백성들의 집단으로부터’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는 희랍어로서 히브리어 ‘카알’ (קָהָל)을 번역한 말이다. ‘카알’ (קָהָ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부터 어떤 임무를 분부 받기 위하여 모인 무리를 의미한 것이어서 비교적 단순한 의미를 가진 낱말이다.<sup>18)</sup>

#### 나. 다른 표현들

##### (1) 그리스도의 몸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다.<sup>19)</sup>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보편 교회에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엡 1:23; 골 1:18), 단일한 회중에게도 적용된다 (고전 12:27). 이 정의는 지교회와 보편 교회를 포함하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바, 특히 교회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과 교회라는 유기체는 그의 영광스러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sup>20)</sup>

##### (2)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전

고린도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다 (고전 3:16). 에베소서 2장 21,22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을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말한다. 여기서 이 명

17) Schmidt K. Ludwig, “ἐκκλησία,”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65), 501-503.

18) Minear,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1:608.

19) Peter T. O'Brien, “Church,” in Dictionary of Paul and It's Letters (Garden Grove: IVP, 1988), 127. 이것은 지역 회중들에게 보낸 사도들의 편지에서 발견된다. 비교적 초기편지인 고전 12:12-27; 롬 12:4-5에서 볼 수 있고 나중에 보내진 편지의 글들인 엡 1:23; 5:22-33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20) Ibid.

칭은 미래의 이상적인 교회 곧 보편 교회에 적용되었다.<sup>21)</sup>

### (3)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새 예루살렘, 혹은 하늘의 예루살렘

이 세 가지 형식이 모두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 (갈 4:26; 히 12:22; 계 21:2; 비교 계 21:9,10).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접촉하는 곳을 상징하는 장소와, 스랍과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대표한다.<sup>22)</sup>

신약성경은 교회를 구약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영적인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교통한다는 뜻에서이다. 또한 교회를 가리켜 새 이스라엘 (갈 6:16; 롬 9:6)이라 하는데 이는 옛 이스라엘이 유대인으로 구성되는 데 비하여 새 공동체, 곧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서이다.<sup>23)</sup> 이 표현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곳이다. 이 처소는 부분적으로는 땅 위에 임하지만 천상의 영역에 속해 있다.

### (4) 진리의 기둥과 터

이 명칭이 적용된 곳은 한 곳이다 (딤후 3:15). 이 명칭은 일반적인 의미의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교회의 각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sup>24)</sup> 이 뜻은 곧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진리의 수호자, 보호자, 옹호자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터에 진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이다.<sup>25)</sup>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요새이며, 진리를 변증하는 자임을 보여준다.

### (5) 지역 교회

바울은 교회를 지역 교회의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21) O'Brien, *Dictionary of Paul and It's Letters*, 127.

22) Louis Berkhof, *조직신학*, vol. 7,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79), 17.

23) 황승룡, *조직신학*, vol. 2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401-404.

24) Berkhop, *조직신학*, 7:17.

25) 황승룡, *조직신학*, 2:401-404.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라고 문안했는데 이는 사건으로서 교회의 개념과 지역 교회의 개념을 연결시키는 형식으로 사용되었다.<sup>26)</sup> 그는 그의 서신 중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등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교회를 지칭하기도 했다.<sup>27)</sup>

#### (6) 하나님의 이스라엘

바울의 구원 역사적 교회 이해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가 시작할 새 시대에 동참하게 될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모으신 것이 바로 교회임을 가르친다 (갈 6:16).<sup>28)</sup>

#### (7) 성도, 택하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은 여러 서신들의 서두에서와 마지막 인사말에서 ‘성도들’로서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들에서는 ‘거룩한 자들’로 혹은 ‘택하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에 의해 교회의 명칭으로서 ‘택하신 자들’과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롬 1:7; 살전 1:4; 살후 2:13; 골 3:12). 교회란 이름과 같이 이런 호칭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훌륭히 미래의 교회, 즉 말씀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의 연속과 구현으로 명시한다.<sup>29)</sup>

이밖에도 교회에 대한 다른 칭호들이 신약성경에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sup>30)</sup>

26) Joseph H. Thayer, “ἐκκλησία,” 성서원어대전: 신약사전 (The Biblical Word Study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7 (서울: 한국성서 연구원 브니엘 출판사, 1988), 301-303.

27) 갈 1:2; 고전 7:17; 11:16; 14:34; 고후 8:19,23,24; 11:8,28; 12:13; 롬 16:4,16. 그리고 바울은 모든 교회 (고전 4:17), 하나님의 교회 (고전 1:32), 아시아의 교회들 (고전 16:19),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고후 8:1),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갈 1:22)등으로 사용했다. O'Brien, Dictionary of Paul and It's Letters, 124.

28)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고전 10:1-13). 호세아의 글에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리라”는 말씀, 골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 예언되었음을 증거 한다 (롬 9:25-26; 호 1:23; 1:10).

29) Herman Ridderbos, An Outline of His Theology, 박영희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402-405.

## 다. 신약시대

신약시대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약시대의 교회와 하나였다. 신구약 교회의 본질적 성질에 관한 한, 두 교회는 모두 참된 신자들로 곧 참된 신자들만으로 구성되었다. 외적인 기관으로서는 둘 다 선인과 악인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교회가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조직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국가적인 한계가 철폐되었다. 그때까지 국가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보편적인 교회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sup>31)</sup>

세계적인 전파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지난날의 의식적인 예배는 신약의 보다 큰 특권과 조화되는 보다 영적인 예배로 대체되었다.<sup>32)</sup>

이상과 같은 언급을 종합해 볼 때, 교회는 신약시대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미 존재하였으며, 제도와 경영상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대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 제 2 절 교회의 사명

### 1. 예배

교회의 사명의 중심은 바로 예배이다. 예배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의하여 양심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의하여 생각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곧 예배 중심의 삶인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제도이고 그리스도는 그 머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30) Minear,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1:609-616.

31) Berkhof, 조직신학, 2:828.

32) Ibid.

이 예배는 특정한 것이다. 이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라는 말씀과는 구별된다. 신자의 모든 사업과 위탁하신 일 속에서 신자를 특징 짓는 일반적인 헌신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공동체적이며, 그러므로 개인이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특정한 예배의 행위들과 구별된다. 그리고 그것은 명령된 예배, 영적 희생을 드리는 것, 성령에 의해 표현되고 지도되는 것이다. 경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드려야 할 첫 번째 응답이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벧전 2:4, 5)라는 말씀속에서 경배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경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 100:4)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측면,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다. 전자는 특히 말씀의 봉독과 설교에 있고, 후자는 받아들임, 감사, 기도에 있다.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말씀의 봉독과 설교는, 제자들이 거룩한 산에서 그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성부의 증거를 들었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어진 고귀한 특권의 인식이 베드로의 말에 반영되어 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벧후 1:18).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벧후 1:21)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음성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응답은 경배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때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심원한 인식에

있는 경위로 특징지어질 것이다.<sup>33)</sup>

## 2. 전도와 선교

교회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존재하고, 그의 은혜에 의해 보전되며, 성령에 의해 지도되는 제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존재하듯이, 그것은 그의 명령에 부합하여 행해야 한다.<sup>34)</sup> 하나님의 계획에 늘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 1:28)는 명령이 포함되는 것과 같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은 교회의 특성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인 절박한 지상 명령은 이 생명의 원칙에 포함된다. 초대 교회를 그렇게 역동적인 교회로 만든 것은 예수님과 및 그의 부활에 관한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 곧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 하는 일이었다.

오늘날 교회의 선교에 관한 많은 말들이 행해지고 있고, 선교의 견지에서 교회의 기능이 규정될 정도로 선교가 강조되고 있다. 모든 민족들에 대한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것은 성경, 특히 신약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에서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은 회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조성된 백성이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베드로의 정의에 그대로 배어 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10).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위탁 (마 28:19; 눅 24:46, 47)에 언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도의 행위자 또는 도구라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 세상에서의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찌면 최우선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성경의 엄숙한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획에서 각 개인의 회심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심판은 사실이라는 것,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된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실제로 복음을 전할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으

33) John Murray, 조직신학, vol. 1, 박문제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242.

34) Ibid.

며 또 확장된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에 실패한 교회는 성경적으로 신실치 못한 교회이며 전략적으로 근시안적 교회이다.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복음 전도적 사명이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큰 의미에서 동의어이다. 하지만 선교신학의 여러 관점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선교 신학적 관점에 따라 구분시키는 것보다 그 대상에 따라 구분시키려고 한다. 선교는 전도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같은 뜻을 품고 있지만 그 대상에 따라 전도와 선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sup>35)</sup> 전도는 국내에서의 전도를 의미하고 선교는 해외에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한다.

### 3. 교육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교육이다. 교육이란 라틴어로 'educare'인데, 이는 “밖으로 끌어내리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교육받을 인간이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잘 신장 발달시켜 훌륭한 인간상으로 길러 낸다”<sup>36)</sup>는 뜻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인간을 다루는 일로써 인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된다.

교회에서 회중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작업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며 이것은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초대교회는 매일 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현재의 우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에 훨씬 더 근접해 있었다. 사도들에 의한 교육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항상 잘 가르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다.

35)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 1988), 14에서 저자는 복음전파가 필요한 대상들을 P (People)0, P5, P1, P2, P2.5, P3 등으로 세분하고, 전도 유형은 동일 문화권에서 E0, E5, E1 등으로, 타문화권 복음화는 E2, E2.5, E3 등으로 (E=Evangelism)분류하며, 문화적 거리를 나타내는 M (Mission)-M1, M2, M3, M4가 있으며, 복음의 수용성을 규정해 보려고 D1, D2, D3 등이 있다고 한다 (Disciple).

36) Cornelius Jarsma,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교육철학,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출판부, 1983), 167.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에서 배운 것을 알며” (딤후 3:14)라는 말씀처럼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경 교육이란 그와 같은 인간의 소질과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성경 교육의 종착지는 구약성경의 시각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창 1:27)이요, 신약성경의 시각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엡 4:13)을 의미한다. L. Kant의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이 된다”<sup>37)</sup>는 말과 같이 한 인간의 성장은 성경말씀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할 때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인 교육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며 인간의 구속을 위한 활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4. 친교

교회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집회, 신자들의 회중,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교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그의 아들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케 되고, 성령에 의해 중생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주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데 하나 된 남자들과 여자들로 구성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러한 친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이러한 묘사에 상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한다.<sup>38)</sup>

친교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다. 친교는 ‘함께 하는 공동 생활’로 규정지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친교는 교제로 볼 수 있다. 교제는 함께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교제, 혹은 친교가 있어야 한다. 죄인 된 인간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은 교제로 나타난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간의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어야 한다.

교제는 구원과 불가피하고 본래적인 일부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37) 김재술, 목회학 (서울: 세종문화사, 1979), 117.

38) Murray, 조직신학, 1:244.

실체와 깊이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들이 맺는 관계의 실체와 깊이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후자 없이 전자를 가질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우리가 열거하는 모든 신조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에서보다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더욱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sup>39)</sup> 일정한 목적에 의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귀중한 사명은 교제, 혹은 친교이며 이것은 귀중한 교회의 사명이다.

### 5. 봉사

교회에 있어서 또 다른 없어서는 안될 사명은 곧 봉사이다. 봉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작업이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수행해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마음으로 나와야 하며, 우리의 섬김은 그분에게 봉헌되는 희생 제물로 드러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나 효과적인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39) Jim Graham, 잡자는 거인을 깨운다, 윤준서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2), 96-99.

## 제 2 장

### 선교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문헌적 기초

이 장에서는 선교에 대한 의미의 성경적 신학적 및 문헌적 기초와 선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선교의 성경적 배경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선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선교적 문제들은 그 활로를 언제나 성경에서 이탈하지 않고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선교적 문서이기 때문에 성경의 접근을 통하여야 만이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길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 1. 구약에서의 선교

구약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창조주로서의 통치,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임으로써 타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sup>40)</sup> 이것은 열방의 장래가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방 열국들도 장차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제가 구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펼쳐져 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전 세계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구약에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열국들에게 가는 적극적인 선교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한다 (사 19:23-25; 2:2-3; 슥 8:13-23).

40)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10-13.

이러한 사상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명백하게 보여진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 12:3).<sup>41)</sup>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그들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열국들이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Harold H. Rowley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의 특권과 영예는 정말로 위대하지만 그것은 섬김의 특권이며 영예다.” 라고 했다.<sup>42)</sup>

이스라엘 민족은 궁극적으로 열국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열국들의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 받음 목적은 열국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구약에 있어서 선교를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구약에 있어서의 선교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성에 연유되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 절대적 주권으로 이해되어지며 우주적이면서도 계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뒤 그의 창조물 전체를 가로질러 그의 자비하신 보존적인 섭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며 그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궁극적 승리와 지배를 선포하셨는데 특히 모든 민족들에게 그를 선포하셨던 것이다.

Johnnes Blauw 역시 구약의 선교 이해의 열쇠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다고 말하였다.<sup>43)</sup> 이러한 선교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 세 가지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첫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이방 개종자였다는 사실과, 둘째, 아브라함의 계약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와의 계약이며, 셋째, 아브라함 가족의 할례는 계약의 표시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짐을 뜻하는 표하는

41) 다른 유사 구절들로서 창 18:18; 26:4 그리고 28:14 등을 참고하라.

42) Harold H. Rowley, *The Rediscovery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6), 195.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는 책으로는 Johnnes Bla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74), 22-23을 보라.

43) 임광제, “현대 선교전략을 위한 성경적 선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대원, 1984), 5-6에서 재인용.

점이다.

Harold H. Rowley는 구약성경의 선교적 메시지라는 책을 통하여 구약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선교적 본문이라고 할 만한 것을 모음으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모세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최초의 선교사였었다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도록, 또 이스라엘에서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 자신을 축복하게끔 하려는 목적에서 보내신 것이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선교의 내용은 오경을 통하여 볼 때 인류 구속을 위한 언약의 말씀으로 일관되어 진다. 모세 오경이 지금까지 율법서로만 이해되어져 왔으나 그 성격에 있어서 우주적, 선교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다.

창조의 사상은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여 반항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 이 타락의 사건은 선교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들어오게 되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구원인 것이다.”<sup>44)</sup> 먼저는 시작의 언약 (창 3:15)이 있고, 노아와 함께 한 보존의 언약 (창 9:1-7),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창12:3), 그리고 모세를 통한 율법의 언약 (출 19:6) 등이 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는 사무엘로 말씀케 한 왕국의 언약 (삼하 7:12-17) 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완성의 언약 (렘 31:31)이 그것이다.

아울러 George W. Peters는 선지자 이사야의 선교를 중심해서 세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sup>45)</sup> 첫째는, 이스라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선교의 근원자가 되시며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며 그 노력의 결과와 목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선교는 하나님 중심의 선교라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위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겸손히 선교의 일

44) Oswald T. Allis, God Speaks by Moses (Nutely: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58), 12. 허달수, “한국 교회 해외선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7), 17에서 재인용.

45) G.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Chicago: Moody Press, 1972), 96.

에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선교는 만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세상의 열국을 위해서 존재하며, 세계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존재 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해 준다. 예언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서 이방이 구원받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을 예고한다.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졌다. 이러한 때에 예언자들이 나타나 거듭 회개할 것을 호소했다. 선지자들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교사상과 풍습의 침투를 목격하고 열정적인 반기를 들었다.

예언서에 나타난 선교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게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다 (사 2:1-4; 민 4:1-4; 렘 3:17).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세계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전 세계적이다 (암 1:3-2:3). 그리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생명 있는 세력이 됨으로써 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이끌려 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원 약속 성취의 첫째 조건은 이스라엘 자체의 진정한 회개이다. 또한 이러한 회개는 장차 올 메시아와 연관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이 거듭 메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메시아를 임마누엘, 평화의 왕, 나뭇가지, 인자, 여호와의 종으로 지칭하고 있다.

셋째, 메시아와 연관하여 이방 열국들이 심판 받을 것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열국들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다. 구약 예언에 있어서 이러한 열방 구원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 편에서의 선교활동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열국이 이스라엘 속으로 물 흐르듯 자발적으로 흘러들어 올 것이 강조되어 있다. 신약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밖으로 나아가는 점에서 원심점이라면 구약은 밖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점에서 구심점이다. Bendgt Sundkler에 의하면 구심점 선교 사상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선교의 중심 사상이라고 한다.<sup>46)</sup>

46) 전호진, 선교학, 45.

넷째, 열국의 자발적인 행위가 하나의 종말론적이 사건임을 명시한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 종말의 때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골 2:28-32),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신다 (합 2:14). 선교의 사건이 종말적이라는 예언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전도 활동에서 성취되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이르게 된 구원은 포괄적인 구원이 될 것이다 (사 25:6-8). 요컨대 구약의 예언자들은 열국들이 마지막 날에 메시아에 의하여 일단 패전을 겪은 다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내다보았다. 이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갱신과 은혜로운 칭의 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원이 될 것이다. 이 위대한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현저하게 수동적이다.<sup>47)</sup> 그러나 그 깊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중심한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이며 모든 이름 위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는 요나가 받은 명령이 선교활동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의 구역 학자들, 구약 학자인 Harold H. Rowley, 남아 연방의 David J. Bosch, C. F. Keil은 요나서의 역사성을 부정하면서도 세계주의 (Universalism)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요나서라고 하면서 선교 활동은 없으나 선교 사상은 있다고 동의한다.<sup>48)</sup> 또한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오히려 이방 선교와는 정반대 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요나서는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 백성에 관해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취급하는 데 신약의 선교적 명령에 대한 준비적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요나서는 하나님 자신이 택한 종으로부터 강력한 반항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이방 나라 특히 세계 최고의 도시이며 부패한 땅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 이방인의 심판과 구원을 의도하시는 선교적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현존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모습은 선지자를 느웨로 파송하여 입으로 직접 증거 하게 한 점에서 신약시대 이전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선교 활동이다.<sup>49)</sup>

47) 전호진, 선교학, 45.

48) Ibid., 49.

49) Ibid.

이러므로 구약의 선교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 언약은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선교적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선교적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교적인 분이 아니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없었을 것이다.<sup>50)</sup>

## 2. 신약에서의 선교

신약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알리는 선교의 책이다. 신약에서의 선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중심 했던 소극적 방법<sup>51)</sup>과는 달리 그 범위를 세계로 확대시켜 모든 나라에 가서 선교하도록 위탁하시고 분부하셨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여러 말씀으로 증거를 삼고 있지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벗어난 선교는 생각할 수 없다. 모든 민족에 대한 복음 선교 그 자체가 종말의 징조가 되며,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속 계획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마 24:14).

### 가. 복음서의 선교

복음서 기자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만민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 성취하는 것이다.

신약에서의 선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인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선교에서 본 바와 같이 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 이 구원 사역의 초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누구인가는 마가복음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 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 메

50) 박광철, "선교의 성경적 근거," 미션월드, 1991년 10-11월호, 47.

51) 요나서를 통하여 세계주의적 시각도 엿볼 수 있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 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시중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막 1:1-15).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선포하는 자, 하나님 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소개되는 것이다.<sup>52)</sup> 여기에서 삼위 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이 나타나며,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이었다. 요단강에서 그가 받은 세례는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요 이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이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그의 선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복음서에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대명령은 예수가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시편 예언의 성취로서 사망을 극복하고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준 것이다. 그의 공생애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그 자체가 전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였다.

복음서의 선교에서 논쟁은 예수의 이방 선교이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지방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마리아,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행이다. 이방인과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자기 딸을 치료해 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이 잃은 양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 (마 15:24)고 대답했다. 또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52) Lesslie Newbigin, 선교신학개요, 최성일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32.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요 4:22)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떼에게로 가라” (마 10:5)고 명하셨다. 이것은 다소 배타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뜻한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김세운 박사는 마태의 특수주의<sup>53)</sup>와 보편주의<sup>54)</sup>라는 신학적 긴장으로 말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 (마 10장; 15장)를 말하면서도 그러나 마태복음 8장 11절과 21장 33-43절 등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의 구원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임을 말함이며 이미 동방박사의 경배로 이점이 무시되었음을 서문에서 미리 밝히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로 선교를 명령하셨다.<sup>55)</sup>

53) 김세운, “목회자를 위한 성경신학” (강의교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7 여름), 136-138. 특수주의란 롬 15:8-15에서 그리스도가 할례당의 종노릇하였다, 이스라엘을 섬기셨다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역사적 사실을 말함이다. 이것은 조상들에게 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가 그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 선교를 먼저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성취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일관된 구원의 경륜의 방법은 하나를 선택하여 (특수주의, Particularism) 만민을 축복하시는 방법 (Universalism)이다. 선택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이방인들이 이미 예수의 생애 동안에 예수에게로 와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

54) Ibid.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예수께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로 선교를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는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예수의 시점에서는 이방인에게도 약속되었지만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후에 시온의 빛이 비칠 때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이방인이 유대에 대한 순례 때문에 (The Nation's Eschatological Pilgrimage to Zion)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듯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이 보화를 들고 시온에 와서 하나님에게 경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교회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교회가 옛 이스라엘을 대치함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킴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왕 노릇 해주시며 이들을 통해 이방 구원하신다.

누가는 모든 민족에게의 선교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이 구원사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사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바울도 예루살렘에 종속되어 선교 여행 후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왔다. 사도행전 뒷부분은 로마를 향한 끊임없는 바울의 여행 기록으로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이다.<sup>55)</sup>

이점에 대하여 신성종은 예수의 선교를 두시기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3년간의 공생애를 중심한 지상선교 (earthly mission)와 부활 후의 천상선교 (heavenly mission) 중 전자의 경우로 예수는 때로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사마리아에도 가셨으나 선교의 중심지는 여전히 이스라엘로서 이방 선교의 성격은 구약에서와 같이 구심력적 의미를 갖는 반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구심력적 이방선교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여 원심력적 의미의 선교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고 말한다.<sup>57)</sup>

사실 이방선교 역시 처음부터 예수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점진적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뿐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과 맞물려진 섭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예상이라 표현할 수 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구약의 성취로서 이방인인 아랍 유대인을 먹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이끄심으로 그의 완전한 생애를 통해 구약을 성취하셨다. 또한 그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아웃리치 (outreach)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결국 예수의 선교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서 설명되어지는데, 이는 구약성경과 예수께서

55) 이 부분을 19세기 말 Adolf Harnack은 예수의 설교는 세계주의 (universalism)이지만 그의 선교는 유대에 국한되는 특수주의로서의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명령은 예수의 것이 아니라 후대인들이 삽입한 것이라고 함으로 예수의 이방 선교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는 마 28:19의 선교의 대사명에 대해 “예수는 이러한 명령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 본문은 후대 시대의 역사적 발전으로 이 말씀이 부활한 예수의 말씀으로 적당히 첨가되었다. 바울은 이러한 일반적 명령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점에 대해 전호진은 이것은 19세기에 등장한 성경 비평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논쟁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선교학, 60-62).

56) 전호진, 선교학, 142-144.

57) 신성종, 신약신학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150.

사역 중에 가르치신 바를 압축하여 당부하신 주님의 최후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 나. 선교의 대사명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선교의 대명령이다. 사복음서는 모든 선교의 대명령으로 끝나며, 사도행전은 대명령 혹은 대사명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선교의 대명령의 내용은 본문의 강조 점에 따라 다르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선교의 대 위임령은 예수의 능력과 권위에 강력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구원의 능력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만민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는 말씀의 복음은 왕이 위임하신 영광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이다.<sup>58)</sup>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격과 사역 안에 도래한 왕국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새 삶으로 초청하는 선교적 문서로서 대위임령은 16장 15-16절에 나타나 있다. 이 선교령과 세례를 주라는 분부는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온 천하를, 즉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메시아에 대한 가부간의 결단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아니면 정죄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문제로 나타나 있다.

누가복음 또한 누가 자신이 선교령을 하기 위한 기록이다. 누가는 선교령을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저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과 선교령을 연결시켜 기술한다. 이 선교령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었다. 즉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을 세계 선교의 출발지로 묘사한다. 누가는 선교령을 그리스도 부활에만 연결시키지 않고 성경 강림이 약속과도 연결시켰다.

요한복음은 또한 선교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만 관련시키지 않고 하나님 자신과 관련시켜 서술한다. 즉 보냄을 받은 자 예수의 뒤에 서 계신 분

58) J. H. Bavink, 선교학개론,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26-27.

은 하나님 자신이다 (요 13:20).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또한 그의 제자들을 내보내시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 (요 10:16; 12:32; 17:1-26).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 요한복음 20장 21-22절에서는 선교를 수행하라는 실재적 명령을 내리신다. 여기서도 선교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5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서의 선교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의 교훈에 있어서 선교 사상이란 메시아적 구원 기대로부터 점진적으로 유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 구원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영광, 그리고 이방인의 자발적인 접근과 세계 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관계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셋째, 메시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원칙적으로 도달되었다는 점이다.<sup>60)</sup>

넷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권면 정도가 아니라 명령에 속하는 위임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 명령과 위임은 이 천년 선교 역사에서 선교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선교의 대 현장이다.<sup>61)</sup>

#### 다. 사도행전의 선교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위임된 선교활동과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밝혀 놓고 있다. 사도행전은 성경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선교 문서이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잘 알려주는 선교의 책으로 각 분야에 대한 자료들이 풍부하다. 즉 선교적 접근과 선교 현장에서의 전파와 신생 교회들의 조직 등 여러 분야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특징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선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요 20:21). 이때의 선교역사에서 예수의 선교활동의 연속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다음의 단계들을 거

59) Johannes Verkuyl, 선교의 성경적 기초,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203.

60) Bavink, 선교학개론, 27.

61) 전호진, 선교학, 33-35.

쳐서 수행되었다.

첫째, 복음의 전파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인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복음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셨으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주제였으며, 바로 여기에 설교의 중요성이 자리잡고 있었다.<sup>62)</sup>

둘째, 회개와 믿음의 요구이다. 사도들은 복음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에 대해 자유방임 식으로 내버려두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바르게 깨달고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였다.

셋째, 사죄의 약속이다. 이것은 예수를 죽인 일에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유대 지도자들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사도들이 선포한 죄의 용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심판의 경고이다.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패역의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 인간은 구원과 패역,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다.

다섯째, 세례이다. 예수님이 선교 명령에도 세계가 제사 삼는 방법 중의 하나로 언급되어 있다.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세례를 언급한 사람은 베드로이다. 그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그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행 2:37-38)고 대답했다.

여섯째, 교회의 설립이다. 사도들은 예배, 교육, 친교 그리고 봉사의 기관으로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사도행전의 선교에 대해 J. H. Bavink는 선교의 근거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sup>63)</sup> 첫째, 사도행전에서 선교역사는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역사로 묘사되어 있다. 사도행전이란 명칭보다는 오히려 ‘사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통신’이라 해야 마땅하다고 그는 말한다.

62) Kane, 선교신학의 성경적 기초, 72.

63) Bavink, 선교학개론, 29-32.

둘째, 사도행전이 선교활동은 종말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일들의 사건 속에서 속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교는 하나의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셋째, 그리스도 자신이 선교의 주인이지 교회가 선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넷째, 사도행전은 평신도 전파자들이 활동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다섯째,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새로 형성된 교회 생활에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그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 외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적이시다는 것이다.

전호진은 그의 책 선교학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성령과 선교이다.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하며, 전도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시작된다. 오순절은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했다.

둘째, 명령과 약속의 선교이다. 초대 교회가 이방 선교를 할 때 이것도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며, 또한 명령으로 시작한다.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성령도 주님이 보내셨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또한 이방 선교는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말한다. 사도들은 이방선교를 유대인에게 변호할 때 이방 선교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뜻임을 강조한다.

셋째, 평신도들의 선교이다. 초대 교회의 설립과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들은 평신도들이다. 초대교회는 전문적인 직업 선교사나 전도자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흩어진 평신도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전도를 통하여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체험하였다.<sup>64)</sup>

넷째, 선교 전략이 있는 선교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선교 활동은 성령에 의한 선교이지만 분명한 전략이 나타난다.

① 그룹단위의 전도이다. 구원은 개인 단위이지만 베드로와 바울 등 전도자들

64) Neill은 평신도 전도자에 대해 초대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도자였으며, 그리고 이러한 무명의 선교사보다 더 고생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 Stephen Neill, Concise Dictiona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New York: Abingdon Press, 1971), 24. 전호진, 선교학, 72에서 재인용.

이 그룹 단위로 회심을 가져 온 것은 분명하다.

② 사도행전의 선교는 동역 원리 (Team work)이다.

③ 사도행전의 선교는 선교와 문화를 잘 해결하였다.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갈 때 할례 등 유대의 문화와 의식을 이방인에게 부과하지 않고 다만 이방인이 부도덕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④ 사도행전의 선교는 대도시 등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였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에서 잘 나타난다.<sup>65)</sup>

#### 라. 바울의 선교

사도행전과 더불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서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 선교에 대한 종합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서신은 선교 현지에서 기록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적인 소명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바울의 선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그의 소명의식을 바로 이해하는데 있다. 바울은 각 서신서의 서두에서 자신의 신분을 여러 번 밝혔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천명한다 (롬 1:5; 갈 1:15; 고전 1:1).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 된 것 같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임을 확신하였다 (롬 11:13; 15:16). 그의 소명 의식은 먼저 다메섹의 회심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 바울의 회심은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남으로서 이루어졌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동류의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sup>66)</sup> 그러나 다메섹 경험은 단지 바울의 사적인 회심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나오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라는 구절에서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의 현현이 바울에게는 그의 복음과 이방 선교를 위한 그의 사도직 임명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sup>67)</sup>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65) 전호진, 선교학, 69-75.

66)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93-94.

67) Ibid., 96-98.



를 언급함으로써 그의 복음의 신적 기원을 증명하고자하는 단지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받은 복음이었다는 취지에서만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동시에 그의 소명을 의미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른 다.<sup>68)</sup> 바울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다.<sup>69)</sup> 그래서 그는 사도의 권위를 교회나 외부의 어떤 기구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임명하였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둘째, 복음선포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을 받았다 (갈 1:12, 16).<sup>70)</sup> 그는 복음의 신적 기원을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68) 김세운, 바울복음의 기원, 100-101.

69) Ibid. 참조: 살전 2:4; 갈 2:7; 롬 1:1, 5; 15:15; 고전 1:17.

70)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306-309. 김세운 교수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울의 증언은 그가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사람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갈 1:11),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아들을 복음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내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계시해 주셨을 때" 받았기 때문이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christophany (그리스도의 나타남)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소명 때 허락되었던, 또 몇 목사가들에게 허락되었던 하늘의 궁전에 대한 환상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예:사 6; 겔 1). 구약과 묵시문학에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목사가들이 하늘의 궁전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 특히 종말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계시의 경험이다. 그래서 환상을 본 자들은 하늘의 궁전에서 왕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받은 경험을 가리켜 '계시'라는 말을 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계획이 앞으로 역사가운데, 특히 종말에 실제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선지자들에게 미리 그것에 대해 엿보도록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경고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그것을 지금 벌써 선포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지자들과 목사가들은 '비밀'이라고 한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하늘의 궁전의 왕좌에 앉아 나타나셨으므로 바울은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목사가들의 소명 때 허락된 환상들 식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그도 자기의 다메섹 경험과 관련하여 '계시'와 '비밀'이라는 말들을 쓴다 (갈 1:12, 16; 고전 2:6-10; 엡 3:1-13; 골 1:25-29등).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죽음과 부활에서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의 계시를 받았다고 증거 한다. 이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복음의 내용인 것이다 (갈 1:15; 행 9:20).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지금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일부로서 바울에게 계시되었다고 말한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결정하여 지금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체현으로 인식하였으며 그의 아들을 자기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려는 데 있다고 말한다.<sup>71)</sup>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선포자라고 했다 (딤후 1:11).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만을 선포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롬 1:15),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에 복음을 적용시키는 성령의 능력임을 믿는 사도였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초기부터 이방인의 선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바울은 회심 직후 수년간을 회당에서 복음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시기는 비록 회당에서 그들에게 부분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바울의 선교 후기보다는 초기라고 볼 수 있다.<sup>72)</sup> 그러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특권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한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롬 1:16; 9:1; 11:13).<sup>73)</sup>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약속된 구원을 놓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확신하고 있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해답으로 로마서 9-11장의 말씀에서 유명한 삼각 관계 신학 (The Triangle Theology)<sup>74)</sup>을 전개하여 하나님의 보편성에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

71)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131-135.

72) Ibid., 104-106.

73) Ibid.

74) 삼각관계신학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이방인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하여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134-135.

바울은 롬 11장에서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롬 11:11, 12, 15; 28-30).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실제적인 선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하여 강퍹하게 된 배후에는 이방인을 먼저 구원으로 이끌고 그 후 이방 선교의 결과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직

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뒤로 밀려난 존재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에 대하여 외인도 아니다. 성도와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 자와 종, 남녀 구별 없이 일치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을 볼 때에 둘 사이를 평등하게 보았다고 할 수 있다. Herbert Kane은 “오늘날의 선교사가 복음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이교주의, 인도주의, 공산주의, 혼합주의, 보편주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바울은 1세기에 궁지에 처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sup>75)</sup>고 했다. 즉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인과 헬라인과 유대인 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 셋째, 바울의 비전의 신학적 기반

김세운 교수는 바울의 비전의 신학적 기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76)</sup>

① 바울의 비전의 신학적 기반은 나사렛 예수가 높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라는 믿음이다.

② 예수가 ‘높임 받은 주’ 라는 믿음은 곧 전세계적 선교를 요구한다.

③ 예수가 주라는 믿음은 바울의 선교사업이 결국 성공하리라는 것을 확신시킨다.

④ 복음은 “믿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러나 그리스인에게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힘”이라는 깨달음은 바울의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정당화하였다.

⑤ 세계 선교에 대한 바울이 엄청난 비전과 끈질긴 도전의 또 하나의 기반은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 (롬 1:5; 11:13; 15:15; 갈 1:16; 2:7-9).<sup>77)</sup>

⑥ 바울의 위대한 비전과 대담한 도전의 또 하나의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안에서의 자기의 사도직의 위치에 대한 그의 이해였다.

---

시하면서 롬11:25에서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라고 엄중히 명령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함에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75) Kane, 선교신학의 성경적 기초, 159-160.

76) 김세운, 예수와 바울, 391-397.

77) 김세운, 바울복음의 기원, 97-110을 참고하라.

### 넷째, 바울의 선교전략

초대 기독교의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은 바울이다. 첫 세기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것처럼 정확한 모습을 남김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바울의 대표적인 교리 서신으로 간주되는 로마서조차도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선교적 관심의 결과로 나왔다 (롬 1:7-15; 15:14-33).<sup>78)</sup>

바울의 선교 원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데 있다. 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의 방향을 돌렸다 (행 17-18). 바울은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지혜의 아첨다움 것으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고전 2:1-5). George W. Peters 는 선교의 원동력으로 성령, 복음, 기도의 3가지를 설명했다.<sup>79)</sup> 결국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 원동력은 성령이다. 그러므로 선교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바울은 그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의 전도 방법을 사용했다. 이것은 그의 세 번에 걸친 설교 (행 13:16-41; 14:15-17; 17:16-31)와 그의 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 이렇게 한 것은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그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선교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롬 15:20).

바울의 선교전략을 Hendrikse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80)</sup>

78) 로마제국의 동반부에서의 선교사역을 완수한 후 (롬 15:19), 그는 서방에서의 사신이 선교의 한 새로운 국면에 착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스페인으로 여행하고자 한다. 이 여행에서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그들과의 친분을 돈독히 하며 서방에서의 자신의 선교를 위한 그들의 지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참고: 김세운, 예수와 바울, 399-410.

79) Wagner, 기독교의 선교전략, 164.

80) 박형룡, 사도행전 주해 (서울: 성광문화사, 1984), 162-163.에서 재인용. 또한 Kane, 세계 선교역사, 106-107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에 의해 기독교가 확장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다. 누가 특 히 이에 초점을 맞추어 사도행전을 기술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선교활동에 관해 전혀 몰랐기 때문이거나 바울과 특별한 교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바울의 선교활동을 통하여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주요 도시들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발전은 매우 경이적인 것이었다. 더욱이 바

①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비시디아 안디옥,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로마 등과 같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했다. 그리고 바울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도시만을 선택하여 복음을 전파했다 (롬 15:20).

② 바울은 회당을 복음 증거의 장소를 사용했다. 회당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③ 바울은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구약 예언의 핵심이요 중심인물임을 증거 했다 (행 17:1-4, 22, 23).

④ 바울은 항상 청중들의 필요에 따라 메시지를 전했다. 따라서 청중들의 즉각적인 관심을 모았고 그의 설교는 효과적이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전 9:22)라고 했다.

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격려하고 굳게 했다. 그리고 그의 부재 기간 중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장로를 임명하여 세우고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잘 보살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이 장로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계속될 것을 기대했다.

⑥ 바울은 모든 교회들이 잘 연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 교회간에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안에서 하나가 됨을 강조했다 (엡 4:4-6).

Herbert Kane은 바울의 선교를 다음 9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① 그는 선교 본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였다.

② 그는 4개 지역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인구가 많고 번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했다. 아시아에 속한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속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전도 집중지역으로 삼아 전도했다.

---

울의 교훈들을 망라하고 있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체계가 완벽하게 제시됨으로써 바울에 의해 기독교는 그 영역의 확대뿐 아니라 확충도 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방 세계에서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사실 바울 서신에는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보다,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는 암시를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소아시아 선교와 그리스 선교를 착수했다. 그는 키프로스 섬, 소아시아의 남부, 안디옥, 비시디아, 이고니온, 리스트라 그리고 데르베에 교회를 설립했고, 에베소를 선교 확산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북쪽을 향해 여행하고 드로아에서부터 유럽 쪽을 향하였다. 빌립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교회가 생겨났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 이 교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③ 대도시 중심의 전도활동이다. 바울이 로마제국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은 이 도시들이 복음을 주변지역에 전파하는데 전략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유대인 회당을 이용한 전도활동이다.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도할 수 있었다.

⑤ 공감대를 가진 회중들에게 주력하였다.

⑥ 신앙고백에 따라 즉각 세례를 베풀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즉각 세례를 베풀었다.

⑦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체류하였다. 그의 목표는 세계를 신속히 복음화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⑧ 동역자들을 활용한 전도활동이다. 그의 동역자의 이름이 사도행전 20장4절과 로마서 16장에 소개되고 있다.

⑨ 융통성 있는 전도활동이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복음 전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sup>81)</sup>

#### 라. 일반서신서의 선교

혹자는 요한 서신과 바울의 후기 작품들이 교회론 중심으로 선교와는 대립된다고 말한다.<sup>82)</sup> 그러나 요한 서신에서 전도나 선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기존 교회가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성장하도록 권면하며, 이단을 경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것을 볼 때, 선교로 세워진 교회가 진리 변호와 영적, 교리적 성장을 하도록 교훈 한 점에서 가장 선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도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환난과 이단의 유혹에서도 진리를 변호하며,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도록 권고한다. 즉 실천을 통한 선교의 강조인 것이다.

81) Kane, 세계 선교역사, 134-154.

82) Ferdinand Hahn,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 C. M, 1981), 139. 전호진, 선교학, 83에서 재인용.

## 제 2 절 선교의 신학적 배경

### 1. 복음주의적 선교신학

복음주의 선교는 일반적으로 영혼구원과 교회개척 및 성장위주의 선교관을 주장한다. 이 선교론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신학적 입장 위에서 세워진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적 선교의 목적은 교회의 개척과 확장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Gisbertus Voetius의 세 가지 목표 즉, 이방인의 회심, 교회설립과 확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갖게 하는 교회론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유기체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신적인 생명의 원리를 갖는다. 모든 지체들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곳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고 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근거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합은 어떤 기구적인 연합이기 보다는 성령에 의한 생동적인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이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총회이요, 하나님이 임재 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셋째,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서의 교회이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이며,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가 교회의 특성을 결정짓는다.

이상과 같이 복음주의의 선교의 개념은 Gisbertus Voetius의 선교개념에 기초한다. 즉,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 비기독교 세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전파를 선교라 하여 개인의 영혼 구제를 위한 복음 전파가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의무감과 확신감을 갖고 있다.

현대 선교에 대한 이해를 Billy Graham이 주동이 되어 세계 복음화 사역을 수행하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확산된 '로잔 국제대회'의 언약에서도 전통적 복음주의 입장에서 인류의 3분의 2인 27억이 아직도 전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복음전도의

긴박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였다.

첫째, 교회의 선교사명은 성 삼위 하나님의 목적이다.

둘째,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다.

셋째, 전도의 긴급성과 오늘 교회의 협력을 요구하며 하나님은 신생교회들의 새 시대의 선교 주역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넷째, 복음은 어떤 문화의 우월성도 전제하지 않으며, 교회는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문화 연구에 대한 책임을 인식한다.

다섯째, 전도는 영적 싸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여섯째, 전도와 사회 참여에서도 전도의 우위성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로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영적 갱신과 헌신을 보여 주어야 한다.<sup>83)</sup>

그러므로 선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며, 주의 선교 명령에의 절대 복종을 의미한다. 즉 세계의 모든 족속들, 언어와 혈통과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의 비기독교들을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헌신에의 촉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요청되어진 하늘의 일에 사신이 되어 파송되어지는 것이다.

Donald A, McGavran은 오늘날 선교사 파송이 놀랍게도 줄어든 것은 선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잘못된 이유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는 역사적으로 살피고 있다. 그는 지적하기를 처음에 선교는 선교의 주변적인 일들을 포함하면서 선교는 예배이다. 선교는 연합이다. 선교는 구제사업이다. 선교는 경제개발이다. 선교는 박애사업이다 등등의 개념으로 이해되다가 '교회가 비 교인들에게 한 모든 일' 혹은 '어떤 일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을 찾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선교 혹은 전도'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선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을 모으는 것'과 같이 애매하게 일반화되어 정의할 때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신학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고한 목표는 지고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둘째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83) 조종남, 로잔 세계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19-36. 로잔 운동은 교회나 교파들로 조직된 기구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사역을 조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운동을 표방한다.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 1차 국제 복음화 대회"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의 '로잔 언약' (The Lausanne Covenant) 과 1989년 7월에 같은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 2차 로잔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서 발표된 마닐라 선언문은 로잔 운동이 벌이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성경적으로 잘 고백하고 있다.



접촉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가까운 이웃들이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가 그 자체의 지역 안에서 '복음적으로' 활동하는 것 즉 좋은 이웃이 되어 버리는 것으로 신학화 되어진다고 경고하면서 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전도가 가장 긴급한 일로 보았다.<sup>84)</sup>

화란의 신학자 J. M. Bavink도 선교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김명혁 교수도 교회확장과 교회의 설립은 선교의 필수적인 목적이며 이방인의 개종은 교회 설립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한다.<sup>85)</sup>

## 2.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20세기 기독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중의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일 것이다. 그것은 교회 연합 운동인 세계교회 협의회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창설은 자유주의 신학 사상으로 인하여 선교에 변화와 장애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전통적 선교개념을 포기하고 사회 구원의 선교신학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이 가진 선교의 개념은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수인 뉴욕 유니온 신학교 선교학 교수인 J. C. Hockendijk가 종교 개혁자들이 고전적 선교와 복음전파에 대한 개념에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선교와 복음전파의 목적이 개인의 구원에 있기보다는 땅위에 평화 (Shalom)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sup>86)</sup> 그의 '선교'란 선포 (Kerygma), 교제 (Koinonia) 및 봉사 (Diakonia)이다. 그 의미는 성경적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선포'란 그 평화가 도래하여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교제'란 이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평화를 표현하는 것이요, '봉사'란 평화를 의미하는 겸손한 봉사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sup>87)</sup>

Ronan Hoffman은 기독교 선교는 이제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십자군 운동이나 정복운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면서 현대의 선교는 타종교와의 인도적 대화를 통해 서로 주고받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며 선교의

84) Arthur Glasser and Donald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1974), 26.

85)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서울: 성광문화사, 1987), 107.

86) 김명혁,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 신학지남 167 (1974):197.

87) 전호진, 선교학, 17-18.

목적이 개종과 회심보다는 증거와 봉사에 있다고 말하였다.<sup>88)</sup>

또한 William Hacking은 “오늘날 선교의 과제는 타종교의 장점을 보고 타종교의 전통들 가운데서 좋은 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한 다른 종교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공동의 종교의 광장으로 나와 세계적 교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sup>89)</sup>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968년 읍살라에서 모인 제 4차 W. C. C 총회는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고 규정하였다.<sup>90)</sup>

이 선교 개념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J. C. Hoekendijk, Freytag, M. A. Warren, Lesslie Newbegin등인데 이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는 독일의 G. E. Vicedom이다.<sup>91)</sup>

에큐메니칼 선교는 교회 중심적인 선교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세계 교회협의회 1952년 빌링엔 대회 주제 부상하였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장이다.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 모든 기구들을 통해 자신이 선교, 온 세상을 위한 모든 선행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말해 하나님의 선교란 선교가 하나님께 속한 활동임을 의미한다. 이 말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 다 라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로 참여하게 되는 선교활동의 원천은 삼위일

88) John Stott, Christian Mission in Modern World (Illinois: I. V. P, 1975), 111.

89) Ibid.

90) W. C. C, “Drafts for S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4 (1968):34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전호진, 선교학, 19에서 재인용.

우리는 인간화를 선교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역사의 시대에서는 메시아 목표의 의미를 다른 입장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다른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구속적 사역의 목표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선교의 목적은 기독교화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중요한 문제는 참 인간의 문제이다. 따라서 선교 교회의 주요 관심은 선교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성을 지배하는 것이다.

91) Vicedom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들을 기꺼이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다.”고 했는데 이 말속에는 만인 구원론 사상이 들어 있다. 그의 선교관은 다음과 같다. 선교란 단순히 주님이 말씀을 향해 복종한다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의 회집에 대한 의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란 구원받은 전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려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심, 곧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한 지체로서 참여하게 되는 선교운동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고 하였다. 전호진, 선교학, 17-18에서 재인용.

체 하나님 자신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교회의 선교를 말해서는 안되고 우리들의 선교란 말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선교의 최상의 신비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사실이며, 이로 말미암아 선교는 살고 자라난다.

하나님의 선교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다라고 보는 그룹이다. 대부분의 복음적인 에큐메니칼 입장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이것을 주장한다. Johannes Blauw, Charles Van Engen, Thomas F. Torrance, David J. Bosch, Gerald H. Anderson, Stephen Neill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교회는 선교'이다라고 보는 그룹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에큐메니칼 입장을 주장하는 자들로서, Leslie Newbigin, J. C. Hoekendijk, Georg F. Vicedom 등으로서 선교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선교에서 교회의 역할을 배제하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선교개념을 지나치게 세속화시키거나 종교화시킨 세속적 에큐메니칼주의 자들과 종교적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교와 세상은 하나이며 여기에 교회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시키지 않기도 한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Richard Schull, M. M. Thomas 등이 있다.

에큐메니칼의 선교개념은 한마디로 사회문제와 인간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선교는 인간화'라 하여 '인간화'에 중심을 둔 선교개념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특징을 서정운은 이렇게 말한다.

첫째, 교회 중심적이었던 선교를 세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둘째, 기독교론에 치우쳤던 선교 이해와 활동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

셋째, 인간 중심으로 생각되어 온 선교를 하나님 중심으로 고쳐서 생각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선교란 없으며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뿐이라는 것.

넷째, 그러므로 선교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선교 (Mission)뿐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92)</sup>

92) 서정운, 교회와 선교, 103-106.

### 3. 두 선교신학의 차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선교의 목표가 복음화 (Evangelization)나 인간화 (Humanization)나 양극화 현상은 20세기 중반부터 표출되기 시작했다.<sup>93)</sup> 복음주의 선교는 인간 개인의 영혼 구원에 그 우선권을 두었다면, 에큐메니칼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로 넓혀서 이해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활동의 양면성을 볼 수 있다. 이 양면성에 대한 반대는 거의 볼 수 없으나 지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의 선교는 교회의 사회 참여에 우선적인 것이다. 1980년의 멜버른 대회에서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 인종적으로 차별 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선교를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것인가를 묻지 않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회나 선교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복음주의적인 선교개념은 고전적인 의미의 선교개념에 더욱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수의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의미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타문화권에서 선교를 위한 교회의 모든 활동들, 예컨대 의료, 교육, 개발, 구제사역 등의 봉사활동을 선교로 간주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교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더불어 선교관의 양극화 현상은 상당히 누그러져 왔다. 현대 선교신학의 주로는 양극단을 피하고 종합적인 선교관 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큐메니칼 선교는 '인간화'라 하여 인간화에 중심을 둔 사회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온데 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전파에는 소극적이었으나 1975년의 나이로비 (Nairobi)대회쯤에서는 상당히 냉정을 되찾게 되었으며, 반면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개인구원을 위한 복음전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의료, 봉사, 구제 등의 사역에는 소홀히 하여 왔으나 로잔 대회 이후부터 전도와 사회참여를 양분하는 이원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있다.

이에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에큐메니칼적인 선교개념과 공통 분모 적인 선교

93) 이런 양극화 현상은 20세기 중반부터 표출되기 시작한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 간의 선교 신학 논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에큐메니칼 측은 선교의 수평적 차원에 치중한 나머지 수직적 차원을 상실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복음주의 측은 선교의 수직적 차원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수평적 차원인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을 피력한다. 즉 선교가 단순히 타문화권 전도만이 아니라 전도와 사회봉사라는 통합적인 해석을 내림으로서 양극화된 문제점을 절충하고자 시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국의 John R. W. Stott나 Herbert Kane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John R. W. Stott는 선교의 의미를 “선교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상에 보내셔서 시키시는 온갖 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선교의 의미를 보다 확장시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sup>94)</sup>

그러므로 John R. W. Stott는 선교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불가분리를 주장하면서 사회행동은 전도의 동역자로 보았다.<sup>95)</sup>

Peter Wagner는 이를 복음 전도위임 (Evangelical mandate)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문화위임 (Cultural mandate)의 전통적인 수행이라고 설명한다.<sup>96)</sup>

---

94) Marlin Nelson, 오늘의 아시아 선교, 윤두역 역 (서울: 보이스사, 1980), 45에서 재인용. Stott는 선교를 마 28:16-20까지의 구절에 근거하여 선포 (preaching), 개종 (converting), 및 가르침 (teaching)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책임은 개종하여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며 교회선교에 전도와 불가분리적인 요소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1966년의 베를린 대회에서의 자기 견해를 수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했다.

지상명령은 예수께서 전에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개종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책임은 예수께서 명하신 것 중의 일부가 아니다. 내가 지금 명백히 알게 된 것은 지상명령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명령 자체가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95) 1974년에 발표된 로잔선언문은 “복음 전도와 사회-정치적 활동은 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의 일부이다.”라는 진술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선교에서 복음 전도가 일차적인 것이다.”라는 진술을 덧붙이고 있다 (6항); 1982년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대한 협의회’는 전도의 우선성을 확인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라는 바로 그 사실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제로 하며, 그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복음 전도와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둘째로, 복음 전도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인류에게 최고로 또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원하고 영적인 구원이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마닐라 대회 (1989)의 선언문도 유사한 진술을 담고 있다.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복음, 곧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회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만 재 강조했을 뿐이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는 규명하지 않고 있다.

96) Peter Wagner,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이요한 역 (서울: 성경연구사, 1986), 62.

최근에 남아프리카의 선교신학자인 David J. Bosch 전도와 선교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함으로서 양극화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선교를 영혼구원과 사회봉사로 해석하면서도 개인구원을 위한 복음전파에 우선권을 두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회봉사의 영역을 선교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서 효과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총체적인 선교관을 받아들인다. 총체적 선교관이란 선교를 영혼구원과 사회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영혼구원의 우선성과 열정은 유지하면서 역사와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선교의 수직적 차원의 복음화와 수평적 차원인 인간화를 다 포괄하는 수정되고 넓어진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개념이다.

## 제 3장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

이 장에서는 교회와 선교의 언어적 고찰과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선교의 언어적인 의미와 사용이 주로 어디에서 발언하였으며 교회의 개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교회의 언어적인 고찰을 통하여 이 개념이 선교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 제 1 절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관계성

#### 1. 선교(Mission)의 언어적인 의미와 사용

“Mission”이란 용어는 라틴어 “Missio”로부터 유래한다. 그 의미는 “-으로 보낸다”이다. 어원학적으로 “Missio”는 성경적인 사상과는 낫설며,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용어이다. 그러나 선교의 개념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구약 성경은 구속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 구속의 예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갈 4:4).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의 삶에 동참 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가 영광의 주가 되심을 알려 주셨다. 특별히 신약성경 안에서 선교의 개념은 “Apostello”와 “Pempo”라는 동사로 구체화되어진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전자는 약 135번 정도 나오고 후자는 약 80번 정도 나오는데 동사 둘 다 “to send”로 번역되어질 수 있다.<sup>97)</sup> 이처럼

97) 신기섭, “선교단체의 선교 전략비교” (신학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1), 4.

선교의 어원적인 의미는 자연스럽게 선교의 정의를 “-에게 보내는 것”으로 내릴 수 있게 한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다.

Lesslie Newbigin은 “선교가 하나님의 보내심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선교론은 잘못된 것이다.”<sup>98)</sup> 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복음을 증거 할 목적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되는 것이다. 이 파송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근거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의 기초이다. Stephane Neill은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말과 행함으로써 교회에서 교회 밖을 향해 의도적으로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다.”<sup>99)</sup>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이전에 복음이 침투해 본 일이 없는 지역으로 교회의 경계를 건너 완전한 미지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sup>100)</sup>이라 하였다.

Johannes Blauw는 선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선교의 특징을 다른 민족들에게로,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데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01)</sup> 그래서 그는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가 하는 선교 외에는 선교가 아니다.”<sup>102)</sup>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어원적인 의미로부터 선교는 보내는 것이며 넘어가는 것이며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는 복음과 떨어져서 이해될 수 없는 것임이 유추되어진다. 왜냐하면 하

98) J. E. Lesslie Newbigin, “The Household of God.” in Lectures of the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Friendship, 1954), 6.

99)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Baltimore: Penguin Book Inc, 1975), 52-62.

100) Ibid., 762. 현대 교회 성장학자인 McGavran은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Arthur F. Glasser & 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17).

101) Johannes Bla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 A Survey of the Biblical Thology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74.), 234.

102) Ibid.



나눔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적 의미로 '복음'이란 말은 사도들의 설교인 기쁜 소식을 말한다. 초대교회의 전도 (Kerygma)에는 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및 승천, 성령 강림, 예수의 재림, 회개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스테반, 베드로, 바울 등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와 그 변경 여러 곳에 전해진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메시지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선교의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며 넘어가는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 2. 교회의 언어적인 의미와 사용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말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로부터 밖으로 불러낸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실제로 이 개념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총회나 일단의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쓰여졌다.

Flew는 '예수와 그의 교회'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비록 복음서에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라는 낱말은 세 번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낱말, 예를 든다면 '양의 떼' (마 26:31), '적은 무리' (눅 12:32),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새로 시작될 종말론적 공동체 또는 새 이스라엘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한다.<sup>103)</sup> 그는 또 "교회는 시초부터 교회에 위탁된 신적인 계시에 의해 선교사 자체이다. 계시된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임무를 결정해 주고 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 증거 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천명하는 공동체이다."<sup>104)</sup>라고 말하였다.

이 개념을 특별히 구체화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고 이 개념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특히 우주의 의미로 더욱 발전되었다.<sup>105)</sup> 그는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를

103) 이종성, 조직신학, 39에서 재인용.

104) Young K. Riew,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선교학박사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5), 16-17에서 재인용

105) The Biblical Word Study Dictionary, 3:276-278.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마 16:18; 18:

몸으로 이해한다. 기독교 공동체가 몸,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 (고전 12:27)이라는 사실은 곧바로 공간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sup>106)</sup>

Eduard Schweizer는 “우선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분께서 계속 활동하시는 축복의 영역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분께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통치의 영역이다.”<sup>107)</sup> 고 말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교회의 개념은 세상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이요,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기 위한 선교적인 지역 회중이요, 친교와 예배 그리고 섬김이 있는 지역 회중을 의미한다. 이 말은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대행자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이고 하나님의 파송에 흠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개념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선교의 핵심적인 대행자라는 사실이다.

### 3. 교회와 선교의 언어적인 사용에 있어서 관계성

선교의 언어적인 의미는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교회의 언어적인 의미는 밖으로부터 불러모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불러모으는 것’과 ‘보내는 것’은 마치 반대적인 기능처럼 보인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상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G. Peters는 이 교회라는 개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신약에서의 교회의 용법은 ‘-을 향하여 부름 받은 (called unto)’이라는 의미를 더 가진다. 이 개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

17을 제외하고는 복음서에 완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23회 사용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누가가 예수님이 지상 활동 시기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했다는 결론을 암시한다. 이 단어의 표현 중 대부분은 단연 바울 서신에 나오며 (총114회) 에베소서에서 9회, 골로새서에서 4회 나오며, 무엇보다도 고린도 전서에서 22회 나온다. 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주의 세력들에게까지 알려진다는 주장으로 이 사상을 발전시킨다 (엡 3:10; 4:8 이하). 이 세력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상실한다 (골 2:14 이하, 20). 이는 항상 그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셨기 때문이다.

106) *The Biblical Word Study Dictionary*, 3:207.

107) 이승규, “선교와 교회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강의, 장신대, 1998)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를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70인 역과 신약성경에서의 용법을 보면 교회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특성을 지닌다. ① 그것은 -로부터, 그리고 -를 향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다. ② 그것은 특별한 류의 사람들이다. ③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④ 그것은 평등과 형제애라는 원리에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⑤ 그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sup>108)</sup>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부름을 입은 무리들이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그 사명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

L. A. Hoedemaker 역시 교회와 선교라는 이 두 기능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신학적으로 교회와 선교는 하나의 단어이다”고 하면서 “교회가 전 세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교회의 근원이 전 인류를 위한 비전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짧게 말해 교회가 보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임을 의미한다.”<sup>109)</sup>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선교는 언어적인 의미상 그리고 기능상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인 고찰을 통해서 보았을 때 교회가 선교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선교의 한 기능이 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보았을 때 J. C. Hoekendijk 가 지적한 것처럼 교회는 제 2세대의 관심사에 의해 형성된 개념이고 선교는 제 1세대의 중심적인 관심사인 것을 알 수 있다.<sup>110)</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크리스천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를 택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된 무리로서의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 호칭에서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려는 데 그 궁극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진정한 목적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

108)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72), 200.

109) Hoedemaker L. Arend and Spindler M. R., Missiology: An Ecumenical Introduc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5), 45.

110) J. C. Hoekendijk, 흘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56.

족 중에서 약속대로 메시아가 탄생했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 사도들을 택하여 증인의 사명을 계승하였고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본격적인 예수 공동체로 출현하게 된다. 이 공동체가 선교를 통하여 각지로 산재해 갔는데 바울은 이런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로 명명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 공동체였다. 선교와 교회가 일치되어 있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었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 15:16)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제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교회를 택하여 세웠다. 이 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사도들처럼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사명이 주어진 집단이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게 준 지상명령이 선교적 명령인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요 17:18)는 주님의 파송의 말씀을 듣고 파송된 자로서의 자세를 마지막날까지 견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력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이다.

## 제 2 절 역사적 측면에서 본 관계성

교회와 선교를 개별적인 각 각의 활동으로 보는 흐름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라는 사실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지만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발전되어 왔다. 서정운은 그의 책 교회와 선교라는 책에서 두 가지를 구분한다.<sup>111)</sup>

David J. Bosch는 “역사는 특별히 선교에 관하여 얼룩덜룩한 그림을 보여준다”<sup>112)</sup>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 선교와 교회는 같은 길을 걸

111) 서정운, 교회와 선교, 39. 한 쪽에서는 교회와 선교를 일치시킴으로 교회를 전적으로 선교적 의미로 보는 견해와 다른 쪽은 교회가 선교를 사명으로 가진다는 인식이다. 교회와 선교를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교회가 선교다’ (The church is mission)라는 말로 단언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교회가 선교를 그 사명으로 가진다’ (The church has mission)이라고 표현한다. 선교를 교회가 가진 사명으로 이해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선교가 특별히 조직된 선교회나 기구의 책임이지 교인 전체의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112)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Books, 1991), 145. 그는 어떤 때에 선교는 세계를 향한 도상 가운데 교회

어오면서 갈등과 긴장으로 각기 개별적인 길을 걸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종교 개혁 이전까지

### 가. 초기교회의 선교

초기교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던 A. D. 313까지의 교회 역사는 선교와 교회가 동일한 선상에 있었음을 어렵듯이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자료는 충분치 않으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수많은 박해와 시련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로마 박해의 시기에는 공식적으로 전도가 불가능하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교회가 당면한 외면적 조건으로는 교회가 정체되는 시기였을 수도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아주 급속히 복음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박해가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저명한 선교학자였던 S. Neill에 의하면 Constantine이 신앙의 자유령을 선포했을 즈음에는 로마제국의 영토에 거주했던 인구가 약 5,000만명 정도였으며 그 가운데서 10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sup>113)</sup> Constantine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즈음에는 이미 상당수의 귀족까지 이 도에 복종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선교가 불일 듯 한 근본적인 이유를 서정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그들은 주로 가정교회 (house church)형태로 존재하였다. 박해가 빈번하였으므로 가정 교회가 근본적인 구조였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가정이 바로 선교의 전초기지요 중심이었던 것이다. 둘째로, 이 시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다. 교역자나 평신도의 구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 자였다. 선교가 전체 교인의 임무로 실행되었던 것이다.<sup>114)</sup> 박해와 불리한 조건하에서 교회는 오히려 강인한 선교 운동체로 작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해 왔다.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었고 다른 때에 선교는 제도적인 교회 옆에서 특별하고 격리되어진 소집단들의 사업이었다고 하였다.

113) 서정운, 교회와 선교, 40.

114) Ibid., 41-43.

한편으로는 1세기 때부터 기독교회는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 자기전파를 위해 어떤 조직체를 가지려고 노력해 왔다. 지역 단위로, 회중들이 어떤 형태와 크기로 형성되면서, 보다 비공식적인 기동 (mobile)팀이 회중과는 별도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였다.<sup>115)</sup>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초기의 선교구조는 거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교회와는 관련을 맺고 있었지만 지시와 통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 나. Constantine 이후의 교회의 선교.

AD 313년 Constantine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단종파의 발흥으로 교회 밖의 운동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Cyprian으로 대표되는 초대 교부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 질서의 수호자와 사도적 전승을 들어 교회의 통일성과 감독의 절대권위를 수립했다.<sup>116)</sup> 이러한 사제에 대한 권리 옹호와 교회 지상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의 도전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어 왔다.

David J. Bosch 는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부터 특별히 기독교의 공인 이후에 교회와 선교가 서로 양립하는 몸이었음을 지적한다. 즉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와 선교가 양립되기도 하였지만 후에 분명한 대립이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sup>117)</sup>

Bosch의 주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선교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Constantine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사건은 교회가 이제는 국가 내에서 어떻게, 어떠한 조직과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떠맡았다고

115) Riew,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249.

116) 한철하, 고대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107-115.

117) Bosch, Transforming Mission-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185에서 저자는 아래와 같이 말함으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지지해 준다.

교회와 선교는 가까이 있는 두 개의 실체였고 어떤 때에는 서로 대항하기도 하였다. 본래 이 둘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였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선교를 시작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났다 (행 2장). 선교는 교회의 선교였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교회는 잇달아 세워지게 되었고 성장하면서 생겨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거기서 교회는 교구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발전하면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관계성을 무시하게 되었다.

할 수 있겠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전 로마가 완전히 복음 화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기독교가 법적으로 로마제국의 종교가 된 것을 의미하는데 로마제국의 주민은 신앙 유무에 관계없이 형식상 기독교인으로 인정되었다는 말과 같다.

이러한 교회 자체의 변모가 선교운동의 틀과 과정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는, 선교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수행되지 않고 특정인의 직무로 인식되고 시행되었다. 둘째로, 선교운동은 개인적인 전도를 통한 회개와 신자공동체의 교회 형성보다는 로마 천주교회의 기구적 확장에 더 치우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서정운은 “기독교의 콘스탄틴적 전환으로 인해 성경보다는 교황 중심의 교회, 인격 공동체로서 교회보다는 기구화된 교회, 복음 선교보다는 교회화 위주의 선교, 성령의 능력보다는 다른 힘이 주도하는 선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sup>118)</sup>고 하였다.

따라서 중세교회 천여 년에 걸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수사단 (Monarstic)을 통해서 선교를 주도했다.<sup>119)</sup> 이때의 상황에 대해 Neill은 “교회는 두 가지의 적과 싸우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하나는 기독교화 (Christianized)된 야만인들과 다른 하나는 세계를 개종하려고 나선 이슬람교의 신실한 추종자들이었다. 교회는 정치적 강조와 더불어 기독교 국가들의 군사적 방어의 필요성에서 거의 선교사업은 마비될 뻔했다.”<sup>120)</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원 운동과 갱신운동들은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바 있는데 15세기 후스파의 개혁운동이 이미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Martin Luther 가 개혁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승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Ralph D. Winter는 “중세 천년의 교회사는 실제로 선교구조의 역할을 제외하고서는 기록하기가 불가능하다. 로마의 교회구조 안에서 일어난 일은 피상적이고

118) 서정운, 교회와 선교, 43.

119) William R. Hogg는 특별히 이 기간동안 선교적 열정을 갖게 한 세 가지 큰 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하고 있다. 첫째는 교황청이다. 교황은 우주적인 권위를 대표했고 그 세계성의 상징이었다. 1622년에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선교사업을 감독하는 선교기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둘째는 수도원 생활이다. 수도단들은 바로 카톨릭 교회의 선교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승려들은 선교사였다. 셋째는 제 왕국이다. 수 백년 동안 기독교인인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영토 내에서의 선교사업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선교신학서설, 118-119).

120)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71.

정치적 역할을 대표할 뿐 기독교 운동 전체에서는 빙산의 일각처럼 왜소한 것이다”<sup>121)</sup> 라고 중세기의 선교구조를 규정하였다.

## 2. 종교개혁 당시

교회와 선교가 가장 두드러지게 개별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종교개혁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 교회만 있고 선교가 없었다는 사실은 카톨릭 신학자들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개신교 신학자들 역시 별로 변명할 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서면서 종교개혁 이전의 유럽의 수도원 제도와 많은 운동들은 종교개혁으로 기울어졌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 역사의 또 다른 갱신운동들과 같이 종교개혁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산물이었음을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 신앙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약 200년 동안 선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sup>122)</sup>

### 가. 루터파의 선교

K. S. Latourette에 의하면 루터는 선교의 책임을 간과했는데 그는 세상의 종말이 너무나 임박해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상명령을 사도시대의 명령으로 국한시켜 버렸다. 그는 종교개혁가들은 선교적 관심이 결여된 이유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①개신교 자체의 확립을 위한 투쟁. ②종교전쟁에 휘말림. ③그들의 종말사상. ④개신교 통치자들의 신앙확장에 대한 무관심. ⑤개신교의 선교기구의 결여. ⑥개신교국가들이 17세기 후반까지 비기독교인들과 접촉을 별로 하지 못한 이유들이 그것이다.<sup>123)</sup>

뒤이은 루터교의 선교활동 결여는 중세 수도원 주의에 대한 거부 때문에 그 기능인 선교 구조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조직의 형성에 실패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신도들을 개혁주의자로 전향시키는데 주로 관심을 쏟았다.<sup>124)</sup> 결국 선교에 관한 루터의 맹점은 중세말기 수도원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반

121)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184.

122) Terry Hulbert, 오늘의 세계선교, 윤혜준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34.

123) Hogg, 선교신학서설, 121에서 재인용

124) 이에 대해 Wint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터교가 중세 카톨릭의 선교구조를 제외시켜



발로 수도원의 선교 구조적 기능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도 자체를 직역시 한데 있었다. 그 자신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선교적 조직과 구조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으나 선교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Luther가 '국내 전도'에 전혀 무관심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이웃들에게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해 말했기 때문이다. 루터주의자들은 또한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서 스칸디나비아 일대와 북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라플랜드 사람들 (Laplanders)에 대한 설교를 하였었다.

교회의 내부적인 약점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괴롭고 잊혀지지 않는 분쟁과 심지어 분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 나라들을 위한 자기 목적을 이루셨다.

#### 나. 재 세례파의 선교

대부분이 개신교와 카톨릭에 의해 핍박과 추방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제 세례파들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재 세례파는 모든 세례 받은 신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주님의 명령을 책임지어 주었고, 선교사를 선출하여 내보냈다. 이러한 재 세례파 운동의 공통된 주요 삶의 방식을 White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거부한다. 그들은 또한 성인세례 (반드시 침례는 아닐지라도) 공동체의 헌신보다 개인구원, 물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양화한 정도와 형태로 강조하였다. 그들은 제자도를 강조했고, Sheeley가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는 내적인 체험, 교리의 수용이상이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 가운데서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제 세례파는 참으로 성직에 특별히 집착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평신도 운동이었다. 그들은 루터파들과 카톨릭 모두에게 똑같이 잔인하게 핍박받았다 그들은 분명히 자유교회 (Free Church)운동의 시초가 되었다.<sup>125)</sup>

---

버림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낳은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여파로 개신교 운동에 있어서 크다란 취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 와중에서도 후대에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 아니었다더라면 개신교는 그 틀 안에 어떤 개혁과 부흥의 구조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122-139.

이와 같은 재 세례파의 적극적 선교를 위한 열정은 루터파나 로마 카톨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스위스로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 3.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

#### 가. 18세기 경건주의의 선교

##### (1) 경건주의 (Pietists)

17-18세기의 경건주의의 선교적 열성은 19세기에 와서 개신교 선교의 위대한 세기를 열었다. 독일의 경건주의는 Philip Spener에 의해 시작되었다. Spener는 1670년부터 전통주의의 무기력에 맞서서 성경연구와 친교, 기독교적 생활,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세포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을 교회 내의 소교회 (ecclesiola in ecclesia)라고 간주하였다.<sup>126)</sup> 그러나 이들도 재 세례파와 마찬가지로 2, 3대로 내려가면서 명목적인 상태로 답보 하게 되었다.<sup>127)</sup> 교회는 선교활동으로 인해 빈번히 좌절을 경험했고 때로는 전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긴장과 유혹에 당면하기도 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교회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선교를 교회에서 떼어 내기도 하였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선교하는 일은 교회보다도 오히려 교회와는 관계없이 조직된 선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sup>128)</sup>

그러나 교회의 내부적인 약점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괴롭고 잊혀지지 않는 분

125) Jerry White, The Church and The Para-Church: An Unease Marriage (Portland: Multnomah Press, 1983), 45.

126) Hogg, 선교신학서설, 126.

127) Winter는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적 구조에서 일반적인 회중 구조로 전환되고 말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부흥운동이나 선교기관의 역할 중 아무 것도 효과적으로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Sodality의 힘을 창출하는 일에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개신교는 이후, William Carey가 '이방인의 회심을 위한 기구의 활용'을 제안해 내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은 선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구조)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131-132.

128) 이 부분에 대해 Newbigin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생각 속에 교회와 선교라는 두 단어는 각기 다른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그 하나는 예배와 목회 및 영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인식되며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회심 자들을 교회로 보내는 기관으로 인식된다. ... 또한 선교를 후원하는 일은 본 교회가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친 후에나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한다 ("The Household of God," 234).

쟁과 심지어 분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 나라들을 위한 자기 목적을 이루셨다.

## (2) 모라비안파 (Moravians)

독일의 경건주의에 이어 두 번째 선교운동은 모라비안 교회에서 일어났다. 모라비안 운동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이었고 현대 선교 운동의 최초의 전주였으며, 교회 연합이었다.<sup>129)</sup> 모라비안 교도들은 경건주의 운동에 강한 영향을 받아 놀라운 선교적 열정을 지니고 있었고, 세계 전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N. Zinzendorf 백작은 Francke에게서 선교의 열정을 전수 받았다. 수년 후 모라비안 남은 자들이 Saxony에 있는 Zinzendorf의 영토에 정착해 와서 1722년에는 Herrnhut 라는 그들의 마을을 건립했다. 처음엔 피난민의 정착지로 시작했던 것이 깊은 영적 각성으로 강하게 헌신된 공동체로 바뀌었다.<sup>130)</sup>

이들은 신앙정신에 있어서 경건주의를 계승했기 때문에 순수한 교회의 설립을 중시하고 대중적인 개종보다 개인의 회개를 통한 개종을 중요시하였다.

모라비안 교회는 선교를 어떤 특정인들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교인의 전체적인 임무로 여기고 평신도 선교사 위주의 선교를 하였다. 자신이 재정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평신도 선교사가 이들의 전형적인 모델이었다.<sup>131)</sup> 선교사들은 그들의 사역 초기에 28년간 28개국에 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모라비안 교도 열 명 중 평균 1명이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립적 단위로 해외에 나갔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러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역이 섬지방, 북아메리카, 그린란드 등지에서 모라비안들의 선교활동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이 전 교회가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 사업에 종사한 것은 그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sup>132)</sup>

129) 채은수, 선교학총론 (서울: 기독지혜사, 1991), 331.

130) Latourette는 모라비안들의 신앙적 특성을 이렇게 기술한다. “여기 기독교 확장에 새로운 전기가 일어난다. 공동체의 전부가, 교직자건 평신도건 남녀, 기혼, 미혼의 구별 없이 복음의 전파에 헌신되어 있었다.....그들의 독특성 중 하나는 경건주의의 형태를 따라 다른 크리스천들을 그들의 교회로 끌어들이지 않고 ...그들 자신이 다른 사회나 공동체에 들어가서 누룩이 되고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다.” K. S. Latourette, The Gospel, the Church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1946), 47-48. Riew,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256에서 재인용

131) 서정운, 교회와 선교, 51-52.

132) Hogg, 선교신학서설, 126.

### 나. 근대 선교운동

기독교 선교사역의 봉우리는 역시 근대 선교 운동임이 틀림없고 그 아버지는 바로 William Carey이다. 평신도 설교자로, 유명한 1792년에 87페이지에 달하는 소책자 '이교도의 회심을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조사'를 발간했다. 이 선언은 선교에 관해 저술된 어떤 책들보다 가장 확신에 찬 선교적 호소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고 후대 교회사에 끼친 영향으로 생각한다면 Martin Luther의 95개 조항과 나란히 설 수 있을 정도로 귀하다.<sup>133)</sup>

많은 선교 분야의 저자들이 1792년을 'Annus Mirabilis'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해를 기준으로 하여 선교역사가 앞과 뒤로 나뉘어지는 선교 연대의 분기점이 되었다. 그는 1792년 5월 30일에 노팅햄에서 모였던 침례교 교역자 회의에서 그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라!"<sup>134)</sup>라는 선언을 통해 잠자던 교회를 흔들어 깨웠고, 1793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Baptist Missionary Society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 단체는 근대 선교기구의 모델로서 수많은 선교단체 결성의 기폭제가 되었다. 교회의 무관심 속에서도 BMS는 성장해 나갔는데, 이를 시발로 영국의 London Missionary Society (1795)와 4개 단체, 미국에서도 New York Missionary Society (1796)외에 6개의 선교단체가 탄생되었다.

선교 단체들이 일단 힘을 얻자 놀라운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William Carey의 등장 이래 190년간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온 남녀의 숫자와 개척된 교회의 숫자가 지난 1800년간 얻은 각각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다.<sup>135)</sup>

이런 부흥은 학생 선교 단체들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886년에 Student Volunteer Movement가 Moody에 의해 결성되며, 그보다 한해 앞서 영국에서 현대 복음 운동을 확산시키는 촉진제가 되는 OMF, 구세군 등이 1865년에 창설

133) Herbert Kane, 세계 선교역사, 신서균, 이영주 공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3), 123-124.

134) 서정운, 교회와 선교, 53.

135) Peter Wagner, 교회 성장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이요한 역 (서울: 성경연구사, 1986), 74.

되기도 하였다. 계속해서 1890년에 Evangelical Alliance, 그리고 후기에 여러 선교 단체들이 출범하게 되었다.<sup>136)</sup>

#### 다. 20세기 선교운동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선교운동이 강한 교파주의적인 경향을 띠었지만 여전히 초 교파적 선교회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Faith Mission으로 불리는 이들 선교회는 일정한 교단이 공식적인 지원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일체를 의탁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선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선교회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축소되지 않았다. 이들의 특징은 H. Kane이 지적한 것처럼 장구성이 있고, 활력 넘치는 성장력을 보이며, 여러 가지 독창적인 선교 프로젝트를 개발해 오고 있는 점들이다.<sup>137)</sup>

20세기초의 선교계의 분위기는 그후 잇따른 역사적 대사건의 돌발에 휘말려 기대했던 만큼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교회 내부의 신학적 갈등의 표면화와 더불어 선교 현장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선교사상 및 선교운동이 본질적인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와 선교의 양분은 초대교회로부터 1900년대까지 계속 되었다.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복음적 공식들은 교회 밖과 곁에서 자발적인 선교 단체가 정당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였다.

Gerhard Hoffmann은 선교와 교회의 독자적인 구조는 심각한 의문보다는 신학적인 정당성을 요구하는 사실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19세기의 선교의 재발견은 기성교회의 구조나 신생 선교부의 구조에 도전적이지 않았다.”<sup>138)</sup>고 주장한다. 많은 신학자들은 선교단체를 기성 교회 밖의 별도의 단체로서 신학적으로 정당하게 인정하였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회의 (World Missionary Conference)가 열렸다. 거기에는 약 120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대표자들은 교회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선교회

136) 도문갑, “선교의 주역 교회인가? 선교단체인가?” (신학석사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1989), 48-51.

137) 서정운, 교회와 선교, 62.

138) Gerhard Hoffmann, “Considerations on Integration of Church and Mission in Germany,”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58 (July 1962): 234.

의 대표로서 참가했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교 단체들이 교회 밖에서 활동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선교가 다양하게 얽혀져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선교와 교회가 분리되는 수많은 이유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교회와 선교회 역시 교회는 교회이고 선교회는 선교회이다 는 뚜렷한 구분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즉 선교가 문제가 된 곳에는 반드시 교회도 똑같이 문제시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보고 있다. '교회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선교가 지금도 유용한가? 선교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친밀하게 아니 더 정확하게 교회와 선교의 끈을 찾아야 한다.

Peter Wagner는 시작부터 교회는 교회였고 선교회는 선교의 권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Ralph D. Winter는 Para-Church의 모델로서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 제도를 전개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전적으로 합당하지는 않다. 선교회나 교회의 이분법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이분법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교회의 몸 구조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Para-Church의 부정적인 영향은 Ralph D. Winter나 Peter Wagner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Para-Church에 대한 견해는 선교와 교회간의 관계가 계속적인 긴장관계로 성장되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선교 없는 많은 교회들과 교회 없는 많은 선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 공동체 (Mission Community)였다. 선교와 교회는 일치되어 있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었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다. 만일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현재까지 생존해 오지 못했을 것이고, 당시 고대 종교의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선교는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기에 교회 공동체를 선교에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교회는 어떤 혼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위임하신 선교를 위한 바른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제 4 장

### 선교 지향적인 목회

이 장에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목회의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 목회계획을 위한 목회신학의 정립과 선교를 향한 계획 및 성경속에서의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 제 1 절 선교 지향적인 목회계획

##### 1. 목회 신학의 정립

Seward Hiltner에 의하면 목회신학이란 “다양한 관점에서 교회의 모든 활동과 기능을 보며, 그것을 위한 신학적 지식이나 연구”<sup>139)</sup>라고 말했다. 목회는 복음을 분명하게 세우는 일이다. 목회의 핵심은 복음전파이다. 복음이 복음으로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목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김병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음 선교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목회신학이다”라고 하여 이를 말하고 있다.<sup>140)</sup>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신앙의 결과에 의하여 회개와 죄사함이 나타나게 된다. John Calvin은 이 신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앙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자비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인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정 위에 인 쳐주시는 것이다.<sup>141)</sup>

복음전파의 사역에 의하여 이런 신앙을 얻게 되면, 이 신앙으로 인하여 회개에

139) Seward Hiltner, 목회신학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21.

140) 김병원, 목회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1), 17.

14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3:7.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John Calvin은 회개를 중생이라고 하면서 중생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망이 되고 거의 말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 하여 목회사역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 주었다. 즉 목회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전파를 통하여 신앙을 가져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사역이다.<sup>142)</sup>

John Calvin은 그의 신학의 중심인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자와 구속자로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의 신학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타락한 피조물을 그리스도의 구속과 복음사역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sup>143)</sup> 목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것이 신교 지향적인 목회의 관점이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William Carey는 그의 저서 '이교도 회심을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조사'에서 마태복음 28장 16-20절에 나타난 선교의 대 사명을 종교 개혁자들은 사도들에게만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선교의 의무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한다.<sup>144)</sup> 특별히 George bana는 다가오는 21세기는 무엇보다도 경쟁적인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임을 경고하였던 것이다.<sup>145)</sup>

21세기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 공동체' (Global Community)가 되는 시대이다. 지역교회가 이제는 세계 교회로 바뀌고 있으며, 그것은 서양의 백인 중심에서 유색 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교회 형태가 되고 있다. 고립된 문화가 개방되면서 다른 문화와 혼합되고 선교의 범위는 '세상 끝들'에 이미 도달해 있다. 기업이 국제화를 따라 성장하고, 태평양 연안국의 흥기와 함께 오랫동안의 양극화 세계에서 이제는 다극화로 급변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와 함께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사회 및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는 타종교의 확산이 현저하다. 무엇보다도, 이미 약 10억의 신자를 가진 이슬람교는 매년 약 3퍼센트 수준

142) 이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바울은 엡 4:24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였다.

143) 한철하, "Theology of Ministry in John Calvin," 아신 4 (1991): 29.

144) 신동우, 선교학 (서울: 예루살렘, 1993), 90-91.

145)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10-11.



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지역에 따라 급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믿는 종교”가 아니라 “태어나는 종교”라고 불리는 힌두교도 근래에 이르러 포교 활동에 집중 노력하여 현재 약 7억의 추종자가 연 2.3퍼센트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어, 21세기의 초반에 접어들면 8억6,00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교회가 적응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 신학의 정립이 시급하다.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목회적 관점에서 새로운 목회가 요구된다. 선교 중심의 목회적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선교에 대한 목회계획

선교 지향적인 목회계획은 당연히 복음 전파를 목회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목회로 만족하지 않고 잃은 영혼을 찾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목회 계획이다. 왜냐하면 복음전도는 세상에서의 교회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는 우선 자신의 교회당, 교육관, 목사관 건립 등에 지나치게 급급한 나머지 교회 밖의 잃은 무리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였다. 그러나 신약 성서의 안디옥교회는 자기들을 위한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구브로와 소아시아에 새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이방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대체적으로 발전 없는 교회의 특징은 비전이 제한되어 있으며 비전 없는 교회는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초점을 선교적 비전에 맞출 때 교회도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왕성하게 된다. 세계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하나님의 의지이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성장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되어 왔고 기독교운동의 능력의 기초”<sup>146)</sup>가 되어 왔다. 그리고 현대의 교회성장운동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원리들을 재발견하였다.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책임은 결국 목회자에게 있다. 대개 성장하는 교회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도자를 소유한 교인들이다. 그리고 성장하는 지도자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sup>147)</sup>

146) Donald A. McGavran & George C. Hunter, Church Growth: Strategies that Work (Nashville: The Parthenon Press, 1980), 14.

첫째는,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다는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사역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이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Dietrich Bonhoeffer의 말과 같이 “제자로서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위대한 사명” (마 28:18-20)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개의치 않고 기쁘게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교회는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받았다. 여기에서 다섯 가지 교회 목표가 창출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배,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하는 선교사역,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지도자를 양육하는 제자육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봉사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세례와 성도의 교제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교회 목표가 균형 있게 세워지도록 교회 구조를 갱신할 때, 비로소 성장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목표가 선교일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선교 지향적 교회는 다섯 가지 목표를 다 충실히 이행하는 교회요 대내외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요구된다.

첫째, 목회자의 의식변화가 요구된다. 교회의 균형 있는 성장은 물론, 선교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목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장, 단기 선교사 제도 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꾸준한 선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회의 선교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주일학교를 포함한 교회 각 기관에 선교 위원회 산하의 선교 분과를 두어 영적,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하여 활성화시킬 때 많은 헌신자를 배출시킬 수 있다.

셋째, 교회가 선교단체나 학생 선교동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격려하고 후원하여야 한다. 모든 선교 인적 자원은 결국 교회와 연관될 때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넷째, 교회는 학생 선교운동 단체와 협력하여 젊은 헌신자들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sup>148)</sup>

147)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생명의말씀사, 1980), 12.

148)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49-50.

이상과 같은 선교 지향적인 목회 계획은 복음전파 즉 선교를 목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목회 계획이다.

## 제 2 절 선교 지향적인 교회의 특징

기독교 초기의 교회들은 바울의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교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를 지상과제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쓴 교회들이다. 여기서 이 교회들을 신약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예루살렘교회

예루살렘은 온 세계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위의 교회에게 복음사역의 부탁을 하신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선교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예루살렘교회는 오순절의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 교회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 Ray S. Anderson은 이 오순절의 성령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오순절을 자신의 기원이자 능력의 수단으로 받아들여 세상에서 선교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를 확고히 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sup>149)</sup>고 하여 교회의 본질을 오순절에 그 기원을 두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오순절 사건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결과는 복음 증거로 나타났고 그들의 복음증거의 결과는 수많은 사람의 회심 자를 낳게 된 것이다. 이것이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외적인 모습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신앙의 결과에 의하여 회개와 죄사함이 나타나게 된다.

복음전파의 사역을 통하여 이런 신앙을 얻게 되면, 이 신앙으로 인하여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John Calvin은 회개를 중생이라고 하면서 중생의 유

<sup>149)</sup> Ray Anderson, The Praxis of Pentecost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1), 19.

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망이 되고 거의 말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 하여 선교 지향적인 목회사역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 주었다. 즉 목회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전파를 통하여 신앙을 가져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사역이다.<sup>150)</sup>

예루살렘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사도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였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박해로 뒤따랐다.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며 스테반이 순교하는 등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박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더 넓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였다.

예루살렘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재산을 팔아 나누어 쓰며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활동을 행하는 교회로서 일반인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였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첫째, 선교의 지상 명령에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평신도 전도자들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선교에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특히 바울의 선교에서 보여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보다는 견제를 하고 정통적인 기득권을 주장하였다.

둘째, 강한 말세 사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로 이들은 선교에 열심보다는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sup>151)</sup>

셋째, 교회 내의 팔레스타인 출신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주의적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문제에 있

150) 이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바울은 엡 4:24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였다.

151) 서정운, 교회와 선교, 31.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대와 이해는 다른 시대 사람들보다 이들에게 특별한 바가 있었다.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수차에 걸쳐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곤 했기 때문에 승천 이후에도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 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 같은 이유로 예루살렘교회는 그 곳에 정착할 듯이 머뭇거렸다. 각처로 흩어져 산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경로로 복음이 전달되었으나 이방인 전도는 시작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스테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중심의 내향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서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이유로 예루살렘교회는 각처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었으나 이방인 전도는 아직도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교회가 그 장벽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및 땅 끝으로 확산되도록 역사 하셨다.<sup>152)</sup>

## 2. 안디옥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된 복음은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의 세계적 확장을 꾀하게 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과 13장 1-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안디옥은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의 출발지이다. 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의 출발지이며, 이것은 결국 세계 선교의 출발지가 되게 한 것이다.

안디옥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스테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교사중심으로 활동하던 교회였다. 이 박해는 기독교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복음이 이방인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피신해 온 이들은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유대인계와 이방인계 기독교인이 병존하는 첫 교회가 되었다. 그들은 먼저 구브로와 소아시아에 세 교회를 개척하였다 (행 13장).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이방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안디옥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안디옥교회는 전도의 열심히 가득 찬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 스테반의 순교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152) 서정운, 교회와 선교, 31.

이들의 복음전도의 열심은 결국 안디옥 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복음을 전한 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라 환난과 박해를 받는 때였으며, 설립자들의 이런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원하여 희생적인 신앙으로 전도를 했고, 교회를 개척하며 섬겼다.<sup>153)</sup>

둘째, 안디옥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다. 안디옥교회는 금식하기까지 선교를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준비와 결의를 한 교회였다.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도 그들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였다. 그 때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행 13:2)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선교를 주도하고 계심을 나타낸 말씀이다. 그들은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와 지속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다.

셋째, 안디옥교회는 구제활동에 헌신적인 교회였다. 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교회 한 부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자신들의 고통으로 여긴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이것을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유대에 사는 신도들이 기근으로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 이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각각 자기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하여 구제 헌금을 드리고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장로들에게 보낸 것이다.

넷째, 안디옥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였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교회의 신자들을 비방하거나 조롱할 때 쓰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였다.<sup>154)</sup> 이런 호칭 사용에서 안디옥 교인들은 안디옥의 타락한 문화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과 믿음을 온전히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153)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2), 54-55.

154) Harrison Everett,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 신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0), 336.

### 3. 빌립보교회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인구의 대 부분은 헬라인이었고 퇴역한 로마 군인과 그 가족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도시이다. 빌립보는 로마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지고 엑나티아 가도 선상에 놓여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첫 열매인 루디아와 빌립보감옥의 감수와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이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오래 묵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향해 떠났지만 빌립보교회는 몇 가지 점에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첫째, 빌립보교회는 복음전파를 위한 열심에 변함이 없는 교회였다.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라는 말씀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빌립보교회는 갈라디아교회나 고린도교회처럼 내부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물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 4:2)의 말씀이나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 빌립보교회에도 사소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빌립보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전파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도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했다.

둘째, 복음전파를 위해 재정적으로 최대한의 후원을 한 교회였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사업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바울을 도왔다. 현대 교회가 선교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망설이게 되는 요소는 역시 재정문제이다. 자신들의 교회가 재정이 든든할 때까지는 선교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빌립보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선교를 위해서는 힘닿는 데 까지 협력하는 교회였다.

셋째, 구제에 앞장선 교회였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선물을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냈다. 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도 적극적이었다.

## 제 5 장

### 성공적인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모델

이장에서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위하여 성공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 성장을 최우선 과제를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보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더 많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교회는 이미 80년대 중반에 성장이 멈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들이 성장하는가? 교회 성장 연구원을 통한 많은 세미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는 성장한다. 성장을 위한 선교라기보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즉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하시고 명령하신 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이다.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교에 온 힘을 기울여 성장한 교회를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제 1 절 전주 안디옥교회의 성장사례

전주 안디옥 교회는 한국교회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한 좋은 모델이다.

##### 1. 교회 설립이념과 목적

전주 안디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동휘 목사는 1983년 3월 27일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설립목적을 선교에 두었다. 전주시 개발지구에 600만원의 전세금으로 콘셋트 건물을 임대하여 첫 예배를 드렸지만 그 때부터 선교를 했다. 땅 한 평,



소유건물 하나 없을 때도 선교하는 교회의 출발이었기에 선교만은 중단 없이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해 온 교회이다. 따라서 모든 조직을 선교에 맞추어 운영해 나간다. 전주 안디옥교회는 이 목적을 교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매 주일 주보에 선교를 위한 7개의 실천 강령을 실고 있다

- ①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도가 된다
- ② 본 교우는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선교원 (선교사)이 된다.
- ③ 주는 교회가 되어 해외 선교와 농촌 선교 및 특수 선교에 주력한다.
- ④ 교회 재정의 60퍼센트 이상을 선교사역에 사용한다 (십일조, 선교헌금 등).
- ⑤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모든 봉사직은 자발적이며 희생,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⑦ 교회의 모든 사업과 집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력한다.

위의 강령에서 볼 수 있듯이 전주 안디옥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위하여 교회 모든 행정체제를 선교위주로 갖추고 모든 교인들을 선교에 동참시킨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게 되어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 재정의 60퍼센트 이상을 선교사역에 사용하는 교회가 300여 교회가 넘는다고 한다.

## 2. 전주 안디옥교회의 선교사역들

### ① 선교사 훈련원 운영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 전형한 후 본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시킨다. 4개월간의 국내 훈련 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본회 선교사 훈련원 (M. T. I)에서 10개월 과정으로 훈련시킨다. 필리핀 선교사 훈련원은 1987년에 개원했다.

### ② 선교사 파송 및 지원

현재 바울 선교회 파송된 선교사는 32가정, 53명이다. 63명 선교사를 협력하고 있다.

### ③ 목회자 훈련원 운영

원주민 목회자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두 곳을 운영 중이며, 각 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목회자 훈련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3년 기간으로 정해

서 매월 1주간씩 훈련하고 있다.

④ 교회개척: 바울 선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으로 각국에 100개씩이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필리핀은 2,3년 사이에 100개 교회설립이 완성될 전망이다. 세계 1,000교회 개척운동을 벌이고 있다.<sup>155)</sup>

#### ⑤ 국내선교 및 농촌선교

안디옥교회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선교에도 열심이다. 미 자립 교회 교역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농촌선교를 운영하고 있다.

#### ⑥ 특수 선교

어린이 가장, 장애인, 교도소, 갱생원 등 특수 지역과 기관들에 대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바울선교회 소속교회 중 상당수가 장애인 복지관을 마련하여 장애자의 생활에 안정을 주고 있다.

### 3. 안디옥교회의 선교 교육 현황

온 교회로 하여금 선교 정신으로 무장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선교 정진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① 목회 서신을 통해 교인들에게 꾸준한 선교의 협력을 가르친다.

② 선교 현황 전시: 교회당 뒤편에 우리교회 선교사역, 지원 선교사 내역 등을 항상 게시하여 언제든지 교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선교를 상기하도록 하고 기도하게 한다.

③ 선교사의 기도편지 등 선교자료 전시: 역시 교회당 한쪽에 선교자료를 전시해 놓으므로 선교에 관한 정보 및 지식을 흡수하도록 유도한다.

④ 선교 헌신자 기도모임: 매월 첫 월요일 밤에 선교 헌신자 기도모임을 갖는다.

155) 이 외에 안디옥 교회의 해외선교사역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과 홍콩에서 수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경 통신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 국영방송을 이용하여 하루 30분씩 복음방송을 실시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제자양육, 보건사역 등 여러 가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 필리핀 바귀오시에 한국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초등 학교를 설립했다. 점차적으로 필리핀 학생들도 입학시킬 계획이며, 필리핀 롬블론에 “중앙신학교”를 설립하여 신학생을 양성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에 태권도장을 운영하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있다. 바울관 운영하여 선교사의 안식년 및 휴식을 위해 제주도에 설립하였다.

⑤ 선교사 지원을 권유: 선교 현장을 돌보므로 단기 사역 및 선교 방문을 통해 선교사의 사명을 깨닫게 한다. 대학생 수련회나 일반 교인 수련회를 선교지에서 갖는다.

⑥ 선교지 발행: 바울 선교회에서 발행하는 선교회지를 통해 선교의 정신과 구체적 선교현황을 파악하게 하고 선교를 구체화시킨다.

⑦ 선교사들에게 편지 쓰기: 어린이, 중 고등학생, 개인들이 선교사들과 서신교환을 하므로 더욱 선교를 감각케 한다.

⑧ 선교사들의 선교보고: 선교사들의 교회 방문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⑨ 금요 철야 기도회 등 각 기관모임을 통해 선교기도: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선교사 및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한다.

⑩ 각 기관은 선교비를 바치도록 한다: 자체 운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각 남녀 기관에서도 선교비를 교회에 헌금토록 하여 모두 선교에 관심을 두게 한다.

⑪ 선교대회: 매년 3월에 “선교의 날” 행사를 통해 선교인식을 한층 더 강하게 한다.

⑫ 주보를 통해 매주 각국 선교 상황 소개: 아음 주일에 드릴 헌신 예배 선교기관을 위해 그 기관의 이름을 가진 나라를 주보에 소개하고 기도제목을 알리므로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선교 관심을 언제나 갖도록 한다.

#### 4. 선교 한국을 위한 담임목사의 제언

- ① 젊은 사역자들은 선교사로 진출하라.
- ② 적은 돈부터라도 도우라 .
- ③ 선교 회원을 모집하라.
- ④ 각 기관으로 선교하도록 하라.
- ⑤ 팀 (Team)선교를 하라.
- ⑥ 당회만 승인하면 과감히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하라.
- ⑦ 기존 교회 예산을 수정하라.
- ⑧ 24시간을 주께 바치라.

이상과 같이 전주 안디옥교회는 철저한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하는 교회이다. 처음부터 선교로 시작된 교회로서 교회 재정의 60퍼센트를 선교에 지출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번도 선교비 지출의 중단이나 지출의 축소시키자는 여론이 없었다고 한다. 교회재정의 60퍼센트를 선교비로 지출하면 교회부흥을 위한 투자가 적어 부흥이 저조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주 안디옥교회가 얻은 결론은 돈은 교회성장에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선교함으로써 교회는 성장한다는 사실을 온 한국교회에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에도 앞장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전주 안디옥교회는 계속 성장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sup>156)</sup>

## 제 2 절 동신교회의 성장사례

대구 동신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 초창기부터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열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대구, 영남지역의 대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다.

### 1. 동신교회의 설립 이념과 선교역사.

동신교회는 1950년에 설립된 교회이다. 동신교회 설립의 가장 큰 요인은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논쟁이었던 보수와 진보의 사상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밀려오는 진보주의 신학에서 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개척된 교회이다. 그러므로 동신교회의 설립은 한국 교회사에서 보수주의 신학에 입각한 바른 장로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출발이었으며, 한국 교회의 보수신앙 회복에 선각자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sup>157)</sup>

15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한국교회 비전과 협력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2), 468-480.

157) 동신교회의 당회록 서평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한국교회사에 불망사인 1950년 1월 25일 (수) 밤 대한교회 사건 (신신학 주의자 등단건)으로 인하여 역사 있는 대한교회는 불가불 분열되었다. 합

동신교회의 세계 선교의 역사는 1972년 제 3대 담임목사인 김창렴 목사가 부임해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원래 선교사로 나가기를 헌신했던 김 목사는 자신을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다. 37세의 나이에 동신교회에 부임하여 아직까지는 세계 선교의 황무지와 같은 시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 6:33)는 말씀을 붙잡고 27년 동안 꾸준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면서 기도와 물질로 “주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에 순종해 왔다.

현재 동신교회는 대지 10,000여평 위에 웅대한 성전과 기도원 및 교육관 시설을 갖추고 장년 교인이 1,500여명 이상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으며 2,000명 가까운 주일학교 학생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는 대 교회로 부흥 성장하고 있다.

## 2. 동신교회의 선교사역들

### 가. 동신 세계 선교회 조직

동신교회는 선교라는 지상 대 명령을 준행 하기 위하여 먼저 세계 선교회를 조직하였다. 1973년 3월에 동신 세계 선교회가 조직될 당시 동신교회의 규모는 과연 우리가 선교를 담당해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교회였다. 우선 예배당에 의자도 없어 그야말로 다다미를 깔고 예배를 보아야 하는 초라한 교회였다. 교인수도 200명이 조금 더 되는 지극히 작은 교회였으며, 많은 교회가 경험하듯이

---

법적인 분립 아닌 입장에서 노회의 선처만 대망 하였던 바 사건은 점점 복잡성을 띠게 되어 당회를 소란케 할 뿐 원만한 귀결을 짓지 못하고 대한교회에서 나온 뜻 있는 신자들이 안중호 장로 방에서 서도환씨를 전도사로 모시고 수개월간 눈물겨운 집회를 하여 오면서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짓지 못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1950년 12월 경북 정기노회시 안중호 장로 이하 7인의 명의로 교회 신설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바 선히 허락을 받아 김삼대 목사를 청하여 대구 동인동 199의 5, 귀속재산 대지 80평 건평 23평인 주택을 명도 받아 집회하게 된 바 신의 도와주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이어서 예배당을 증축 (20여평)하여 7월 노회시 장로 6인 청원 허락 및 김삼대 목사 임시목사 청원 허락과 아울러 동신교회란 명칭 청원허락 등을 받아 1951년 8월 12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를 선거하기로 결정하고 회원 (세례인)을 정리 하니 아래와 같더라 (이하생략)

전임 교역자와의 아픈 과거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시급한 문제가 교회 내의 아픔을 봉합하고 당장 필요한 교회의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할 시점에 서 있었다. 그러므로 선교라는 사역에까지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교인들이 선교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당시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지역 전도가 더욱 급한데 왜 멀리 외국에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이렇듯 선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 전도에 대한 필요성이 결핍되어 있고, 당연한 결과로 선교에 대한 정보는 무지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쉽다.

#### 나. 선교 훈련원 운영

동신교회는 1988년도에 지금까지 준비하고 경험해 온 선교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 영남지역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하기 위한 평신도 선교 훈련원을 개원하였다. 목회자 선교사만 파송되던 선교전략에서 이제는 성경적 선교관에 입각해서 수많은 평신도들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파송할 수 있는 전략에 따라 훈련원이 개원된 것이다.

선교에 도전을 받은 많은 평신도들을 위한 훈련원이 대구 영남지역에는 없었다. 변변한 선교 훈련원이 없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 많은 선교 후보생들이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동신 평신도 선교 훈련원이 개원되면서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아 왔다.

#### 다. 선교사 파송 및 지원

동신교회는 지금까지 파송한 선교사는 전담 선교사가 8가정이며 총회 세계 선교회, 한국 해외 선교회, 제자들 선교회, 필리핀 신학교, LMTC, 베트남 선교회 등 여러 기관 선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협력 선교사가 14개국에 18명이 사역하고 있다.

#### 라. 국내 선교 및 북한 장애인 선교

동신교회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의 개척교회를 각 기관이 분담하여 돕고 있는데 22개의 개척교회를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 선교와 장애인 선교에도 상당한 관심과 협력을 하고 있다.

#### 마. 사랑의 집 운영

동신교회에서는 93년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무료 급식소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 생활 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국민자, 소외된 자를 위해 매주 월-목 4회에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98, 11, 5일부터 이전에 평리동 아동 청소년 상담소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동신교회 지하 식당으로 이전, 개원하면서 다음 목적을 부가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급변한 경제 위기를 맞아 실직 및 독거노인, 주변 경로당을 상대로 주 1중식을 무료 제공하고 식사 30분전 담당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집 교사 팀에서 친교의 시간을 통해 교제를 나눈다.

### 3. 동신교회의 선교 교육 현황

동신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가지도록 여러 가지 선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① 매달 첫 주일에 선교 헌신예배를 드린다.
- ② 교회에 선교 현황판을 작성하여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다.
- ③ 선교사들이나 선교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기별 선교 세미나를 가진다.
- ④ 선교 위원회로 하여금 선교단체나 선교기관을 탐방하게 한다.
- ⑤ 기간별로 선교사를 배정하여 후원하게 한다.
- ⑥ 청,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선교를 실시한다.
- ⑦ 선교회지를 발행한다.

⑧ 선교 위원회에서 선교분과를 설립하여 각 분과마다 다른 선교지를 배정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4. 동신 세계 선교회 사역 분석

##### 가. 선교헌신 및 훈련

###### (1) 선교사들의 선교헌신

동신 세계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세계 선교에 자신들을 헌신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숫자가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도와 소명, 수련회 때 서원, 혹은 부모님의 서원, 선교현지 경험을 통해서, 선배 선교사들이 권면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대답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을 여러 가지 선교대회 즉, 선교 한국이나 선교 대구 등의 선교 대회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으며, 교회에서 말씀과 교회 교육을 통해서 지상 명령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또 선교지에 비전 트립을 보내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도 선교사들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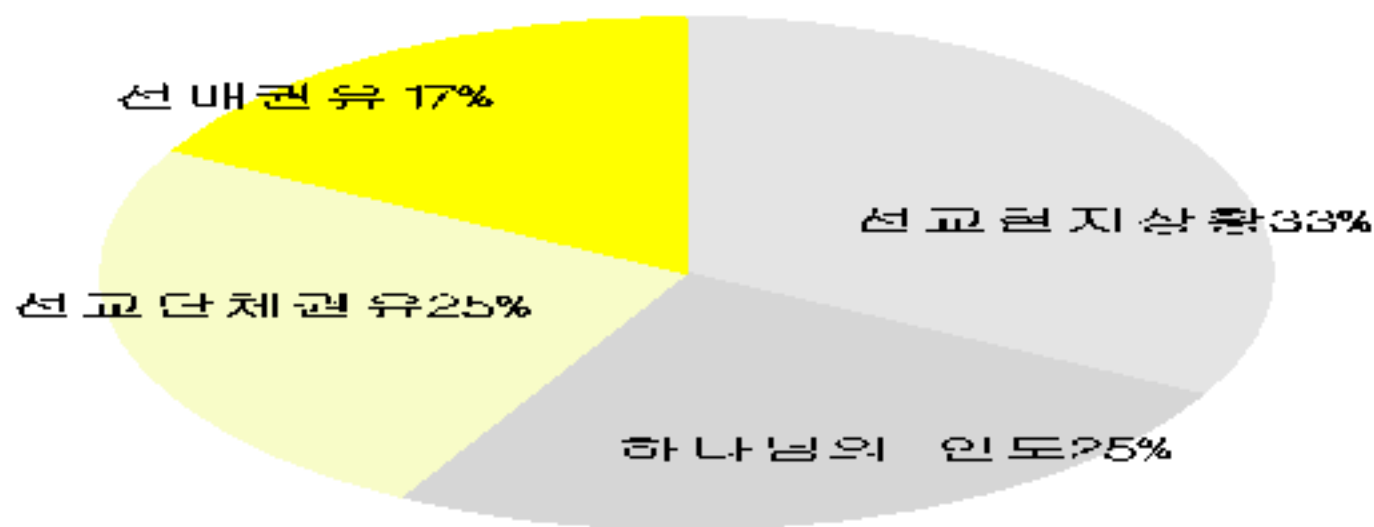


그림 1 선교지 헌신<sup>158)</sup>

###### (2) 선교 훈련

작금 한국 교회에서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열기는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반

158) 그림 1-8은 동신 세계 선교 요람에서 인용한 것임.



면, 교회 성장은 마이너스 선으로 하향하고 있다. 교회 성장의 둔화와 함께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참여의 쇠퇴를 걱정하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교파를 초월한 거의 모든 교회가 형태나 내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타문화권 선교를 당연하게 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선교사 파송 숫자는 급작스럽게 증가되는 것과 비례해서, 선교의 질과 숙련 도를 비판하는 지적들이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159)</sup> 파송받은 선교사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선교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타문화권을 얼마나 인지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가 라는 말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그럼으로 선교사가 어떤 선교기관에서 어떤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되었는가 하는 것은 선교의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신 세계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전문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되었으며 주로 교단 선교 훈련원(MTI)과 국내 선교 훈련원(GMTC, GPTI) 그 외에도 WEC, MOC, ANCC 등의 국제 선교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파송되었다. 선교는 단순히 뜨거운 가슴으로만 되지는 않는다. 최찬영 이야기에서 보여주듯이 뜨거운 가슴과 함께 머리 즉, 고도의 선교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훈련을 받게 하고 선교지에 파송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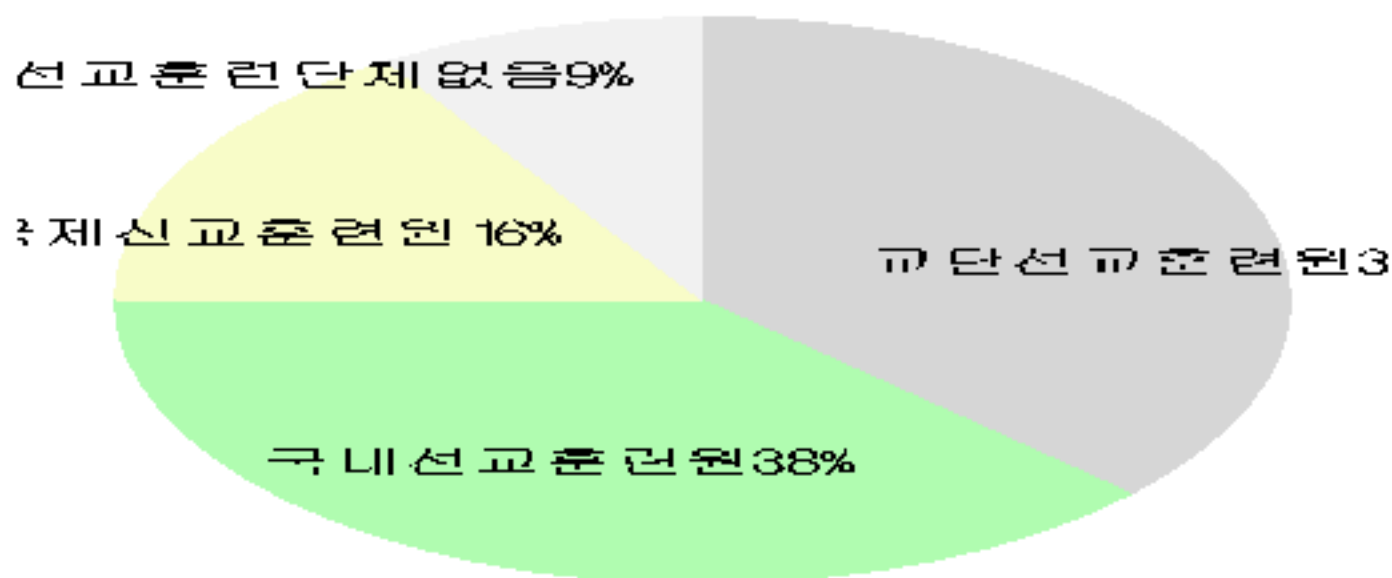


그림 2 선교 훈련

159) 정민영, 21세기를 향한 한국 선교의 비전 (서울: 한국 기독학생회 출판부, 1996), 193.

## 나. 선교지 선정과 사역형태 및 언어

### (1) 선교지 선정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세계가 부르고 있으나 막상 가려고 하면 그렇게 선교지가 많이 열려 있지 않고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동신 세계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은 숫자가 선교지 상황을 먼저 고려해서 선교지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로, 선교단체의 권유, 선배의 권유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후원교회의 요청으로 선교지를 선정한 선교사도 있고 또는 사역 목적과 정보 분석 후 현지 방문을 통해서 선교지를 선정한 분들도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선교지의 부르심 때문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의외로 교회가 선교지를 선정해 놓고 요청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전도 종족의 선교지를 개발하면서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는 미흡함으로 선교하는 교회로서 앞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선교지를 개발하고 그 종족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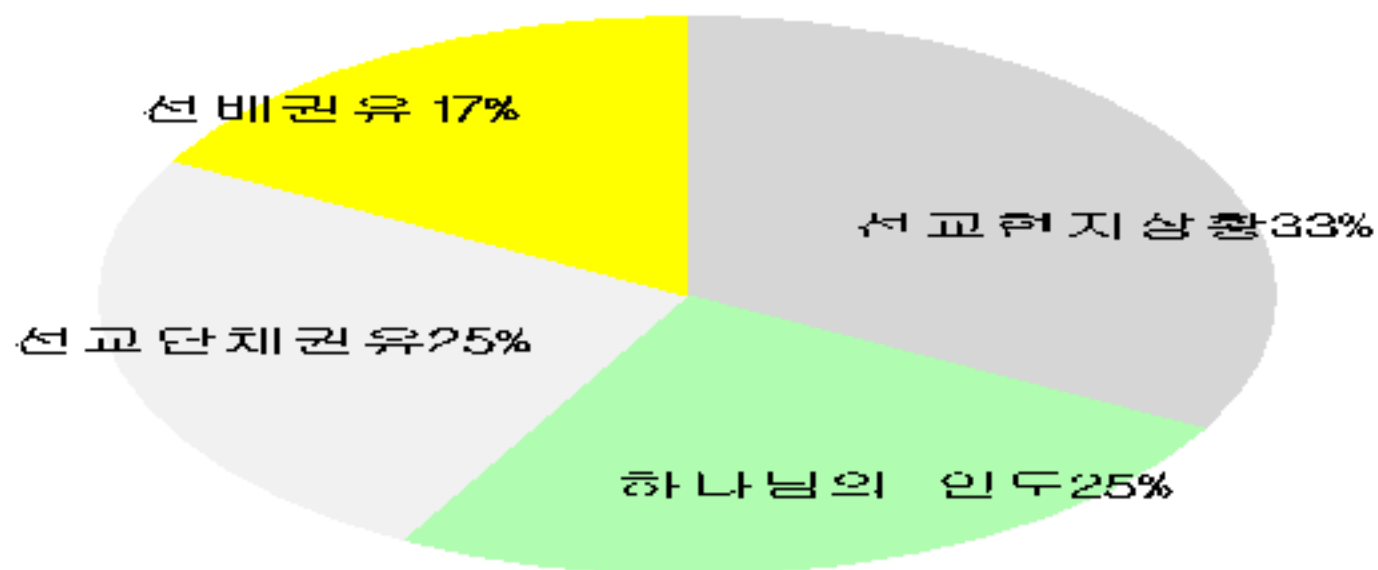


그림 3 선교지 선정

### (2) 사역 형태

동신 세계 선교회에서 파송, 혹은 협력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형태를 살펴보면 교회 개척을 하는 선교사가 22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신학교 사역인데 특히 필리핀 신학교 사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 신학교 사역은 동신 세계 선교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도자 양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제와 개발 사역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역 형태를 통해서 파송, 혹은 협력하는 선교사들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의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교회 개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아서 여전히 보수적인 선교방법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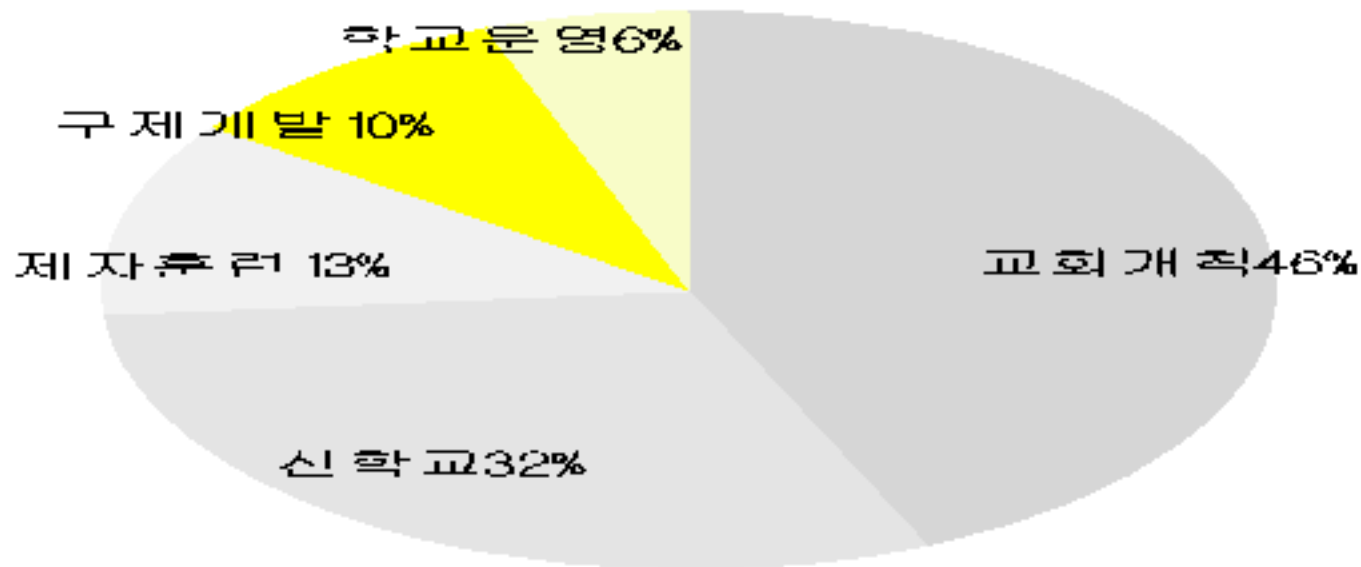


그림 4 사역 형태

### (3) 언어

우리 선교사들이 주로 사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는 현지어를 사용하는 선교사가 가장 많고 영어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그 다음으로 많다. 선교사들이 현지어를 배워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선교사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현지어를 가르치는 선교사도 있다. 결국 현지인 중심의 장기 사역들 하려고 할 때 현지 문화를 알아야 하고 현지 언어를 습득해야만 바람직한 사역을 할 수 있다. 동신 세계 선교회의 선교사들의 대 다수가 현지언어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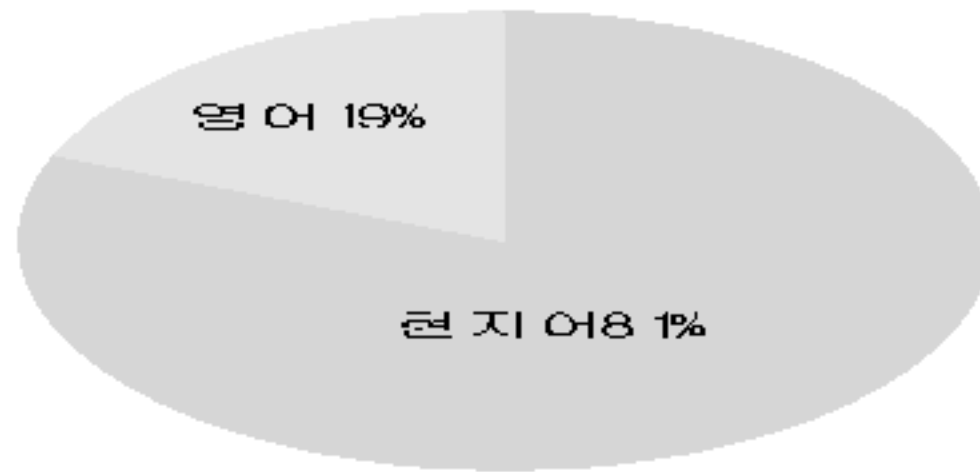


그림 5 사역 언어

#### 다. 팀 사역 및 후원비 사용

##### (1) 팀 사역

누가 한국인을 모래알에 비유하였다. 하나 하나를 두고 보면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두 알도 함께 뭉칠 수 없는 모래알이다. 한국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는 우수한 선교사들이나 팀 사역에는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 사실 한국인들의 선교 현장은 협력과 동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조화보다는 분열과 싸움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감출 수 없기도 하다.<sup>160)</sup> 초기의 한국 선교는 선교사들이 수적으로 매우 소수였기에 어느 선교지에 누가 파송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한국 선교사가 5,000여명 이상 되므로 이제는 성경의 원리나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팀 사역이 요구되고 있다. 선교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개교회주의, 교단주의, 등을 과감히 탈피하여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매진해야 할 때이다.

동신 세계 선교회의 선교사들의 대답을 보면 대 부분의 선교사들이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아직까지 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팀 사역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나타났다. 한국적 병폐로만 여겨졌던 개인

160) 정민영, 21세기를 향한 한국 선교의 비전,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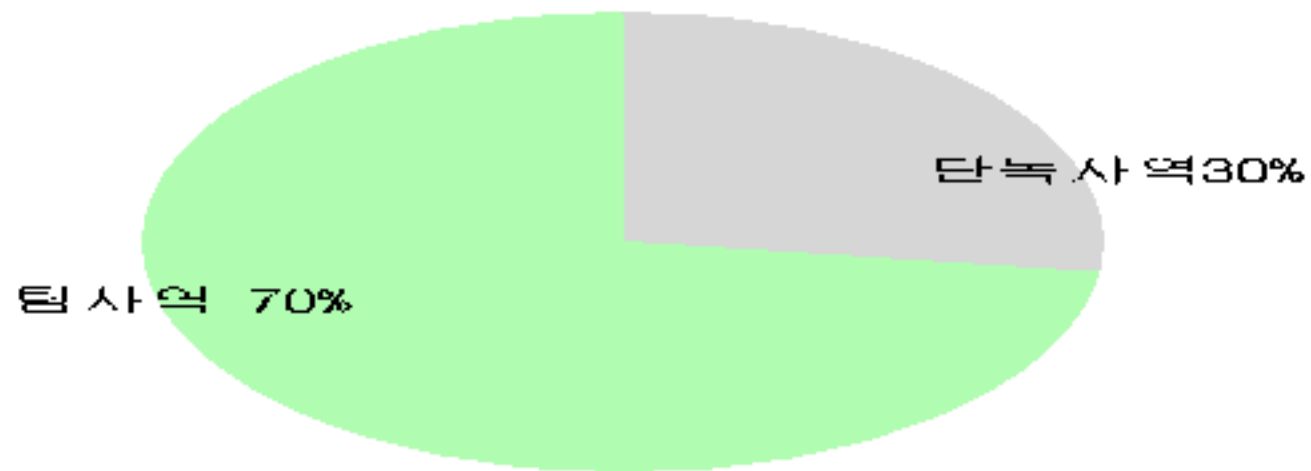


그림 6 팀 사역 여부

주의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팀 사역이 각 선교지에 하나 돌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2) 후원비 사용

동신 세계 선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는 먼저 생활비로 41퍼센트 정도가 지출되고 다음으로는 사역비로서 32퍼센트가 지출되고 있다고 선교사들이 보고를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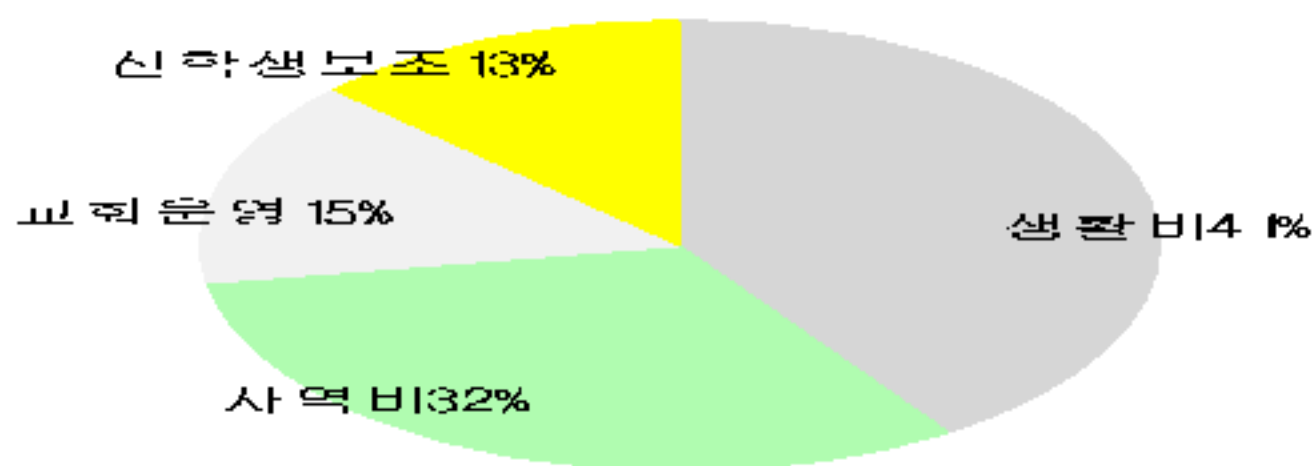


그림 7 후원비 사용

다. 교회 운영비로 15퍼센트, 신학생 보조가 13퍼센트 순으로 지출되고 있다. 현지에서 선교사들의 생활비가 많이 지출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집세인데 지역 교회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면 선교비의 더 많은 비중이 사역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라. 사역 장애물과 기도제목

### (1) 사역 장애물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사역할 때 그들의 사역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지 상황 즉, 현지의 종교나 정치 형태 등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현지인 사역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파송교회의 선교 인식 부족이 선교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보고를 요구하는 파송교회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 이것은 선교지에 대한 파송교회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 선교 인식이 선행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교회의 무관심 또한 선교의 무서운 적이다. 선교사들과 파송교회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 유지를 통해서 선교사 혼자 선교지에 악전고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선교사들의 기도제목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우리들의 선교사들이 지역 교회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자신들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또한 선교지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과 종교 제한들을 위한 기도도 못지 않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선교사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 복음 전파의 열정을 위한 기도, 팀 사역을 위한 기도 등 선교사들에게는 많은 기도제목이 있다고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볼 때 너무 선교사와 그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범위를 넓혀서 그들의 사역과 그 선교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특별히 영적 전투와 팀 사역을 위한 기도도 많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하는 교회가 선교지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그에 맞는 기도로 후원해야 한다. 그러나 대 다수의 교인들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는 하지만 피상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적극적인 기도로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처한 환경과 선교 전략을 온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적극적인 기도로 후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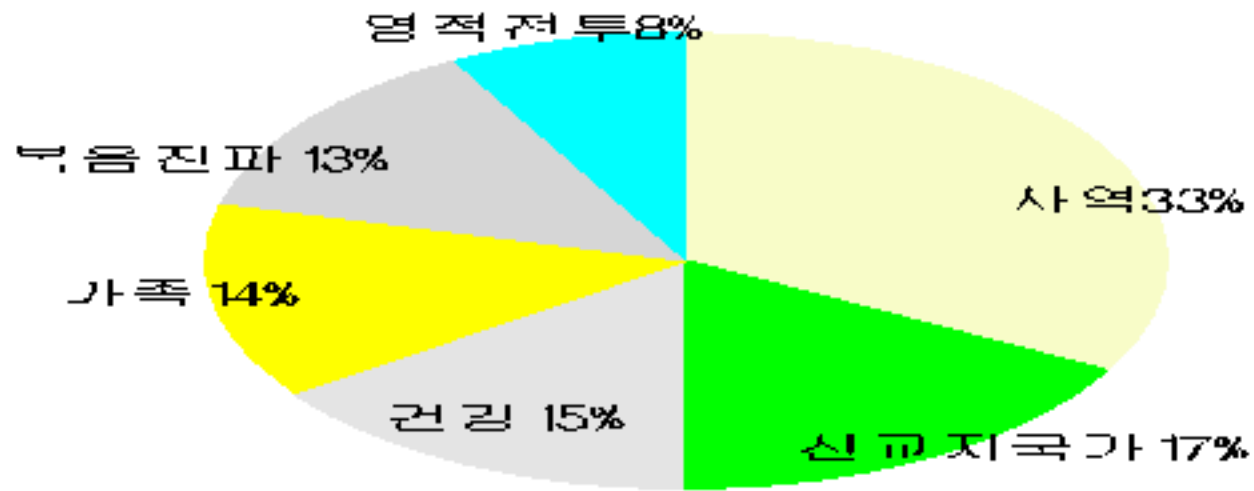


그림 8 기도 제목

### 제 3 절 두 교회의 목회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양 교회의 성공적인 선교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 ① 선교를 목회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 ② 모든 교회의 행정을 선교 중심으로 운영한다.
- ③ 확고한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다.
- ④ 목회자의 뚜렷한 선교관이 있다.
- ⑤ 전 교인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 ⑥ 선교 교육을 철저히 한다.
- ⑦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꾸준한 정책 개발과 선교사 후원에 열심이다.
- ⑧ 선교에 헌신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 제 6 장

### 선교에 대한 전략개발

#### 제 1 절 선교 의식 개발

##### 1. 교역자의 선교 의식 개발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출발점은 교역자의 선교 의식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성장 위주의 목회에서 선교위주의 목회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이다. 실제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는 교회가 복되다는 말과 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거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교가 교회 성장의 도구는 아닌 것이다. 교회성장을 위한 선교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선교가 교회개혁과 성장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해도 그것들이 선교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선교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고 성장하는 기구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도구인 것이다. 교회성장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이차적인 것이 일차적인 것과 대치되는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회가 선교를 교회 성장의 한 방법론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장식적인 기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선교는 교회의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자기 교회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목적과 활동을 바라보지 못한다. 선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전 세계를 위한 그분의 목적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우리 자신과 세계에서의 우리의 목적에 대한 개념에도 아울러 영향을 받는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선교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목회의 본질인 목회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과 목회에 있어서 방법이 다분히 인본주의적이라는 점이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교역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위험은 성장 위주의 목표와 기존 목회자들의 일상 작업을 답습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직면한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목회의 목적의 문제이며, 그들의 목회 사역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있다고 한철하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sup>161)</sup>

김명혁 교수는 한국 교회의 신앙 상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실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신앙 상의 모든 관심을 한 개인이나 또는 자기 교회에만 두는 것으로서, 예수 믿는 것도,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자기 개인이나 자기 교회에 어떤 도움이나 유익이 있을까 하는 점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sup>162)</sup>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은 선교 안목을 상실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김성태 교수는 말한다.<sup>163)</sup>

교회의 존재이유를 선교에 두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의 의식이 목회 중심에 선교 지향적인 사고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목회의 제일 순위가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19절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 수행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 성장의 한 방편으로서의 하나인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가 바로 선교를 위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161) 한철하, "요한칼빈의 목회신학," 아신 3 (1988): 30.

162) 김명혁,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83), 271.

163) 김성태, "성장의 유형별 분석과 선교적 성장모델," 목회와 신학, 1993년 7월호, 75-76.

그는 선교하는 교회의 성장 유형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다. 선교를 목회사역의 장식적인 기능으로 보거나, 일종의 경향에 휩쓸려 교회적 체면치레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선교에 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타문화권 선교에 경험 부족과 무지로 인하여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교회의 선교 정책 등이다. 즉 선교는 보냄을 받은 전문적인 의미의 선교사만이 행하는 특수사역으로 인식되어 선교에 방관자가 되며 형식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극단적인 예로서 국내 전도사역과 국외 타문화권 사역을 지나치게 이원화시켜 선교는 마치 국내에 있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국외에서의 일로 간주하여 선교사 자신도 이런 19세기적 이원화 선교 개념에 사로잡혀서 선교를 이해하는 일이다.

교회의 사명을 예배, 선교, 봉사, 교육, 친교라고 말하는데 예배, 봉사, 교육, 친교는 궁극적으로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사명은 사실 목회를 통해 움직여지는 것이며 특별히 이 사명들 중에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라고 볼 수 있다. 선교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목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Alvin Lingren은 '교회 개발론'에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 사명에 관해서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셋째는 구속적 사랑의 친교로서의 교회이다.<sup>164)</sup> Alvin Lingren이 말한 이 세 가지 주제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sup>165)</sup>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역자의 선교에 대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먼저 개발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음은 곧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빛진자라는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바울의 빛진자의 의미는 구원에 대한 빛을 쬐다는 말이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항상 그 은혜의 종착역이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sup>166)</sup> 바울과 같은 이런 구원의 빛진자로서의 소명이 곧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 교역자의 선교에 대한 의식은 바로 목회 일선에서 현실화 되어져야 한다. 이럴 때에야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164) Alvin Lingren, 교회 개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35.

165) 최건호, "바람직한 교회제도와 조직," 활천 397 (1982): 25.

166) 김세운 교수는 바울의 이방인들에 대하여 빛진자라는 부분을 갈 1:15-16에서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소명을 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바울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나를 용서하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의 아들을 계시한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그 아들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한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명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신본주의적 관점이 철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크리스천 리더쉽의 모델로서의 바울," 목회와 신학, 2000년 9월호, 78-79. 더 자세한 것은 김세운, 바울복음의 기원을 참고하라).

오늘 한국 교회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처럼 휩쓸었던 교회 성장학의 방법을 적용하여 많은 수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성장학의 방법론이 오히려 퇴조하고 교회의 위기론 까지 대두 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 선교를 교회에서 시도해 보는데 이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교는 단 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충격제는 결코 아니다. 비록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이 늦다 하더라도 꾸준히 선교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목회방향이라 생각된다.

## 2. 평신도의 선교 의식 개발

평신도는 헬라어의 '라오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그 뜻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3세기 속사도 시대에 카르타고의 키프리안 (Cyprian)감독이 성직 계급과 구별하여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sup>167)</sup> 평신도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다. 실제로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소수의 교역자를 제외한 교회의 99퍼센트에 속하는 성도들을 말한다.

James Kennedy 목사는 "성직자들만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상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이단이다."<sup>168)</sup>이고 했다. 지도자는 숨겨진 평신도 지도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은사를 개발하여 복음전파를 위한 사역을 하게 해야 한다.<sup>169)</sup>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에 대해서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이다. 교역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들 모두가 머리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 이 소명을 위해 성령은 각자에게 분수에 맞는 은사를 주어 몸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다하게 하신다."고 말한다.<sup>170)</sup> 성경은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

167) 강승삼, 21세기 선교의 길잡이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120.

168) Wagner,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32에서 재인용.

169) Ibid 이점에서 Wagn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평신도들에게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조직방법과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길을 알아야 한다." 그는 계속하여 "만일 평신도들이 하나님과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면 목회자의 활동분야도 그만큼 분담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170)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한국교회 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2), 508.

음을 전할 새” (행 8:4)라고 기록한다. 바로 이들 흠어진 평신도들에 의해 복음은 힘 있게 증거 되었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다.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어느 사도들과 못지 않은 전도자였다.

초대교회 이후 계속해서 수많은 평신도들이 선교사로서 혹은 전도자로서 혹은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였다. 선교역사를 볼 때 평신도 선교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볼 수 있다. 18세기의 모라비안 교회의 경건주위 운동은 평신도들의 자비량 선교운동이었다. 그들은 다섯 명만 모여도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만큼 평생 선교운동을 위해 살았다. 미국의 근세 선교운동 또한 학생들의 건초더미 기도운동으로 시작되어 수백, 수천, 수만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현재도 서구 선교사들의 대다수가 평신도 선교사들이다.

한국 교회 선교역사를 살펴보면, 목사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보조 사역자도 함께 보내서 팀 사역을 하게 했다. 예를 들어 1907년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를 파송했는데 실제로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었다. 권서인, 단기 학생팀 등을 함께 보내서 보조 사역자로 활약하게 하였다. Allen 선교사도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사역했다.

교회의 일이 성직자 중심이 된 것은 중세 기독교의 산물로 보여진다. 목사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일을 해 서도 안 된다. 현재 57억의 인구 중 약 19억이 기독교 인구이다. 이들 중 천주교, 각종이단 등 모든 기독교적 색채를 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7억 5천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중에 약 400만 명은 전임 사역자들이다. 그렇다면 활성화 될 수 있는 평신도는 7억 4600백만 명이다.<sup>171)</sup> 1989년 마닐라대회에서 I.V.M.회장 Pete Hammond는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는데는 평신도가 동원되어 참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sup>172)</sup> 이처럼 교회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평신도들을 어떻게 선교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교회는 안고 있다.

21세기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을 발굴하고 훈련하여 저들로 하여금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전권대사이다’는 사명을 고취시켜 복음전선으로 보내야 한다.

현대의 선교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할 일꾼을 필요로 한다. 과거와 같이 목사 중심의 선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에 평신도들의 참여가 그 어느

171)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세계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도서출판햇불, 1996), 345.

172) Ibid., 326.

때 보다 절실하다. 평신도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선교사의 직함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죽어 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역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목회자와 더불어 협력선교의 일선에 서야 한다. 목회자가 선교에 대한 의식이 아무리 개발이 되고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평신도들의 호응이 없으면 선교적인 목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의 의식구조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기도가 필요하며,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평신도들에게 선교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첫째, 평신도들에게 선교의 전반적인 부분과 평신도 선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평신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적인 바른 선교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평신도 선교사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도전을 주어야 한다.

둘째, 평신도들에게 그들의 직업에 소명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선교사란 타지역과 타문화권에 성령과 교회의 보냄을 받아 (행 13:1-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평신도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평신도 선교사가 타문화권에서 전문 직업이나 다른 직종에 종사한다고 해도 선교사의 소명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목사만 소명을 받은 자요, 교수나 목수라는 직업은 복음 운동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가치 없는 직업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가 택한 직업이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양심에 거리끼는 직업이 아니라면 바로 그 직업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직업이라는 확신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한다.

셋째, 파송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들에게도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선교 명령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내가 속한 사회와 전 세계 속으로 파송을 받은 하나의 선교사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초대 교회 평신도들과 같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 사도적 증거와 봉사를 위해 분산하여 스며들어가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교회와 선교 협의회를 통해서 평신도들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평신도 선교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선교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후원하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인식시켜 주며 선교지에서의 정보와 선교사 사역을 소개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모두가 동참하게 해야 한다.

선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손에만 맡겨 있는 것이 아니다. '나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는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원 교회의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 없이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서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에 남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라 할 지라도 세계 선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들도 역시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 혹은 부모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는 평신도들의 선교적 역할을 중대하기 위하여 평신도 자신이 직접, 간접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하고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평신도들의 선교 의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 제 2 절 선교 교육 정책

### 1. 선교 교육 정책의 필요성

선교 지향적인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교육이다. 개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방법은 선교 교육을 통해 가능해 진다. 선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선교 교육의 필요성은 올바른 동기를 갖고 선교하기 위한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코 개인이나 교회의 이름을 내거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가는 선교사뿐 아니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도 자신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자의식 있어야 한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선교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한다.

셋째, 훌륭한 선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선교 교육이 필요하다. 훌륭한 선교사는 지역교회내의 양질의 자원이 선교 교육을 통해 배출되어야 가능하다. 선교 훈련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적 세계관과 제자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선교와 후원을 위해 선교 교육이 필요하다. 선교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선교사역을 오도하거나 선교사를 낙담케 하며 잘못된 길로 유혹할 수 있다. 교인들이 선교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기도와 후원하는 방법이 보다 구체적이 될 수 있으며 흔히 발생하는 선교사와 보내는 교회와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있음으로 인해 선교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되고 선교사도 파송교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소신 있게 사역할 수 있다. 본국의 교회의 선교의식과 수준이 높아져야 선교사가 성숙해 질 수 있다.

교인들이 선교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정관념이다.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 사역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들의 관심과 사명을 개발해 주고, 일 할 만한 현장을 만들어 주지 못한 교회의 태만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과 전략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집중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 2. 선교 교육의 방법론

선교 교육은 결코 단발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일년에 한번 정도 하는 행사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선교의 도전과 비전을 주려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행사의 전체적인 계획과 진행 및 각종 자료 수집, 기도지원 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한 시기가 고려되어야 하고, 실제 프로그램도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 가. 주일학교에서의 선교 교육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까지도 선교를 가르쳐야 한다. 주일학교는 교회의 모판과 같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성공의

열쇠는 주일학교에서의 선교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선교가 5년 10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주일학교에서의 선교 교육에 달려 있다. 미국 교회에서 외국으로 나간 선교사들 중의 많은 수가 12세 미만에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통계가 있다.<sup>173)</sup>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보다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기 원한다면 지금 주일학교에서부터 선교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이다.<sup>174)</sup> 이런 면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선교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일학교에서의 선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세상의 모든 나라 어린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이해시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을 준다.

#### (1) 선교 주간을 이용한 선교 교육

주일학교 1년 계획 가운데 1-2주일을 선교 주간으로 정한다. 이 선교 주간에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선교사 초청하기, 선교사에게 편지 쓰기, 선교현황 전시, 선교단체를 초청하여 선교지 풍물전시, 선교 슬라이드 상영 등이 있다.

#### (2) 게시판을 이용한 선교 교육

게시판은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이다. 선교 교육을 위해 게시판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게시판을 이용하여 선교사들의 현황, 선교소식, 선교사들의 사진, 선교사들의 기도제목, 세계 선교현황,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특별한 교육들을 게시함으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여 관심을 갖도록 적절하게 꾸민다.

173)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세계선교의 비전과 협력, 69.

174) 전재욱 교수는 개교회와 기독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린이 선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선교사 교육을 선교사 훈련원에서 단 기간 받는 것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자질 형성과 준비는 기독교 가정과 개교회에서 유년기부터 받는 교육으로 시작된다. 부모가 가정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에서 한국이 아닌 타민족의 낯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부터, 부모가 낯설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서부터 선교사 교육은 시작된다. 전재욱, “한국교회의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빛과 소금, 1988년 1월호, 68.



### (3) 선교캠프를 이용한 선교 교육

초등학교 5-6학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매년 캠프장이나, 기도원, 농촌지역 예배당을 이용하여 선교캠프를 열어서 여러 가지 선교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선교에 상당한 관심과 도전을 심어 줄 수 있다.

#### 나. 청소년 선교 교육

청소년 시기는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의 확립 시기로 인생에서 중요한 시절이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해 가는 중간기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며 전인격적인 이해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David Watson은 그의 책 제자도 서론에서 서구 기독교의 몰락 원인을 그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외면한 데서 찾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서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절대적으로 무시해 왔기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sup>175)</sup>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 성경공부는 지식 주입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선교 교육을 받은 목회자나 선교사, 교사와 부모의 모델링(modeling)으로 극복할 수 있다. 선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여러 나라들 속에 있는 잃어버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깨달게 하고 자신의 은사와 능력들을 숙고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과 관심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 선교 교육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 지향적인 목회 철학을 보여주어야 한다. 담임목사와 주일학교 교역자는 선교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무엇인지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보여

175) David Watson,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87), 28.

그들은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녔지만 실상은 교회의 자리만 채우고 아무 생각 없이 노래부르며 입맛대로 설교를 듣는 자들이었지 결코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듣는 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요구하며, 말씀에 기초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교회의 청소년 사역은 제자 삼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청소년 지도 교역자를 세울 때도 선교에 관심과 헌신이 있는 자로 선택해야 한다.

둘째, 교사 교육을 새롭게 해야 한다. 교사 선발과 교사 교육에 대한 방법을 지금보다 달리해야 한다. 몇 일간의 교사 대학 참석이 교사 선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과 선교에 대한 기본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선교 현장 체험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성경 지식의 전달이 교사의 책임이 아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교사의 몫이다. 교사들의 선교 비전은 학생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선교 현장 체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역할을 주어 소속감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한다. 자신들이 세계 선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선교적 역할을 통하여 자신들이 선교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임을 충분히 알게 해야 한다. 선교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 (1) 선교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를 통한 선교 교육

청소년들로 하여금 선교 현장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이다.

#### (2) 선교 현황판을 통한 선교 교육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나 후원하는 선교사, 선교단체 등의 선교 소식을 중심한 현황판은 청소년들에게 선교에 관심과 이해를 가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3) 선교 독후감 발표하기

선교사의 전기를 읽게 함으로 선교사의 삶을 배우며, 선교 현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 (4) 선교캠프나 선교의 밤과 같은 행사를 통한 선교 교육

중 고등부에서 선교캠프나 선교의 밤과 같은 행사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안목

을 넓힐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연구한 선교지나 선교단체들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함으로 선교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며 선교캠프 등에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께 헌신하며 결단을 하게 할 수 있다.

#### (5) 단기선교를 통한 선교 교육

여름 방학시 단기선교를 통하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사역지를 방문하게 함으로 선교 현장의 실정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며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다.

#### 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교육

모든 교인들이 선교의 회원이 되어 재정과 기도 및 행사에 참여함과 동시에 평신도나 전문인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 ① 매달 선교 헌신예배를 드린다.
- ② 교회에 선교 현황판이나 선교 전시관을 준비하여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선교지 상황이나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게 한다.
- ③ 선교사들이나 선교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기별 선교 세미나를 가진다.
- ④ 선교위원회로 하여금 선교단체나 선교기관을 탐방하게 한다.
- ⑤ 기간별로 선교사를 배정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한다.
- ⑥ 청,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선교를 실시한다.
- ⑦ 선교회지를 발행한다.
- ⑧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별도로 갖는다. 선교 헌신자와 더불어 매주 1회 정도 특별한 기도시간을 가진다.
- ⑨ 선교 도서를 비치하고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책들과 선교사 전기 등을 구비하여 돌려 가며 읽게 하고 독후감을 교회의 주보나 회보, 신문 등에 게재한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 선교 교육을 실시함으로 전 교인들로 하여금 선교 의식을 고취시키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정책을 꾸준히 개발한다.

### 제 3 절 선교의 구조화

#### 1. 선교 재정의 구조화

선교는 재정과 필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훈련된 일꾼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파송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일 이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선교사가 하는 것이지만 파송교회의 선교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비는 선교 정책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믿음 선교 (Faith Mission)라는 정책 하에 선교를 이끌어 온 OMF 의 Dennis Lane도 “선교와 돈은 서로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Lane, 1990)176)고 했다. 선교 재정 정책은 선교의 성공을 가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꾸준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재정 정책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교회 성장학자인 George Bana는 현재 미국 교회의 헌금 5퍼센트 정도가 전도 사역에 사용되고, 약 30퍼센트가 교회 건축과 유지비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한 적이 있다. 어느 보고서는 매년 약 2조 4천만 원의 막대한 돈이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77) 한국 교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교회 성장의 척도요, 혹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보다 외적인 치장에 더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니느웨의 구원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면서도 햇볕을 가릴 박 넝쿨이 시들자 온갖 불평을 하며 분노했던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하여야 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176) 강승삼, 21세기 선교의 길잡이, 150에서 재인용

177) George Bana, The Frog in the Kettle, 134.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라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98), 34에서 재인용. 저자는 이 책에서 교회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오히려 진정한 투자의 대상은 교회건물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용될 평신도를 미리 훈련시키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이 이 지상에 머물게 되는 시대에 훈련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유능한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화려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할 일꾼이 있는 교회이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평범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녀굴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르웨이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욘 4:10-11).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시급한 것이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박 녀굴에 연연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갱신되는 구조로 바뀌려면 선교를 위한 재정의 구조화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 전통적인 상태에서 지출을 견지하면 과거의 답습이 될 것이고 늘 같은 형태의 목회가 이어진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재정 정책은 경상비부터 먼저 책정되고 그 다음 다른 항목의 예산을 책정한다. 목회에 따른 예산이나 예산에 따른 목회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 따라 선교비 책정이나 선교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가 선교에 열의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재정에 따른 목회를 해야 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는 목회적 측면에서 정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기에 예산도 선교 지향적인 목회적 측면에서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선교 예산 책정은 무엇보다 전체 예산에서 얼마를 선교에 투자하는가 라는 문제보다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 예산을 선교비 중심으로 편성하는데 있다. 이것은 예산의 비율을 높이는데 있다기보다는 선교비에 대한 지출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것이다. 전주 안디옥교회의 경우는 교회 예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선교에 투자하면서도 성공적인 목회와 선교를 하고 있다. 여기에 도전을 받은 많은 교회가 교회 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선교비로 선언하고 시작하였지만 많은 교회가 좌초되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교회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옛날 예산을 수정하지 않은데서 오는 일반 경상비의 과다 지출 등이 선교 장애가 되어서 결국 좌초하게 된 것이다. 기존 교회에서 전체 예산의 얼마를 선교비로 사용한다는 예산 책정보다는 처음부터 교회 예산을 선교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또는 선교비를 일반 예산에 흡수시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특별 예산으로 세계 선교비 항목을 정해 놓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하며 선교비 지출을 연기한다거나 삭감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마다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세계 선교가 교회 건축이라는 문제 앞에서 축소되거나 중단되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정의 구조화를 이루지 못한데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파송 받은 선교사가 선교비에 의존하여 선교활동을 하는데 파송교회나 국가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선교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한국 교회의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지난 한국의 I.M.F 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를 철수 시켰는가는 좋은 예이다. 많은 선교사가 본국으로 철수를 당하였으며 그 중에 철수하지 않은 일부 선교사들은 선교비 때문에 더 이상 선교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양육하여 파송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파송 받은 선교사를 다시 철수 시켜야 할 정도의 선교 재정 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 선교 예산 정책은 선교비 지출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선교사 파송뿐 아니라 선교를 위한 부수적인 일에 따른 재정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귀국했을 경우 주택 마련 문제, 자녀들의 교육비, 그리고 선교사의 재훈련(178)과 노후 대책에 대해서도 선교비 책정이 고려 되어야 한다. 21세기의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예산을 자기 교회에만 투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예산을 전도와 선교에 많이 투자하는 교회여야 한다.

주일학교에 있어서 잘 알려진 선교 재정 정책은 주일 학교를 교회 재정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각급 주일 학교의 모든 헌금은 선교 사역을 위해 드리는

---

178) 선교사의 재훈련은 안식년을 통하여 가능하다. 한국 선교사의 대부분이 70년대 말에서 80년 초에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지금쯤은 안식년을 위해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상당수 될 것으로 추측된다. 선교사의 안식년을 7년 주기로 보면, 현재 인원 (7000명)에서 매년 900명이 안식년 사역을 가지게 되고, 5년 주기로 본다면 매년 1200명이 안식년 사역을 하게 되는 통계가 나온다. 권삼승, "선교사 훈련원의 실태와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1995), 37-53. 선교사는 선교지의 문화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선교사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선교지의 변화 또한 그에 비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선교사의 계속 교육의 형태는 다양하다. 계속 사역하면서 연구 할 수도 있고, 가능한 대로 세미나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안식년에 집중적으로 부족한 면을 연구할 수도 있다. 이 훈련은 대개의 경우, 선교사 자신의 재충전을 위한 훈련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선교를 돌아보고 반성을 통하여 자신의 선교를 정리하는 기간, 앞으로 발전적인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 현장에서 세미나, 수련회 등의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들이 소그룹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개발을 시도하는 무공식 훈련도 있다. 이러한 재교육은 파송교회의 재정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것이다. 이러한 재정 정책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선교의 주역이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기 위해 '헌금'을 주어서 보내어야 한다는 비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주일학교에 드려지는 모든 재정이 선교 사역을 위해 드려지고 교회 건물 유지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고 인식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어린이들이 얼마를 헌금함에 넣든지 간에 그 돈이 직접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선교지로 보내어진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어린이들을 올바른 헌금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다음주에 드려지는 헌금은 전적으로 선교사업을 위해 쓰여진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 2. 조직의 구조화

선교 지향적인 목회는 조직의 구조화를 요구한다.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깊이 인식한 몇몇 지도자들이 초대교회가 한마디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로부터 교회 개척과 성장을 가져온 사실을 깨닫고 선교를 위해 교회의 구조를 갱신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sup>179)</sup>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의 둔화를 보이고 있는 80년대 후반 이래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는 교회는 선교적 구조로 갱신된 교회로 보인다. 교회 성장 전략이나 성장 과시로서의 선교운동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이유와 사명으로서의 선교를 마땅히 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교회의 구조와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 앞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모델로 제시한 전주 안디옥교회나 대구 동신교회, 그 외에도 온누리교회, 남서울교회, 부산 신평로교회, 여수 제일교회 등 많은 교회가 선교적 구조를 이룬 교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주 안디옥교회는 철저히 선교적 구조화된 교회였음을 살펴보았다.

### 가. 조직 구조화의 필요성

일반적인 교회조직 운영은 당회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각 부서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각기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배,

179) 이동휘 외 6명, "복음과 한국교회가 떠오른다," 목회와 신학, 1995년 5월호, 112-126.

교육, 봉사, 친교, 선교 각 분야가 교회의 궁극적 목적인 양 운영되는 교회가 많다. 이런 compartmentalized 된 교회에서는 선교활동은 다른 부서의 필요에 따라 좌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교비도 삭감된다. 각 기관은 자기의 시각과 안목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사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과 안목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부서가 모든 생각의 기초요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교정되기 전에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는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교회를 부인하거나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분화 정제된 교회조직을 선교 지향적 조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 나. 선교 위원회 조직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회의 모든 조직은 여기에 소속되어야 한다. 기존의 선교위원회는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일과 선교사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는 일이 고작이었다. 선교위원회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심장부와 같다. 교회 속에 여러 조직 중 하나의 기관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목회의 모든 방향과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으로 교회 전반에 걸쳐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일은 선교 위원회의 책임이다. 선교 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 위원회를 두어 선교 활동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선교위원회는 그 설립목적은 선교 지향적인 목회에 두고 본 회의 운영 방향, 조직, 운영을 포함한 본 회의 모든 사역을 이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한다. 임원들은 담임목사와 모든 교역자, 모든 당회원,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 전문인으로 편성되며 그 안에는 정책 실행 위원회, 선교자문 위원회, 선교 협력위원회, 선교 행정 위원회, 양육 파송 위원회, 지역선교 위원회 등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선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첫째, 선교 정책위원회는 해외 선교사역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목사, 장로, 각 위원회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주된 역할은 제반 사역에 대한 정책적 검토, 선교사 허입에 관한 일차적 선발, 다른 위원회의 활동과 교회 내외의 사역과의 협력 등을 의논하게 한다. 각 선교지별로 전문 팀을 구성하여 선교지의 역사와 상황을 계속해서 연구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각 선교지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무시되지 않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선교 자문위원회는 본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로 구성되며 선교정책, 선교사 허입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사역 등에 관한 정책적 자문과 협의를 하는 기구이다.

셋째, 선교 협력위원회는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선교기관 및 교회, 교단과 협력하여 한국교회의 선교전략, 앞으로의 선교방향 등에 관한 연구 및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한다.

넷째, 선교 행정위원회는 교회가 현재 파송,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행정적인 일을 전담하고 선교 현지의 긴급한 필요와 기도제목 등을 신속히 교회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선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관심을 지속시키는 선교 촉매제 역할, 선교 부흥 집회, 선교지 사진전, 교회 내 모든 기관과 선교사의 후원관계 등의 선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역을 기획하고 주관한다. 그리고 중보 기도모임을 통하여 선교사와 가족들,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사역을 끊이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양육 파송 위원회는 해외선교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선교강좌나 교육을 통해서 선교사 후보생을 발굴하고 훈련한다. 여기서 선발되고 양육된 선교 헌신자는 보다 정선된 선교사 훈련을 통해 교단, 혹은 협력선교기관 등으로 추천된다.

여섯째, 지역 선교위원회는 각 선교지별로 부서로 조직한다. 각 부서에서는 교회 선교회 혹은 전도회의 부장과 총무가 실무를 담당하고 이들 부서는 매주 혹은 한 달에 한번 이상씩 해당되는 지역의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모임을 하며 현지 선교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하여 자세한 기도제목과 현지 상황을 교회에 알리며 후원한다. 전도 선교위원회아래 각 남·녀 선교회가 소속되며 각 선교회 (전도회)는 위임받은 선교사들을 지원한다. 주일학교 선교 위원회에 모든 주일학교가 소속된다. 청년 선교위원회에는 청년부와 대학부 회원 중 선교 관심자들을 모아서 청년 선교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 위원회에는 선교 실행위원회 일부로 구성되어 선교사들의 자녀를 지원하며, 여름 고국 방문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도록 인력과 재정으로 지원한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는 교회의 선교적 구조화를 이룸으로 선교는 교회가 세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전 교회적인 사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 준다.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파송위주의 정책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선교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선교사에게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피할 수 있게 하고 선교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교의 역사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되면서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상호간에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는 점차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관계의 구조화로 가능하다.

### 3. 관계의 구조화

#### 가. 선교사의 목회참여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관계의 구조화도 필요하다. 선교사가 어떻게 파송교회의 목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관계의 구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많은 경우 파송교회와 선교사 상호관계의 갈등구조를 해결하지 못하여 능률적인 선교를 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회가 선교사를 간섭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선교사는 파송교회의 눈치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선교에 주력할 수 없게 된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사와 파송교회의 상호간에 목회적 관점과 선교 정책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선교사는 파송 교회의 목회적 관점을 이해하여야 하고 교회도 선교사의 선교 정책을 이해하여야 한다.

먼저 선교사가 어떻게 본 교회의 목회방침에 협력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선교사가 본 교회에서 선발되고 훈련과 양육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서 꾸준히 실시하는 선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역교회는 선교사의 모판으로 계속적으로 선교 헌신자들을 배출해 내어야 한다. 교회는 선교사 파송의 주체이며 기도와 재정 후원의 모체이다. 선교사역의 확대와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속적인 선교 교육을 통하여 선교 헌신자를 발굴하고 목회자의 선교 방향에 정책에 따라 선교사로 훈련시

키며 양육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선교사는 담임목회자나 파송교회의 선교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교회나 목회자도 선교사에게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이것을 선교의 과제로 삼고 일꾼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데 주력을 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양성하지 못하면 다른 기관과 교회에서 훈련된 선교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이미 다른 환경과 여건에서 굳어져 버린 목회적 관점과 선교정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목회방향과 정책을 접목하기란 쉽지 않다.

교회가 선교사를 선발하였으면 선교지로 바로 파송할 것이 아니라 본 교회 목회에서 인턴쉽을 받게 하여야 한다. 선교사는 최소한 1-2년을 담임 목회자와 함께 목회함으로서 파송할 교회의 선교방향과 목회의 특성을 익히게 된다. 교회 선교 위원들과 함께 선교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보다 폭넓은 준비를 할 수 있다. 선교사가 직접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후원하며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선교정책에 간여해야 하는가 등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든 교인들도 선교사의 이름과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파송 받을 선교사의 면면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며 이런 인격적인 교류를 통하여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선교에 함께 협력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상적인 기도를 피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선교사는 선교지로 파송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본 교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선교정책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 선교지의 사정을 선교 위원회에 보고하며 앞으로의 사역 방향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 나. 교회의 선교 참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선교지 사정에 밝아야 한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만 보낸다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담임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교인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팀선교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 당회원들의 정기적인 선교지 방문은 선교현장의 상황을 바로 인식하게 하며 선교사와 선교지의 필요를 알게 하고 무엇보다 일선에 있는 선교사로 자신이 혼자 해야 하는 선교가 아니라 파송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임

을 깨닫게 한다. 주일학교의 지도자들과 각 기관의 장들의 선교지 체험은 교육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며, 교육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의 올바른 선교헌신과 관심은 교육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준다. 이런 교회의 적극적인 선교참여를 통하여 보다 역동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 함께 참여하는 선교는 우리의 선교현실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동시에 선교사들의 사역과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 분담이 분명해진다.

오늘날 선교의 방향은 평신도와 전문인 선교로 발전하고 있다. 평신도들의 개발과 훈련은 본 교회의 선교 교육과 선교 현장에서 선교 체험을 통한 이원화를 통하여 평신도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선교를 익힐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청년부나 대학부, 혹은 각 전도회의 수련회를 단기 선교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사전에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보조할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며 선교사에게는 온 교회가 선교에 협력하고 있다는 관계성을 확신하게 해 준다. 무엇보다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지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선교 헌신자에게 알게 해 주는 기회가 된다.

교회의 선교참여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선교사의 자녀 정책이다. 선교사들이 사역에 전념하면서 자녀들에게 한국의 정체성과 신앙교육을 시키는 일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선교사의 자녀 교육에 대한 정책은 시급한 선교사역에 묻혀 간과되어 왔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송되는 선교사도 선교훈련과 사역지에서의 정착, 언어습득, 개척의 방향, 현지사정 등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강승삼 교수의 21세기 선교의 길라잡이라는 책에서 “선교사 자녀에 관한 통계(한국세계 선교협의회 편, 1992)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2,576명의 선교사들에게 1,008명의 자녀들이 있고 지금은 3,500-4,000명의 자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중 39퍼센트가 취학 전의 유아이고, 초등학생이 29퍼센트, 중학생이 6퍼센트, 고등학생이 3.9퍼센트, 대학생 이상이 7.4퍼센트, 불명이 14퍼센트로 나타나 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자녀가 전체의 약 80퍼센트에 이른다.”<sup>180)</sup>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

180) 강승삼, 21세기 선교의 길잡이, 221.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의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선교현장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중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은 선교지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은 여러 교회의 연합정책으로 가능하며 필리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 단기적으로는 교사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선교사의 자녀들을 돕는 일이다. 또는 선교사의 자녀들로 방학을 이용하여 고국을 방문하게 함으로 한글과 문화, 역사들을 익히게 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 다. 선교단체와 협력

##### (1)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협력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선교구조화를 위해서는 선교 단체와의 협력이 시급하다. 선교단체와의 협력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교회가 선교의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교 단체가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선교단체가 갖는 전문성 때문일 것이다. 강승삼 교수는 선교단체와의 전략적인 차원의 협력의 필요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교회가 선교의 근간이요 선교 인력의 모판이고 선교재정의 출처하고 할 수 있지만 개교회주의 선교는 많은 한계와 혼란을 가져왔다. 이 경우, 현지 관리가 안 된다. 1990년까지의 선교 정책 부재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선교정책 시대요, 선교 협력의 시대에 와 있다. 한국의 4만여 교회가 각각 개교회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현지에서는 협력 대신 개교회의

---

아님을 발견하였다. 선교사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아래의 조사보고서에서 밝히 말하고 있다. 어느 선교사의 딸이 졸업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Rift Valley Academy 기숙사학교의 5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선교사 자녀의 35퍼센트 이상이 장차 선교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학교는 유치원 과장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인데 전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다. 이 학교는 이미 근년에 와서 졸업생 중 125명 이상이 이미 장기적인 전문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미국교회 해외선교부가 주목하고 있는 선교의 인적자원을 배출하고 있는 좋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한국선교의 비전과 협력, 493에서 재인용

경쟁적 지도하에서 선교사가 움직이게 되므로 정책 있는 전략적 선교를 할 수 없다.<sup>181)</sup>

그러므로 선교단체들과 협력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선교단체들은 각 단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며 오랜 기간동안의 연구와 노력, 실제 선교 현장에서 얻어진 많은 임상경험과 이를 토대로 한 검증된 정보, 그리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선교단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적인 정보와 기능, 유, 무형 자원들을 교회와 공유하는 일은 21세기 선교에 있어 절대 필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 선교단체들이 서로의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 교회의 선교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교회는 선교 전략적인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많은 교회가 여전히 파송위주의 선교에 머무르고 있다. 파송만 하면 선교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교회가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선교사의 피나는 노력에 비해 거두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교회는 불행하게도 교회와 선교단체와에 약간의 긴장이 있다. 선교에 앞장선 교회들마저도 아직까지는 선교단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개교회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전략을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도 벅찬 일이다. 이제는 서로간의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개교회와 선교단체들은 상호 보완의 관계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단체들은 그 자체의 경험과 특수성을 잘 살리면서 그 근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두어야 할 것이며, 개교회는 선교단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교회는 선교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선교단체들의 전문성을 교회는 활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전문적인 선교 단체들이 힘을 합해 감당해 주어야 한다. 아직 한국 교회의 선교적 열기에 비해 절대 부족한 정보 및 훈련 기능을 생각할 때 더 많은 전문 기관들이 생겨나기도 해야 하겠지만, 모든 선교단체가 정보 및 훈련 기능을 갖추려 하기보다는 가용한 기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피하고 선교행위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각 기관이 추구하는 사역에 집중

181) 강승삼, 21세기 선교의 길잡이, 193.

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남은 과업의 완수를 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 (2) 훈련적인 측면에서의 협력

선교사의 훈련과 양성에 있어서 선교단체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교회가 선교에 열정을 가진 후보생들을 선발할 수는 있으나 이들을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영성훈련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가능하나 다른 훈련 특히, 인성훈련이나 지적훈련, 체력훈련 등은 교단 선교 훈련센터와 기타 다른 선교단체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훈련에 있어서 선교후보생의 사역지와 사역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선교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선교단체들 가운데 사역의 방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GBT나 HOPE같은 경우는 사역의 방법을 중심으로 세워진 선교단체이며, GBT는 성경번역 사역을 위한 선교단체이다. 또 선교지에 따라 협력이 가능한 선교단체가 서로 다르다. 서부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선교 단체중에는 국제적인 단체로서 SIM, WEC, NTM, 흥해선교회 등이며, 국내선교단체로서는 GMP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선교단체들이 그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분야가 무엇이며, 사역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장 합동 총회 산하 교단 선교 훈련원인 M.T.I(182)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스텝진에 의해 알찬 교육을 제공한다.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지로 파송 받기 전에 M.T.I에 입학해서 공동체 합숙 훈련, 타문화권 훈련, 언어 훈련, 영성 및 인격 훈련, 선교행정 오리엔테이션 등의 이론과 실재를 겸해서 받는다. 그리고 국제적인 선교단체들(AIM, SIM, OM, WEC, OMF, WBC, The Alliance)등과 연결되어 협력과 조력을 받기 쉬우며 동역자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

선교사에게 있어 인성훈련은 영적인 훈련 못지 않게 필요하다. 한국 해외 선교회(G.M.F)의 산하 부서로서 OMF, GBT, GMP, HOPE, KRIM, GPTI 등과 선교 공동체

182)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지로 파송 받기 전에 M.T.I에 입학해서 공동체 합숙 훈련, 타문화권 훈련, 언어 훈련, 영성 및 인격 훈련, 선교행정 오리엔테이션 등의 이론과 실재를 겸해서 받는다. M.T.I의 훈련기간은 정규 과정이 5개월로 국내 훈련 4개월 (3개월 과정과 1개월 과정), 해외 훈련 1개월로 구성되며, 이때에 선교사 자질 문제, 선교지 선정, 후원교회 선정, 선교사역 방향 등이 계획된다. 이렇게 해서 일년에 두 차례 M.T.I에서 실시된다.

를 이루고 있는 GMTC183)의 인격 훈련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한다. 선교 훈련생이 입소하면 훈련기간 중에 전원이 다 성격 구조 검사를 T-JTA(Taylor Johnson Temperament Analysis)184)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수동형이 사람과 능동형의 사람을 구분하여 상담해 주는데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인성 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사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O.M(Operation Mobilization)선교회는 다양한 국제적으로 구성된 국제 팀으로 유명하며 한국 O.M선교회는 1990년 1월 16일 옥한흠 목사를 이사장으로 한국이사회를 구성하고 서울, 부산, 대구, 제주에 지부를 두고 사역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한인 1.5-2세 들을 선교에 동원하기 위한 O.M KAM과도 연계해서 사역하고 있다. O.M 선교회가 국제 선교단체임을 감안할 때 국제화된 선교훈련과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전략을 공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선교단체가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후보생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개교회가 이들과 상호 협력하여 선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송후에도 선교사들에게 많은 전략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185)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한국이나 여러 세미나에서, 그리고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에 헌신을 하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선교사역 가운데 동원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차세대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이런 선교단체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개교회는 교회에서 발굴된 많은 선교 후보생들에게 앞으로 사역할 선교지 선정이나 사역의 방향을 감안하여 합당한 선교단체와 협력해야 하며 그들에게 맞는 선교단체의 양질의 훈련을 받

183) GMTC (한국 선교 훈련원)는 1986년에 이태웅 목사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이 곳은 타 문화권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 후보생 및 선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선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다.

184) T-JTA (Taylor Johnson Temperament Analysis)란 성격구조의 검사로서 양 극면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그 좌표 상에 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구조를 파악하는 심리 테스트로서 결혼 상담자들이 종종 하는 테스트이다.

185) 언어훈련에 있어서는 1985년 2월에 OMF의 주관 아래 설립된 A.C.T.I. (Asian Cross-cultural Training Institute)도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훈련원은 싱가포르의 북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으며, 타문화 공동체 안에서 선교학에 강조점을 둔 실제적인 선교사 훈련 기관이다.



게 함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제 4 절 평신도 선교 정책

##### 1. 평신도 선교의 필요성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선교는 급변하는 선교 현장의 요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날 평신도 선교나 전문인 선교는 시대적으로 긴급하고도 중요한 선교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21세기의 선교는 더 이상 전통적인 선교방법을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선교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선교의 전략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미전도 종족 집단에 대한 선교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절절하고 효율적인 선교전략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에도 평신도 선교운동에 대한 자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미전도 종족 혹은 미전도 국가의 선교를 구상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매우 많다.

첫째, 전통적인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정식 선교사의 입국을 거부하는 미전도 종족 혹은 미전도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1차 로잔대회가 열렸던 1974년에는 약 33개국이 기독교 선교를 거부했다. 제2차 로잔대회가 열렸던 1989년에는 그 수가 86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현재는 선교 대상국의 95퍼센트 이상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선교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21세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세계 선교 환경 역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86)</sup>

둘째,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숫자가 부족하다. 이 땅에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11,000여 종족이 된다. 신학교마다 신학생과 선교사 후보생들이 넘쳐 나지만 아직

186)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편,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서울: 도서출판 창조, 2000), 77-78. 선교학자 Herbert Kane은 “많은 나라들이 종래의 선교방식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배척함에 따라 전문인선교 사역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선교방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현시대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는 역부족이다. 특히 전통적인 선교사의 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의 미전도 종족 20억 대상의 선교사 숫자는 전세계 약 15만 명으로 개신교 선교사의 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반면, 나머지 93퍼센트는 이미 복음화 된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전도 지역에 더 많은 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미전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선교사 숫자는 약 3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의 선교사 수 증가율로 볼 때, 약 35만 명을 더 확보하려면 무려 향후 500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sup>187)</sup> 그러므로 현재 안수 받은 목사들의 숫자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많은 평신도 선교사의 파송만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뿐이다.

셋째, 사역지에서의 사역이 다양화됨에 따라 평신도 선교사의 사역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교사의 사역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선교사만으로는 그 사역을 다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10/40창 지역에는 전세계 인민의 82퍼센트와 전세계 40개의 저개발 국가 중 18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들은 식량난, 문맹, 보건 및 의료혜택의 미비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구제 및 개발 분야에서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선교사들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의 자녀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훈련받은 많은 교사들의 파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초대교회 이후 계속해서 수많은 평신도들이 선교사로서 혹은 전도자로서 혹은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였다. 현재 세계적인 초 교파 선교단체들은 이러한 평신도 선교사들을 주로 받고 있으며 이들은 선교의 일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선교가 더욱 전문화되면서 각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평신도 선교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한다.

## 2. 평신도 선교사의 사역분야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과 파송은 각 선교지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곳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

187)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세계선교의 비전과 협력, 161-162.

떠한가, 어떤 종류의 선교사를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가, 과거의 선교전략은 어떠했으며 그것이 성공했으면 어떤 이유이고 그것이 실패했으면 왜 그런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정 그 나라에 필요한가? 등을 연구하여 각 선교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평신도가 직업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면 어떠한 직종이 가능한가, 그것에 필요한 정부와 관계 기관과의 교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평신도 선교사가 선교현지에서 사역 가능한 분야는 매우 많다.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역시 복음전도 사역이다. 이것은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평신도 선교사가 목사 선교사와 한 팀을 이루어 선교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방법이다.

#### 가. 교육 사업

평신도 선교사는 선교지 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기독교 상담, 특수 교육, 장년 교육, 교육 이론, 현지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협력할 수 있다.

#### 나. 의료 사업

오래 전부터 평신도 선교사가 가장 많이 사역한 부분이다. 특히 10/40창에 있는 선교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현지인들을 진료하고 위생교육, 건강 보건 교육을 시키며, 생명 윤리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할 수 있다.

#### 다. 구호 사업

낙후된 지역에 지역개발 구제, 사회개발 등을 담당하고 그들의 경제와 환경의 개선을 돕는 사역으로 농업, 공업 등의 기술자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난민촌에서의 사역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다.

#### 라. 미디어 사업

방송사역 등을 통해서 특히 복음을 들고 직접 가기가 힘든 공산권이나 타종 교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잡지, T.V 영화, 슬라이드, 전도지 등을

사용해서 폭넓게 사역할 수 있다.

#### 바. 성경번역 사업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가지지 못한 부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며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하는 사역으로 하나님 말씀의 전파와 그 지역 문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 사. 기술 또는 행정 사역

건축기사, 대목, 정비 기술자, 컴퓨터 전문가, 회계사, 기타 행정요원 등의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더 많은 영역에서 평신도 선교사는 사역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선교 현실에서 평신도 선교사의 양성과 파송으로 선교의 인력 수급과 개념상, 사역상의 제한적이면서도 높은 벽과 선입관들을 불식시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미 있게 하나님의 교회 건설에 각양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98퍼센트가 평신도임을 감안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과 기술들이 선교현장에 얼마나 유효 적절하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한국 선교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 3. 평신도 선교사를 위한 교회의 역할

21세기의 선교의 특징들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첫째, 21세기는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대한 과제이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여러 성경 본문들이 증거 하듯이 이 시대의 최우선 순위의 선교적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도시들에 대한 복음의 관심이다. 전세계가 점점 더 대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현재 전세계 인구의 53퍼센트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몰려 살고 있다. 반면에 도시들은 자꾸만 복음에 소외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도시에 대한 선교전략

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셋째 이 엄청난 과제들을 잘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이다. 바로 전문인 선교이다. 미전도 종족과 도시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대는 보다 많은 전문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199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GCOWE)때에는 위의 세 가지 선교의 중요성을 담은 1995년 서울 세계 선교대회 선언문을 그대로 반복하다시피 하기도 했다.<sup>188)</sup>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선교사를 더 많이 양성하고 훈련시켜 타문화권에 파송하여야 한다. 개교회가 이런 일을 하여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교회는 평신도 선교사의 자원을 무한정 확보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1,200 성도 중에는 묻혀 있는 자원들이 무한정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평신도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자기의 일에 따라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는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어떻게 선교에 사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망설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평신도라는 이유로 후원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도 많다. 개교회가 선교에 보다 많은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이들에게 선교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재정이 확보되어 있다. 지금까지 교회는 전통적인 선교관과 선교 사역에 몰두하였다. 이제는 선교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평신도 선교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하여야 한다. 많은 평신도들이 전문인 선교에 관심이 있어도 평신도라는 이유로 후원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나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한 평신도 선교사도 많이 있다. 개교회가 이들에게도 선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기도 및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지역교회는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 훈련시켜야 한다. 전문인 선교사도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사이기에 선교 소명, 자질과 소양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인 선교사

188)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편,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159-160.

라고 해서 준비 없이 선교지에 파송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문인 혹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려면 교회에서 목회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실제적인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제자양육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방법을 익혀야 하고 자기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반드시 교회의 파송을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혼자서 사역하는 것보다 다른 선교사들과 팀을 형성하여 협력 선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신도 선교는 21세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주 대상이다. 세계복음화의 남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개념의 선교사 전략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많은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평신도 선교사역을 대거 활성화하여야 한다. 21세기 한국 선교의 방향과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수행할 주체는 평신도 선교사들이다. 그렇기에 개교회는 자기 교회의 평신도들을 잘 개발하고 훈련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세워 나가야 한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민족과 11,000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의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과 위치를 재확인하고 이들을 선교사로 길러 내야 한다.

## 결 론

한국 교회는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새 천년의 시대는 선교의 급증하는 양적 성장과 확대로 인하여 질적 향상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선교의 새로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선교의 중심적인 축이 이제는 서구에서 제3세계 교회로 옮겨지고 있으며 그 중요한 책임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기존의 선교 전략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고조되었으며 선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그리고 선교사역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질적인 선교 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교회, 특히 개교회의 선교의 동기와 그리고 선교의 전략의 약점으로 인한 문제라고 인식하여 본 논문을 통하여 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먼저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을 다시 정립 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선교는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입장에서 논문을 썼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21세기를 향한 선교 패러다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선교는 형편에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을 때 주로 나타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행자임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때 자신의 본분을 알게 되고 겸손히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뿐 아니라 선교사와 모든 선교 훈련원생,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선교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였다.

제 1 장에서는 교회와 선교라는 큰 방향을 잡기 위하여 먼저 교회론을 신학적, 성서적, 문헌적 기초 위에서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교회론에서 선교가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선교가 교회의 한 기

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교회의 발현과 개념, 그리고 교회의 사명 등을 살펴보았다.

제 2 장에서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신학적 성서적 문헌적 기초 위에서 살펴보았다. 역시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특별히 교회의 본질을 선교라는 측면에서 발견하기 위함이었다. 언뜻 보기에 구약에는 선교사상의 기초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열방의 장래가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방 열국들도 장차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용이 구약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약에서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가 시작되면서 신약의 선교 역사는 시작되었다. 신약성경은 선교로 가득 차 있다. 4복음서의 내용,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 서신서의 선교 방법론 등 많은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 명령은 선교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보다 분명히 해 주고 있다.

제 3 장에서는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언어적인 측면에서와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관계성을 살펴봄으로 교회와 선교가 본질적으로 한 방향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 많은 교회들의 선교를 교회의 한 기능 정도로 생각되는 현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지에 대한 질문 없이 도식적으로 이미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선교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선교의 보편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루터는 원리적으로 복음이 사도들에 의하여 이미 전파된 것으로 보고 이제 개교회를 통한 이웃 전도만 남은 과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다. 이 말씀에는 선교 사명이 사도들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 끝 날까지, 그리고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보편성이 암시되어 있다. 지도자뿐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선교국 교회뿐만 아니라 피선교국 교회까지도 선교의 사명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신자가 다 선교사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패러다임을 살펴보았다. 앞장에서 연구한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에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목회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교회성장을 교회의 최대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실용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교회성장과 선교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는 교회가 복되다는 말과 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거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교가 교회 성장의 도구는 아닌 것이다. 교회성장을 위한 선교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선교가 교회개혁과 성장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해도 그것들이 선교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선교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고 성장하는 기구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도구인 것이다. 교회성장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이차적인 것이 일차적인 것과 대치되는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결과로 성장한 교회들을 그 모델로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논문의 전제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전주 안디옥교회나 동신교회가 교회성장이 목회의 목표가 아니라 세계 선교가 교회의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성장이란 자연스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제 6 장에서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위한 전략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역자의 선교 의식이 변해야 한다. 성장위주의 목회를 탈피하고 선교 위주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새롭게 요구되는데 그 출발점은 선교 의식의 변화였다. 또한 기존의 모든 조직과 예산 정책도 새로운 구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새로운 관계 개선도 중요했다. 선교사와 목회자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하여금 목회에 참여할 부분을 제시하였고 교회도 선교사의 사역에 참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또 한가지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은 선교단체와의 관계 개선이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선교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선교사들이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단체들이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선교의 전략과 정책의 부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바이다. 양적으로 팽창된 한국 선교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측면이 도출되고 있다. 선교에 대한 열심과 성숙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교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이나

경험, 방법이나 전략 등은 서구 교회에 비해 빈약한 상태이다.<sup>189)</sup>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교단체와 교회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목회의 방향이 선교이며 급변하는 선교 방향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전문인 선교나 평신도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대상은 평신도이다. 여러 선교지에서 전문화된 평신도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목사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지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평신도 선교는 21세기의 새로운 선교의 방법임을 이미 확인하였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 정책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서의 선교와 지역교회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열의는 대단하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여전히 개교회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등한히 하고 있거나, 선교를 하나의 장식용으로, 혹은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피상적인 선교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여야 한다. 그 대안은 선교 지향적인 목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량주의적 목회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 전략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필자는 보다 효율적인 논문을 쓰기 위하여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교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많은 전략들을 제시하였지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더 많은 선교의 이슈들이 오늘날 선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목회의 방법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89) 전호진, 한국 교회와 선교, vol. 2 (서울: 엠마오, 1985), 152.

## 부 록

## 1. 통계 처리를 위한 개인 자료

다음은 통계 처리에 사용될 개인의 자료를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해 주시고 ( ) 안에는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 성 별 :         | 출생 연도 : |   |
| 2. 최종학력 :        | (       | ) |
| 3. 출신교단 :        | (       | ) |
| 4. 현 사역지 :       | (       | ) |
| 5. 사역연한 :        | 3년 이하 ( | ) |
|                  | 5년 이하 ( | ) |
|                  | 5년 이상 ( | ) |
| 6. 결혼여부 :        | 미 혼 (   | ) |
|                  | 기 혼 (   | ) |
| 7. 자녀 수 :        | (       | ) |
| 8. 파송 선교단체나 교회 : | (       | ) |

## 2. 설문지 응답 요령

1. 왼쪽 응답 난에는 귀하가 훈련시 교육받았던 내용이 선교 현장 사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지 5 단계로 해당되는 곳에 0표를 하여 주십시오.
2. 오른쪽 응답 난에는 선교 훈련원의 교육 과정이나 그러한 내용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선교 현장 사역에 도움이 되며, 어느 정도나 시행될 필요가 있는지 5 단계로 해당되는 곳에 0표를 하여 주십시오.

### 현 재 수 준

- |                   |   |
|-------------------|---|
| * 매우 도움이 된다.      | 5 |
| * 대체로 도움이 된다.     | 4 |
| * 보통이다.           | 3 |
| *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 |
|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 |

### 기 대 수 준

- |                |   |
|----------------|---|
| * 반드시 필요하다.    | 5 |
| * 대체적으로 필요하다.  | 4 |
| * 그저 그렇다.      | 3 |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2 |
| * 전혀 필요치 않다.   | 1 |

## 3. 선교 사역 분석

\* 선교사님의 사역에 관하여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선교사님은 파송전에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3.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형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4. 선교사님이 사용하시는 사역 언어는 무엇입니까?
5. 선교사님의 후원비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6. 선교사님은 팀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고 계시다면 어떤 단체나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7. 선교사님은 선교사 재교육을 받으셨습니까?
8. 선교사님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참 고 문 헌

## 1. 국내서적

- 강승삼. 21세기 선교의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 고원룡. 선교사명자 안내. 서울: 보문 출판사, 1979.
- 권삼승. "선교사 훈련원의 실태와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신학석사논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 1995.
- 김명혁.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83.
- 김세윤. "목회자를 위한 성경신학."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1997.
- \_\_\_\_\_. 바울 복음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 \_\_\_\_\_.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델로서의 바울." 목회와 신학. 2000년 8월호, 72-83.
- 김성태. "성장의 유형별 분석과 선교지 성장모델." 목회와 신학. 1993년 7월호, 72-87.
- 김운태. "선교 지향적인 목회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6.
- 김의환.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 김재술. 목회학. 서울: 세종문화사, 1979.
- 도문갑. "선교의 주역 교회인가? 선교단체인가?"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1989.
-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 박기호.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1996.
- 박삼수.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서울: 기문출판사, 1987.
- 박용규. 한국장로교 사상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 박형룡. 조직신학 4. 서울: 한국 기독교 연구원, 1995.
-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9.

- \_\_\_\_\_. 복음주의 선교신학. 이계준 역음. 현대선교신학. 서울: 전망사, 1992.
- 신동우. 선교학. 서울: 예루살렘, 1993.
- 신성종. 신약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이강천. 2000년대는 한국교회의 선교시대. 서울: 두루선교격려회, 1989.
- 이동휘 외 6명. “복음과 한국 교회가 떠오른다.” 목회와 신학. 1995년 5월호, 112-126.
-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2.
- 이종성. 교회론. Vol. 1.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 이중표 외. 교회발전을 위한 선교개발. 서울: 쿤란출판사, 1993.
- 이태웅. 한국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 해외선교부, 1996.
- 임광제. “현대 선교전략을 위한 성경적 선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1984.
- 전재욱. “한국교회의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빛과 소금. 1988년 1월호, 62-78.
-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 \_\_\_\_\_. 한국교회와 선교. Vol. 2. 서울: 엠마오, 1985.
- 정민영 외. 21세기를 향한 한국선교의 비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6.
-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 \_\_\_\_\_. “요한칼빈의 목회신학.” 아신 3 (1988): 28-36.
- 동신세계선교회. 열방을 향한 발걸음. 동신세계선교요람. 두 번째판. 대구: 동신교회, 1998.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Vol. 2.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교회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2.
- \_\_\_\_\_. 세계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6.
- 한국선교정보 연구센터. 한국선교 핸드북. 서울: 한국해외선교부, 1994.
- 한국전문인세계협의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서울: 도서출판 창조, 2000.
- 허달수. “한국 해외 교회 선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1987.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전도부 편. 선교자료집. Vol. 1.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89.

## 2. 번역서적

- Bavink, Johan H. 선교신학개론.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 Berkof, Louis.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 \_\_\_\_\_. 교회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Bosch, David. 선교신학. 전재옥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 Davies, John G. Worship and Mission. 김소영, 홍철하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Harrison, Everett F.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 신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68.
- Hoekendijk, Johannes C.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풀어지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Graham, Jim.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윤준서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2.
- Kane, James Herbert. 선교신학의 성경적 기초.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 \_\_\_\_\_. 세계선교역사. 신서균, 이영주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_\_\_\_\_.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백인숙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9.
- Lewis, Jack P. “בְּרָא.” 성서원어대전: 구약사전 (The Biblical Word Study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2. 서울: 한국성서 연구원 브니엘 출판사, 1988, 1254.
- Murray, John. 조직신학. Vol. 1. 박문제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 Nelson, Marlin L. 오늘의 아시아선교. 윤두역 역. 서울: 보이스사, 1980.
- Neill, Stephen. 기독교 선교사. 오만규, 홍치모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Newbegin, Lesslie. 선교신학개요. 최성일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 Stott, John. 현대 기독교 선교.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Thayer, Joseph H. “ἐκκλησία.” 성서원어대전: 신약사전 (The Biblical Word Study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7. 서울: 한국성서 연구원 브니엘 출판사, 1988, 301-303.
- VanEngen, Charles E. 모이는 교회 풀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 Wagner, Charles Peter. 성경적 교회성장. 서정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_\_\_\_\_,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이요한 역. 서울: 성경연구사, 1986.  
 \_\_\_\_\_,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Watson, David.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87.

### 3. 외국서적

- Blauw, Johannes.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 A Survey of the Biblical Theology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74.  
 Bosch, David. Witness to the World: The Christian Miss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Atlanta: John Knox, 1980.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Clowney, Edmund P. The Church.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1995.  
 Glasser, Arthur "Mission in the 1990s: Two Views."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3/1 (Jan, 1989): 2-10.  
 Glasser, Arthur and Donald,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1974.  
 Goodall, Norman (ed). Mission under the Cross. London: Edinburgh House Press, 1953.  
 Hoekendijk, Johannes C. "The Church in Missionary Thinking."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41 (1952): 324-336.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The Missionary Obligation of the Church. London: Edinburgh House, 1952.  
 Latourette, K. Scott. The Gospel, the Church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1946.  
 McGavran, Donald A. and Win C. Arn. How to Grow a Church. Glendale: Regal Books, 1973.  
 Neill, Stephen.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England: Penguin Books, 1990.  
 Newbigin, James E. Lessile. The Household of God: Lectures of the Nature of

- the Church. New York: Friendship, 1954.
- \_\_\_\_\_. One Body, One Gospel, One World. London & 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58.
- \_\_\_\_\_. The Open Secret—Sketches for a Missionary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 Minear, Paul S. "כְּנִסָּה."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1.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608-609.
- O'Brien, Peter T. "Church." in Dictionary of Paul and It's Letters. Garden Grove: IVP, 1985, 123-137.
- Riew Young K.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선교학박사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5.
- Rowley, Harold. H. The Rediscovery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6.
- Schmidt, Karl Ludwing. "ἐκκλησία."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65, 501-503.
- Thomas F. Torrance. "The Mission of the Chur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9 (1966): 141.
- Von Rad, Gerhard. Old Testament Theology. Vol. 2. Translated by D. M. G. Stalker.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65.
- Wagner, Charles P.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A Biblical Mandat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 1981.
- \_\_\_\_\_. A Biblical Theology of the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81.
- Winter, Ralph D.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2. (January 1974): 122-139.
- Young, Edward J. The Study of Old Testament Theology Today. London: James Clanke and Co., 1958.

Vita of  
Sung Eun Kim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at Valley United Presbyterian Church  
16200 Chatsworth st. Granada Hills, CA 91334

Personal Data:

Birth date: February 20, 1962  
 Marital Status: Married to Han Na Kim  
 Home Address: 1717N. Verdugo Rd #285  
 Glendale, CA 91208  
 Phone: (818) 244-1860  
 Denomination: Presbyterian of Korea (Hab Dong)  
 Ordained: April 12, 1995

Education:

B. A. Taegu Theological Collage & Seminary Taegu, 1990  
 M. Div.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Seminary  
 & Chong - Shin College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ersonal Experience:

3/98 to present Assistant Pastor at Valley United Presbyterian Church  
 1/95 to 9/96 Education Pastor at East West Church of L.A  
 2/94 to 10/94 Missionary in Philippines (Short Team)  
 1/92 to 1/94 Evangelist at Beo-meo Presbyterian Church  
 8/89 to 12/91 Evangelist at Wae-Goan Presbyterian Church

Family Information:

Wife: Han Na Kim (Jan. 18, 1965)  
 Children: Sam Ryul Kim (Dec. 07, 1989)  
 Joon Ryul Kim (Feb. 02, 1991)